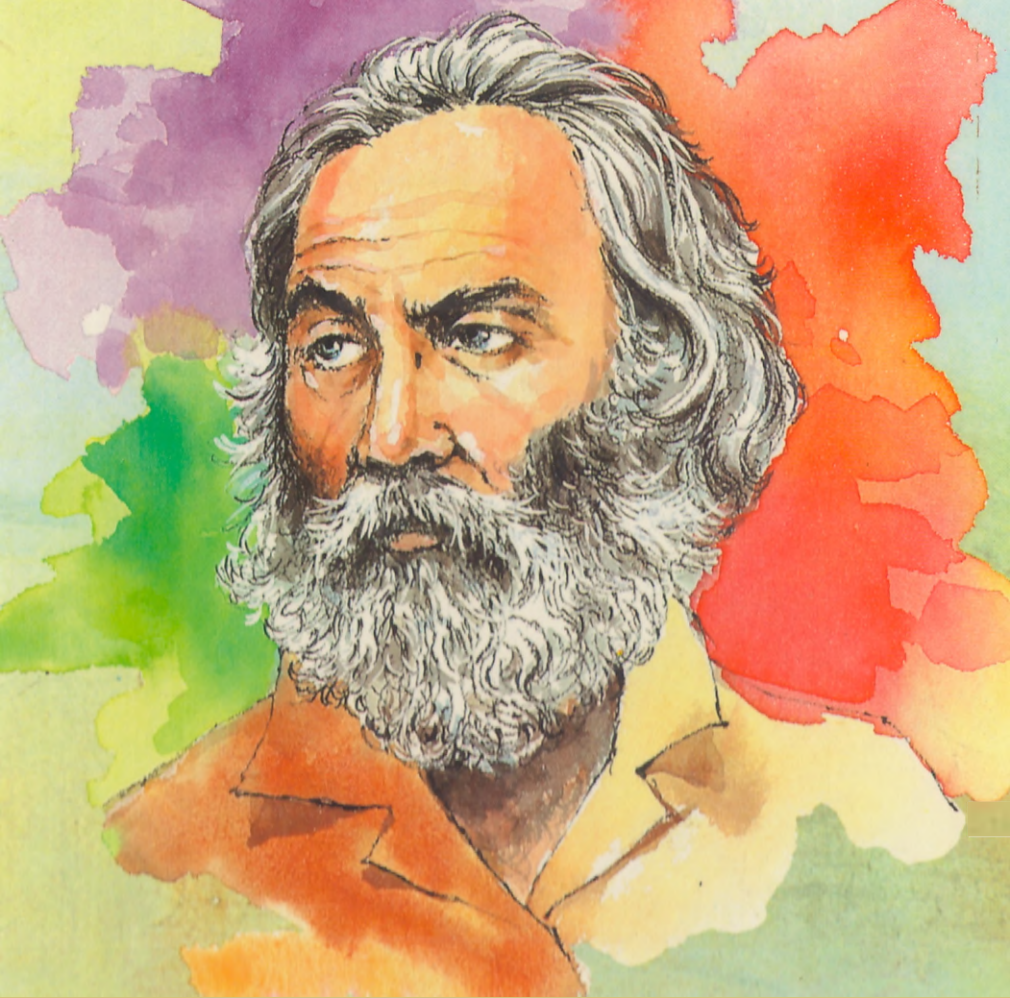


세계편 / 소년소녀 위인전기 15

휘트먼

글 장문평
그림 이 평협





인류의 스승

1 그리스도



항해 탐험가

2 콜롬부스



자연 과학의 아버지

3 갈릴레이



근대 과학의 건설자

4 뉴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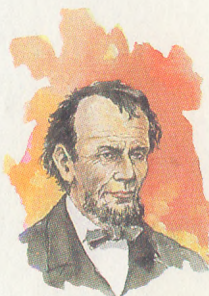
가곡의 왕

9 슈베르트



동화의 아버지

10 안데르센



노예 해방의 대통령

11 링컨



진화론의 창시자

12 다윈



세간의의 창시자

17 파스퇴르



곤충학자

18 파브르



러시아의 문호

19 톨스토이



노벨상을 낳은 과학자

20 노벨



원자핵 물리학자

25 퀴리 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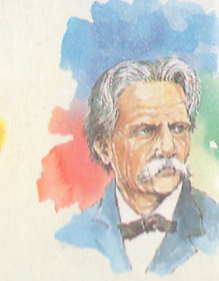
비행기의 발명가

26 라이트 형제



인디아 독립의 아버지

27 간디



밀립의 성자

28 시바이저



근대 교육의 창시자

5 페스탈로찌



천재 음악가

6 모짜르트



유럽을 정복한

7 나폴레옹



악성

8 베토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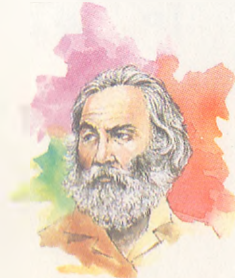
아프리카의 탐험가

13 리빙스턴



농민을 그린 화가

14 밀 레



민주주의의 시인

15 휘트먼



백의의 천사

16 나이팅게일



발명왕

21 에디슨



정열의 화가

22 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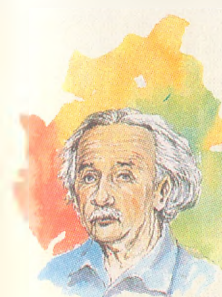
북극 탐험가

23 난센



중국 독립의 아버지

24 쑨원



천재 물리학자

29 아인슈타인



여류 교육가

30 헬렌 켈러



흑인 가수

31 마리안 앤더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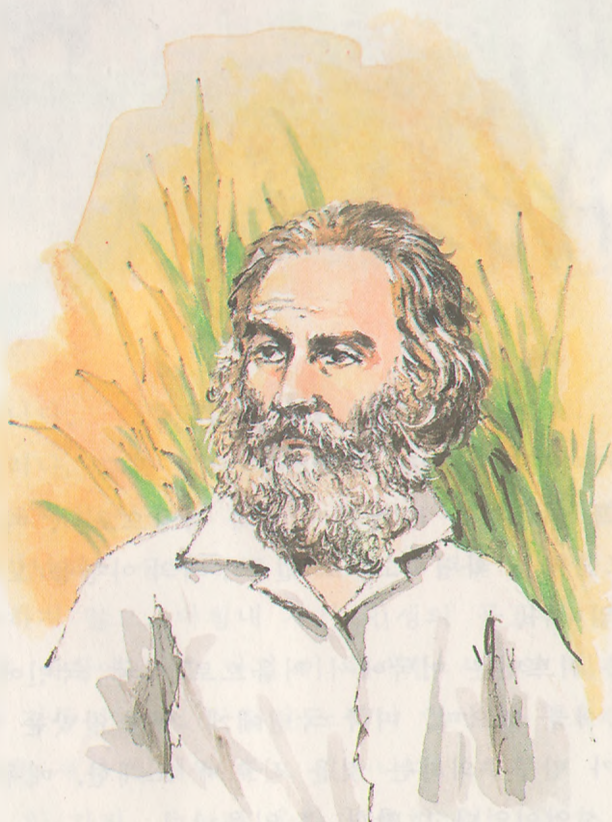
뉴우 프런티어의 기수

32 케네디

세계편/소년소녀 위인전기 15

휘트먼

글 장 문 평
그림 이 협



금성출판사



머 리 말

윌트 휘트먼은 19세기 미국의 시인으로서, 미국의 국민 문학을 확립하고, 또 민주주의의 이상을 노래한 시인입니다.

즉, 휘트먼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미국 국민에 알맞는 시를 썼으며, 미국 국민에게 가장 알맞는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시로써 노래한, 매우 위대한 시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부유하지 못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학교 교육이라고는 국민 학교를 얼마 다니다가 중퇴한 것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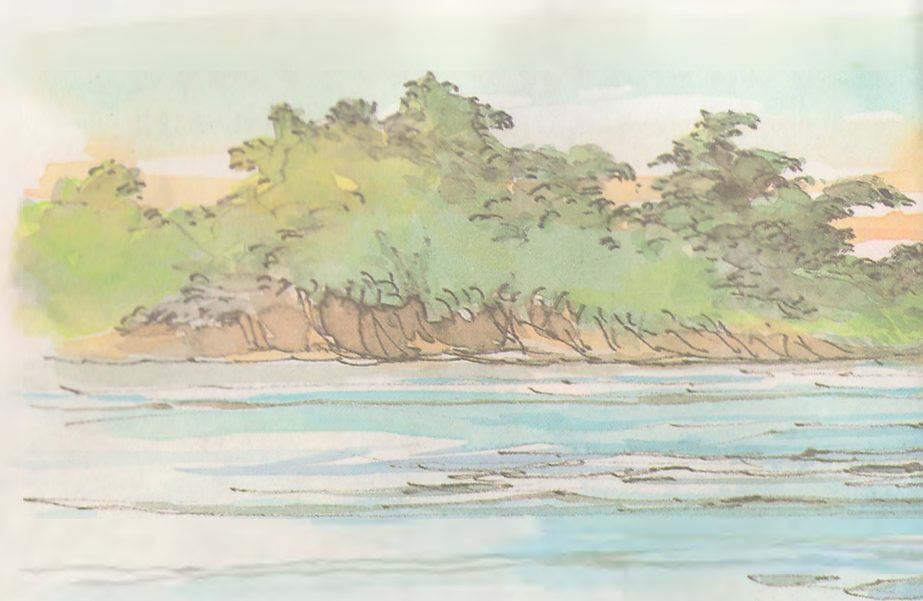
그러나,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하여 끝내 위대한 시인으로서의 성공을 거두고 온 세계에 빛을 남겼읍니다. 가난해도 슬퍼하지 않고, 홀로 떠돌아 다녀도 외로와하지 않고, 마침내 자기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여 온 세상에 빛을 남긴 이 위대한 시인의 삶은 참으로 감동적이며, 끈질긴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읽고 쓰고 있는 자유시라는 시의 형태가 생겨나게 된 데에는 휘트먼의 영향이 컸던 것입니다.

1888년 6월 2일, 에순 아홉 살의 휘트먼
은 강둑에 서서 오랫동안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본문 147 페이지에서)







차 례

머리말.....	2
건강한 소년.....	8
국민 학교 선생님이 된 휘트먼.....	26
게으름뱅이의 철학.....	44
신문사에서 신문사로.....	59
뉴우오올리안즈 시로 떠나다.....	68



첫번째 시집을 내기까지.....	76
세상의 악평.....	103
에머슨의 편지 이후.....	111
찬란한 명성 속의 불행.....	121
나의 공상이여, 안녕 !	144
해 설.....	154
연 표.....	158
■ 학습 인명 사전	161



건강한 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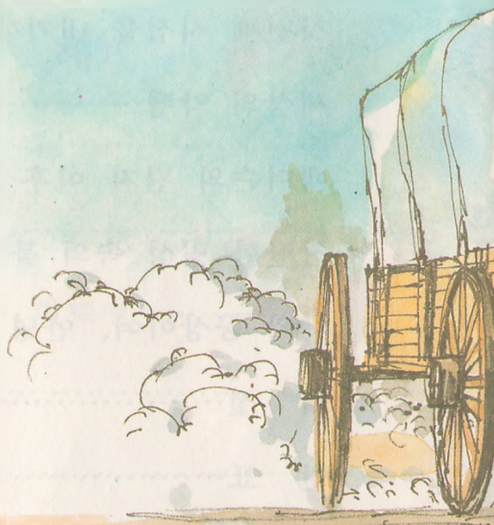
서기 1830년 경의 일입니다.

여기는 미국 동북부의 대서양 연안에 있는 롱아일랜드라는 섬. 이 섬은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의 거리가 약 25킬로미터, 그리고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의 거리가 약 1백 90킬로미터쯤 되는 물고기 모양의 섬입니다. 이 섬의 웨스트힐즈라는 마을 근처에 사는 농부들은, 1 주일에 한 번씩 포장을 씌운 짐마차로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뉴우요오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브루클린이라는 곳으로 야채를 가득 싣고 가는 노인과 꼭 마주치고는 합니다.

마부석에 앉아서 고삐를 잡고 있는 사람은 뚱뚱한 노인인데, 이름은 반 베르자였습니다. 그는 웨스트힐즈의 변두리에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이구, 소령. 나가시는군요.”

그와 만나는 마을 사람은 누구나 낮익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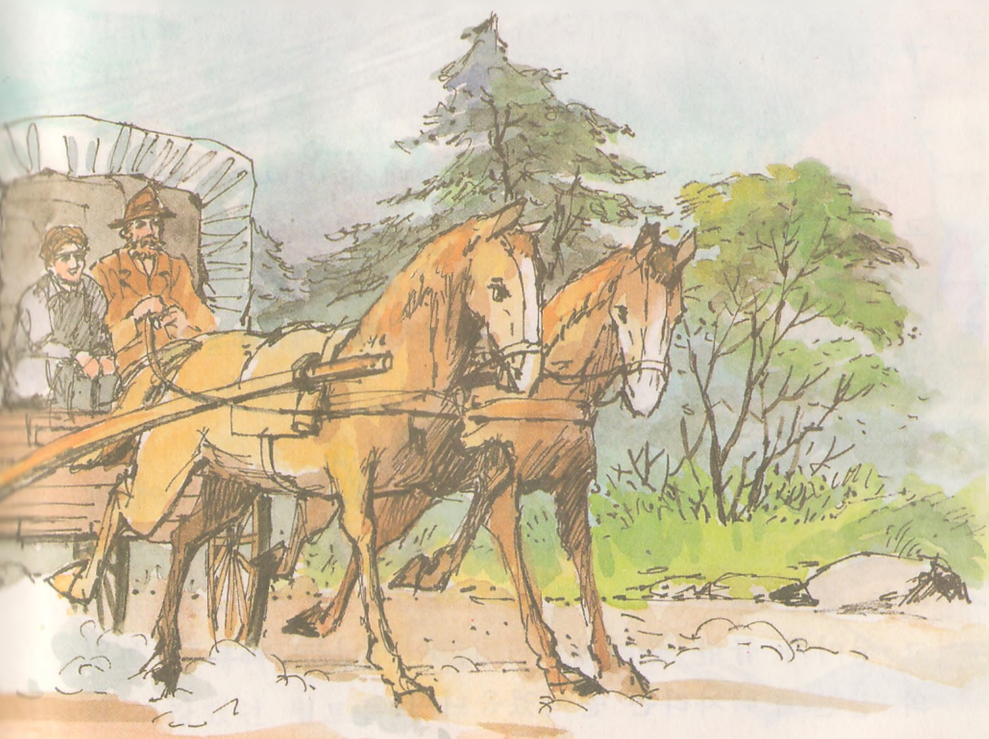


노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베르자 노인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침 인사를 받습니다.

소령이라고는 하지만, 베르자 노인이 그런 군인 장교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어쩌다 오래 전부터 마을 사람들에게서 그런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베르자 노인은 그의 밭에서 수확한 야채를 가득 실은 마차를 섬의 가장자리까지 몰고 간 다음, 바닷가에서 나룻배에다 옮겨 싣고 뉴우요오크의 시장까지 가서 팔곤 했습니다.

베르자 노인은 이렇게 1 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야채를 팔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옆자리에는 대개 머리털이 새까맣고 건강한 남자아이가 기쁜 표정을 짓고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 소년은 베르자 노인의 손자인데, 이름은 월트 휘트먼이었습니다. 노인과 성(姓)이 다른 것은 노인의 외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월트 휘트먼이란 소년은 1819년 5월 31일에 웨스트힐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월터 휘트먼이라는 분이었는데, 농사일과 목수일을 다 하며, 말이 적고 성미가 급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베르자 노인의 딸인 루이자라는 분이었습니다.

월트가 태어날 무렵에 그들 월터, 루이자 부부는 베르자노인의 이웃에서 살고 있었으나, 월트가 네 살 때는 뉴우요오크에 가까운 브루클린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월트에게는 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는 집이 가장 정든 곳이었습니다. 오래 된 커다란 외갓집, 건초가 가득 차 있는 커다란 헛간, 닭과 돼지와 산양 따위를 가둬 놓은 울타리, 그 중에서도 넓은 부엌과 항상 불길이 빨갛게 타오르는 난로가 특히 좋았습니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건강했던 월트는



집 바깥으로 뛰어다니는 것이 좋았습니다. 근처의 높은 언덕에 올라가면, 멀리서 푸른 바다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바다까지의 거리는 고작 2,3킬로미터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요한 밤에는 파도 소리가 똑똑히 들려 오곤 했습니다.

웨스트힐즈에서 사는 사람들은 날씨가 좋을 때에는 언제나 월트가 뛰어다니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월트는 건강하기도 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야.”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말하며 믿음직스럽다는 듯한 표정으로 월트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정말 그들의 말대로 월트는 추운 겨울에도 물이 들어차 있는 바닷가의 큰 물굽이에 가서, 얼음판에 구멍을 내고 뱀장어 낚시질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월트는 친구들을 데리고 나가
바닷가를 뛰어다니며 갈매기의 알을 주웠습니다. 때로
는 할아버지 베르자 노인의 잘 달리는 말을 끌어 내어
타고 다녔습니다.

월트는 것처럼 활기 있게 뛰어다니는가 하면, 또 어
떤 때는 바닷가의 모랫더미 위에 앉아서, 마치 꿈을 꾸
기라도 하는 듯이 오랫동안 꼼짝하지도 않았읍니다.

월트를 아는 사람들은 농부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부들도 선원들도 모두 월트와 잘 아는 사이였고, 귀
여워해 주었습니다.





월트에게는 형 제시와 누이 한나가 있었는데, 브루클린으로 이사한 뒤에는 그의 밑으로 아우와 누이동생들이 태어나서 나중에는 9 남매가 되었습니다. 월트는 그 9남매 중에서 세째였으나, 아들로서는 두 번째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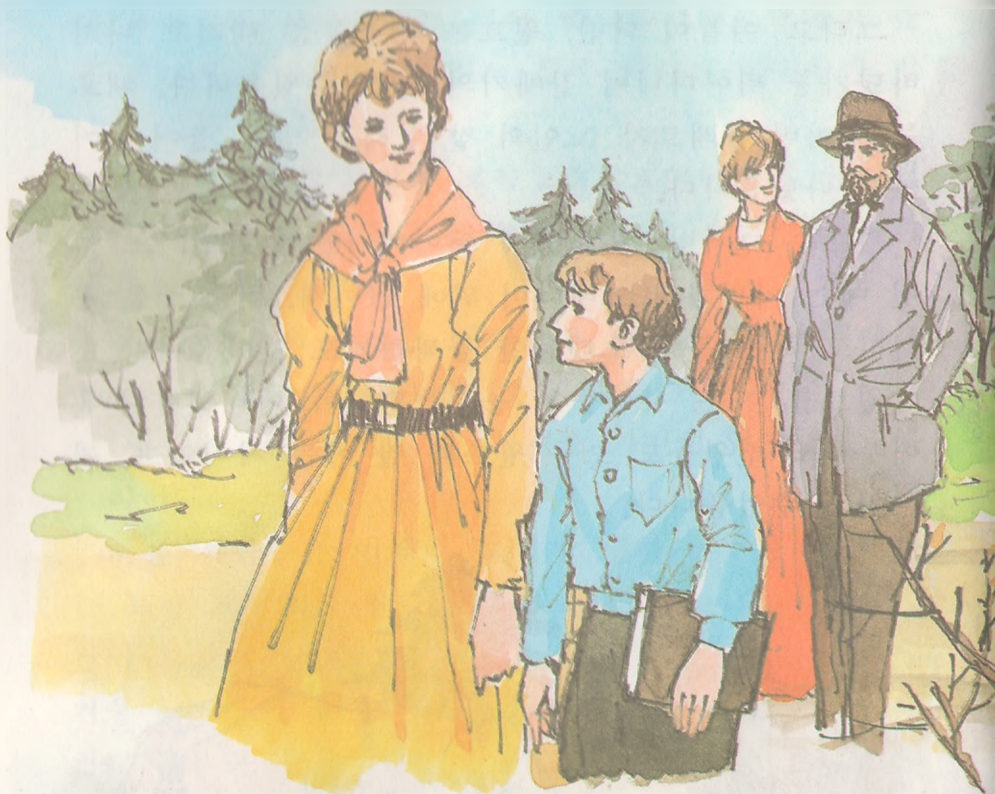
그 무렵의 브루클린은 인구가 7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월트의 아버지는 농사를 짓기가 싫어서 브루클린으로 이사를

했었으나,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자리잡고 살지 않고 브루클린의 빈민가 같은 곳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월트의 아버지는 돈벌이가 시원치 않았으나, 퀘이커 교도였으므로 월트를 데리고 자주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월트의 어머니는 매우 애정이 깊은 분이었는데, 언제나 명랑하고 인내심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월트는 누구보다도 이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월트는 훗날 미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시인이 된 후에도, 이 어머니를 나무랄 데 없는 분이라고 찬양하며, 어머니의 얼굴을,



월트는 언제 보아도 매우 의젓한 남자다운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회색의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런 얼굴의 모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매우 불임성이 있는 그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월트는 브루클린 나룻배의 선장이나 선원들과도 사이가 좋았으며, 부두에서 하는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과도 친했습니다. 월트는 부모가 살고 있는 브루클린도 좋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는 웨스트힐즈도 매우 좋았습니다.

‘맑게 갠 하늘보다도 더 맑고, 더 아름답다.’
라고 그의 시(詩) 속에서 노래했습니다.

월트는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를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나 종교에 대해서 언제나 자유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던 아버지에게서도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1825년, 여섯 살이 된 월트는 브루클린 공립 국민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무렵은 공립 국민 학교라는 것이 아직 드문 시대였고, 학교 선생은 누구에게나 무서웠습니다. 지금의 국민 학교와 달라서 학생의 수효도 적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상이 주어지지 못해서 커다란 둥근 테이블 하나에 10명 가량의 학생들이 둘러앉아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학교에서의 월트는 조금도 부지런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앞에 앉아 있어도 언제나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으므로, 선생님한테서 자주 꾸중을 듣곤 했습니다.

선생님은 회초리를 들고 다니며 학생들에게 학과를 외우게 하여, 외우지 못하는 학생은 철썩철썩 회초리로 때려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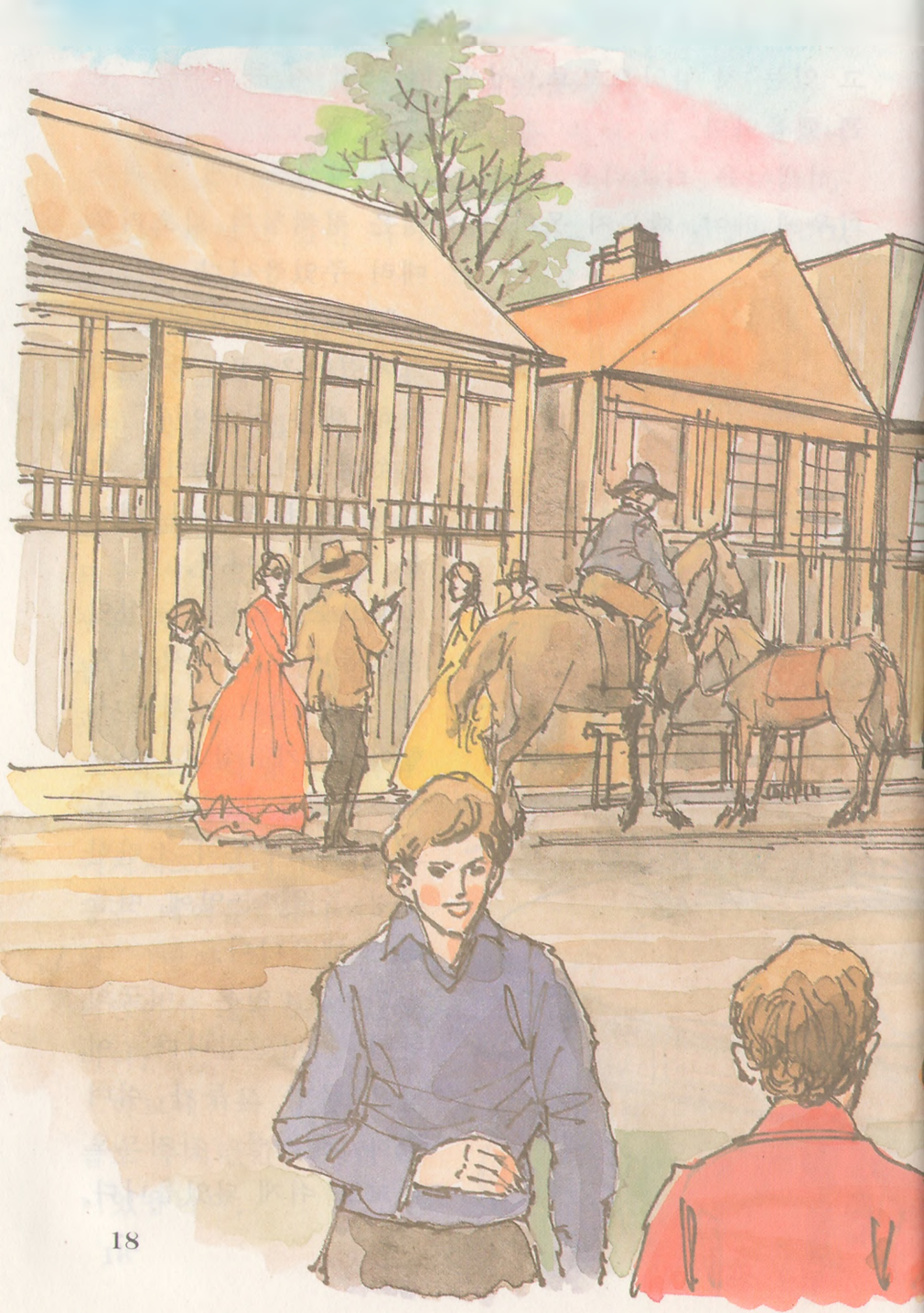
“휘트먼, 아직 정신 못 차렸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

선생님의 회초리는 소리를 내며 월트의 어깨를 후려쳤습니다.

월트는 이런 교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집 바깥의 생활이나,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웨스트힐즈의 정든 풍경, 브루클린 부두의 소란한 광경 들을 눈앞에 떠올리곤 했습니다.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 기념일입니다. 이날은 국민 모두가 쉬며 축하 행사를 가지므로 학교도 쉬게 되었습니다.







그 날은 아침부터 불꽃이 쏟아
아 올려지며, 퍼레이드(경축일
을 위한 시위 행렬)가 벌어지
는 등 브루클린 시내는 어느
곳이나 떠들썩했습니다.

게다가, 그 날 브루클린 시내
에는 프랑스 사람인 라파이에
트 장군이 온다는 소문도 퍼졌
습니다. 라파이에트 장군은 전
에 미국의 첫번째 대통령이었
던 조오지 워싱턴을 도와 주어
큰 공을 세운 일이 있는 유명
한 장군입니다.

브루클린 사람들은 그 장군
을 환영하기 위해 준비를 서둘
렀습니다.

라파이에트 장군은 당시 모
든 미국 국민들로부터 영웅으
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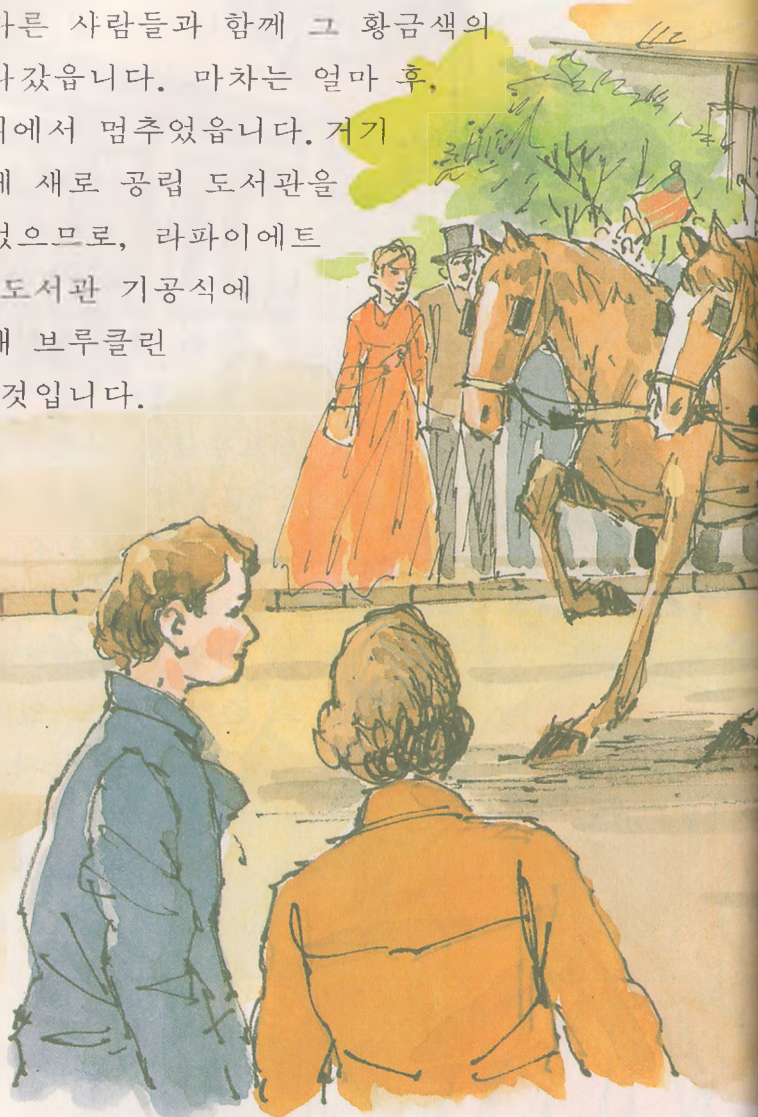
월트도 친구들과 함께 폴튼
거리에 나가 사람들 틈에 끼여
서, 라파이에트 장군이 마차를
타고 오는 것을 보려고 기다리
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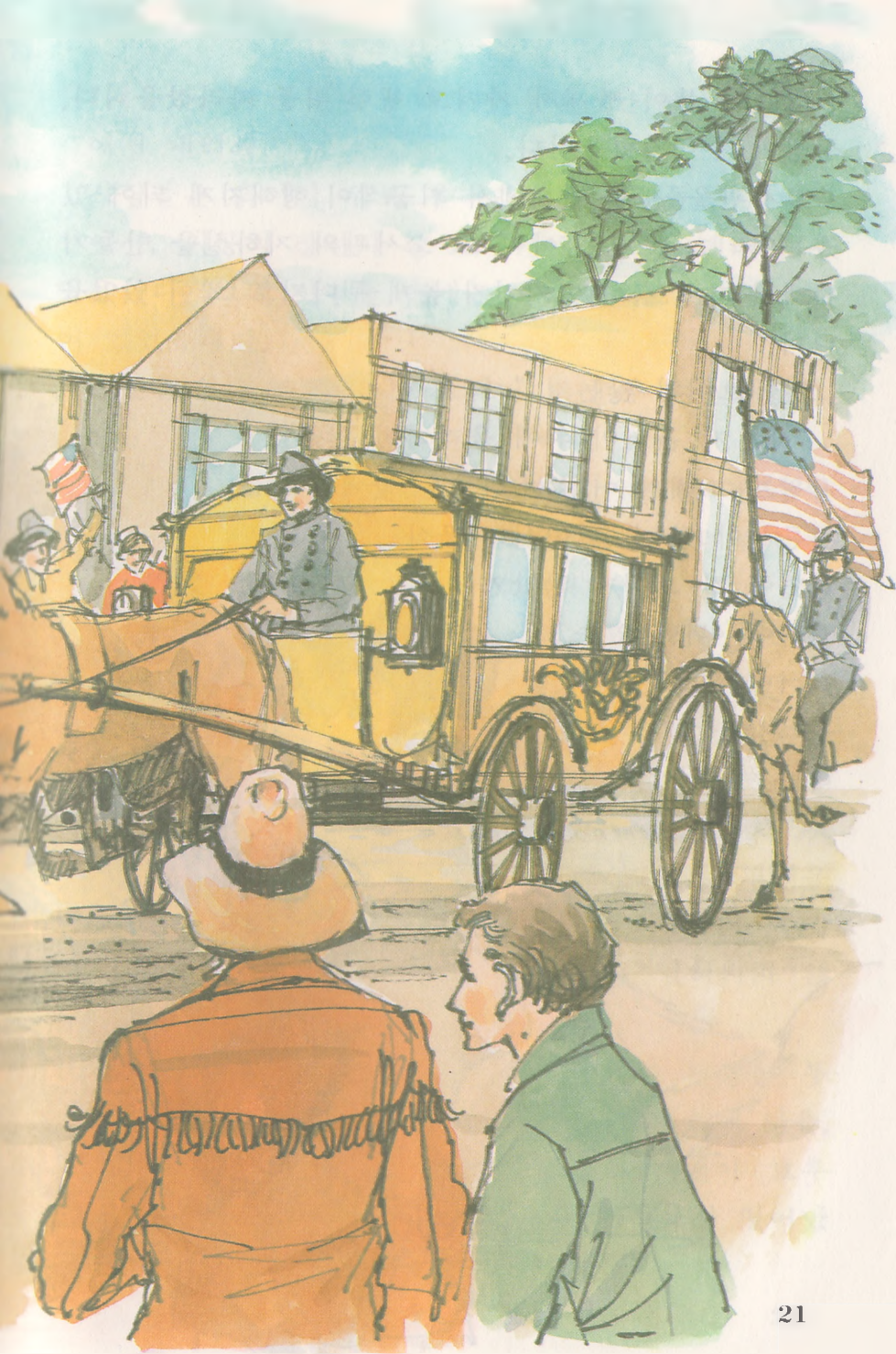
“야아, 왔다!”

누군가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곧 바람처럼 사람들 사이로 퍼져 나갔습니다.

라파이에트 장군은 황금색 마차를 타고 브루클린의 큰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장군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영에 손을 흔들며 답했습니다.

윌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황금색의 마차를 따라갔습니다. 마차는 얼마 후, 마아킷 거리에서 멈추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번에 새로 공립 도서관을 세우게 되었으므로, 라파이에트 장군은 그 도서관 기공식에 참석키 위해 브루클린에까지 온 것입니다.





월트는 볼이 빨개져 가지고 행렬 뒤를 따라갔읍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읍니다.

도서관을 세울 빈터에서 기공식이 행해지게 되어 있었는데, 그 곳에는 이미 그 도서관의 지하실을 만들기 위해서 파낸 흙이 여기저기 높게 무더기로 쌓여 있었읍니다.

“잘 보이지 않는걸.”

“애, 저 흙더미 위에 올라가지 않을래?”

월트 또래의 어린 소년들은 앞에
어른들이 꼭 차 있어서 기공식
장면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흙더미 위로
올라갔읍
니다.



“얘들아, 거긴 언제 무너질지 몰라. 안 돼, 내려와!
어서 내려와!”

사람들은 흙더미 위로 올라가려는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서, 기공식 장면이 잘 보이는 앞쪽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는 라파이에트 장군도 끼여 있었습니다.

장군은 월트 옆으로 다가오더니, 억센 두 손을 내밀고,

“어디 보자.”

하고는, 월트를 번쩍 안아올렸다가 내려놓아 주었습니다.

“허, 튼튼한 아이로구나.”

장군은 이렇게 말하더니, 월트의 뺨에 키스를 해 주었습니다.

이 때의 일은 평생을 두고 월트의 머리 속에 깊이 남아 잊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 해에는 평생을 두고 월트의 머리에 남을, 또 하나의 사건이 브루클린의 부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무렵, 갑판에다 수십 문의 대포를 갖춘 목조 쾌속 범선을 <프리깃>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프리깃의 하나인 폴턴 호가 브루클린에 있는 해군 도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무원들의 부주의로 갑자기 폴턴 호가 폭발하였습니다.

“앗, 큰일 났다!”



선생님을 비롯해서 학생들도 모두 바깥으로 뛰어나 왔습니다.

이 사고로 폴턴 호에 타고 있던 승무원 43명이 죽었습니다. 그 때 죽은 승무원에 대한 합동 장례는 며칠 뒤에 거행되었습니다.



월트는
그 행렬의
선두에 선 군악대
옆에서 따라갔습니다.

군악대는 슬픈 장송곡을 연주했고, 그 뒤로는 수병들이 묵묵히 줄을 지어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승무원 43명에 대해 조의를 표하는 조포가 계속 하늘에 쏘아 올려졌습니다.

국민 학교 학생인 월트에게는 그 때의 엄숙한 광경이 오랫동안 마음 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국민 학교 선생님이 된 휘트먼

브루클린 시내는 평소에도 언제나 소란스러웠습니다. 길에서 쫓겨가는 돼지들이 꿀꿀거리는 소리, 부두에 매어 있는 배들이 삐걱거리는 소리, 짐마차나 승용차의 바퀴들이 덜커덩거리는 소리, 부두에 모여 있는 노동자들이 외치는 소리, 그리고 주정장인들이 싸우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브루클린이 차츰 더 큰 도시로
변해 감에 따라 그러한
소란스러움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월트 소년은 그런 시끄러운 소리들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롱아일랜드 웨스트힐즈의 조용한 거리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정말 그 곳은 조용한 곳이야. 흐르는 냇물 소리, 바닷가에 부딪쳐서 부서지는 가냘픈 파도 소리……, 모두 그런 소리들뿐이거든…….’

이렇게 소란한 도시에 있으면, 월트는 자꾸 저 웨스트힐즈의 조용한 분위기가 그리워졌습니다.



월트는 언제나 옷차림 같은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읍니다. 그리고, 얼핏 보기에는 어쩐지 멍청한 듯하고 별로 약삭빠르지 못한 소년같이 보였으나, 마음 속으로는 것처럼 외부 세계가 주는 모든 인상에 대해서 매우 감수성이 날카로운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선생님들은 누구나 월트가 것처럼 감수성이 날카로운 학생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고, 또 생각지 못했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애는 게으름장이여서, 공부 같은 것은 할 생각이 없는가 보다.”

어떤 선생님이든 이렇게 말하며 월트에게 실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월트는 월트대로 학교에 가야 아무 재미가 없고, 선생님들은 모두들 다 자기한테 찌푸린 얼굴만 보이곤 했으므로, 결국은 스스로 학교에 가지 않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월트는 국민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열 한 살 때에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월트가 학교에 다닌 것은 결국 5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좋다. 그래도 나는 독립해서 내 스스로 나의 생활을 꾸려 나갈 테야.’

라고 월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월트의 집은 여전히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월트는 곧 브루클린 시내에서 변호사 사무소를 차려 놓고 있던 클라아크 씨라는 분의 사무소에 사환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클라아크 씨는 매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월트를 귀엽게 여기어 그에게 책을 읽는 즐거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글을 쓰는 방법도, 또 문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독서를 좋아하게 된 월트는 틈만 있으면 얼른 시내에 있는 공립 도서관으로 가서 책을 빌어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슨 책이건 다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무렵에 그가 좋아하였던 책은 《아라비안나이트》였습니다. 월트는 신기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그 책에 흠뻑 반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밖에도, 월트가 그 무렵에 즐겨 읽은 책은 영국의 문호로 알려진 월트 스콧의 《아이반호우》와 같은 역사 소설과 미국의 쿠퍼가 쓴 《모우히컨 족의 최후》와 같은 모험 소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월트의 머리 속에는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신백과 알리바바, 스콧의 소설에 나오는 십자군의 기사들, 쿠퍼의 소설에 나오는 인디언과 같은 인물들이 언제나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 무렵에도 월트의 집은 여전히 가난하여, 자주 이사를 했습니다. 또, 그들이 이사해 가는 곳은 늘 빈민가였기 때문에, 월트는 가난한 노동자들과 항상 친했습니다.

그 노동자들의 국적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즉, 아일랜드 사람, 도이칠란트 사람, 네덜란드 사람, 흑인 등 다양하였고 그들의 직업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월트는 큰 배와 부두 사이의 짐을 나르는 거룻배의 사공이나, 행상인 들과도 친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는 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과도 친했습니다.

월트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언제나 부드러운 눈으로 관찰하였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을 좋아하였고, 또 롱아일랜드의 할아버지네 밭일을 거들어 드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열 한 살의 월트는 장래 자기가 노동자가 될 것인가, 농부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나한테는 그런 직업이 하나도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걸.”

월트는 가끔 이렇게 중얼거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1831년, 월트가 열 두 살인 때입니다. 그는 롱아일랜드에서 발행되고 있는 《페이트리어트》(애국자를 가리키는 말) 신문을 인쇄하고 있던 클레멘츠라는 사람의 인쇄소에 취직하게 되어, 그 곳에서 활자를 맞추어 판을 짜는





견습 식자공이 되었습니다.

윌트는 본래 독서를 좋아했기 때문에, 책과 관계가 있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때, 윌트에게 식자공의 일을 가르쳐 준 사람은 하츠호온이라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츠호온 노인은 자기가 젊었을 때에 몇 번 본 일이 있는 조오지 워싱턴이나 토머스 제퍼슨 등 위인들에 대해서, 윌트에게 이야기해 주어 그를 기쁘게 해 주기도 했습니다.



2년 후인 1833년, 열 네 살의 월트는 다른 인쇄소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이 해에 월트의 부모님은 끝내 브루클린에는 정을 붙이지 못하고 다시 고향인 롱아일랜드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월트만은 브루클린에 남아 하숙 생활을 하면서 틈만 있으면 책을 읽기도 하고, 소설을 직접 써 보기도 하고, 뉴우요오크의 극장으로 연극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뉴우요오크까지는 별로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문사와 관계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



람들에게는 극장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초대권이 주어졌습니다.

그 무렵, 뉴우요오크의 극장에서는 셰익스피어가 지은 희곡을 상연하고 있었습니다.

월트는 극장에 가기 전 날이면, 미리 자기가 보게 될 연극의 각본을 잘 읽어 두었습니다. 이를 테면, 《리처드 3 세》《리어 왕》《햄릿》《템페스트》 등이 흥미로왔는데, 월트는 그 중

에서도 《리처드 3 세》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3 세》의 연극을 보던 일이 먼 훗날까지도 기억에 생생했다고 합니다.

1834년, 열 다섯 살이 된 월트는 어른처럼 후리후리한 키의 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게다가, 월트는 얼굴이 잘생긴 편이었으므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힐끗 돌아다보는 수가 많았습니다.

월트는 여전히 인쇄소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틈만 생기면 어부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으며, 나룻배를 직접 움직여 보는 등 시간을 밖에서 보내는 때가 많아졌습니다.

월트는 인쇄소를 여러 군데 옮겨다니며 일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쇄소의 주인한테나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식자나 인쇄일에만 전념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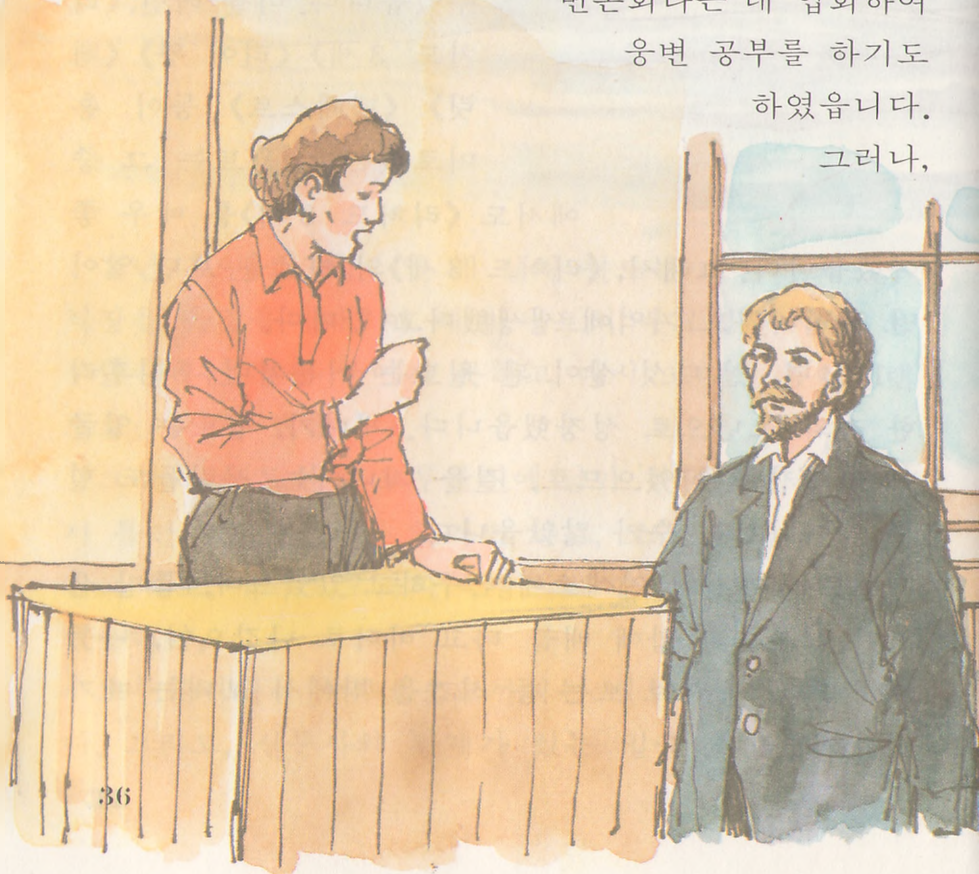
이윽고 그는 글을 쓰는 데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쓴 글이 신문이나 잡지에 실릴 수 있을까…….’

월트는 줄곧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신문 인쇄의 일을 하는 한편, 여러 사람 앞에서 연설을 잘 하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브루클린 변론회라는 데 입회하여
웅변 공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나에게 알
맞는 것은 편집인
이나 소설가일지
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었읍
니다.

어느 날, 월트는
자기가 쓴 글을 신
문사에 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
우요오크에서 발행
되는 《미러》라는 신
문에 찰막한 원고를
써서 보냈읍니다. 그
런데, 그 원고가 신
문지상에 실린 것이
아니겠어요! 월트는

자기의 하숙으로 배달된
그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읍니다.

월트는 자기도 모르게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집어서
그 신문에 실린 자기의 글을 오려 내어, 소중하게 노
우트에 붙였읍니다. 그리고, 자기가 쓴 그 글을 여러 번
거듭해서 자꾸자꾸 읽어 보았읍니다.

열 여섯 살 때에, 월트는 뉴우요오크로 가서, 그 곳에
있는 어떤 인쇄소의 식자공으로 일하게 되었읍니다.





그 무렵 뉴우요오크는 한창 발전하는 도시였는데, 아일랜드 등지에서 몰려온 이민인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새로운 직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려고 단단히 베풀고 있는 선동가들이 있어서, 언제나 피비린내나는 소란이 벌어졌고, 밤에는 마음놓고 거리를 나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극장도 많이 생기고 유럽과의 교통도 훨씬 더 빈번해졌으며, 증기선은 허드슨 강에 흰물결을 일으키며 왕래를 했습니다. 또, 철도는 거침



없이 멀리 뻗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애스터 호텔>과 같은 큰 호텔이 세워진 것도 이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월트가 근무하고 있던 인쇄소가 이 해 겨울에 큰 화재로 모두 타 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해, 뉴우요크의 겨울은 매우 추웠습니다.

그리하여, 한 번도 앓아 본 적이 없는 월트였으나, 이 추위에는 도무지 배겨 낼 수가 없었으므로, 그의 부모님이 계신 롱아일랜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월트의 부모님은 롱아일랜드의 햄프스테드란 곳에서 살며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곳에 간 월트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기쁜 마



음으로 전원을 돌아다니며, 소 떼가 유유히 목의 방울을 울리면서 외양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 보기도 하고, 또 바닷가로 가서 솔밭속을 몇 시간씩이나 생각에 잠겨 거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월트의 마음에는 차츰 초조한 기분이 심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확실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우와 누이동생이

많아 그의 부모들은 여전히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만은 월트를 잘 이해하여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월트를 따뜻하게 보살피 주셨고, 월트가 얼마나 책을 좋아하고, 또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가를 전부터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래도 농사 같은 것에 매달릴 아이는 아니야.’

어머니는 언제나 월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월트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인 월트가 언제나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눈을 하고 있고, 또 밭의 일을 시켜 보면 언제나 꾸물거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또 월트의 식사 시간이 언제나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때라도 먹고 싶을 때 부엌에 가서 찾아 먹는 것을 전혀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월트의 그런 불규칙한 생활 태도에 대해 놀화를 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롱아일랜드의 조그마한 국민 학교에서 선생을 구한다는 소문이 월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그런 궁벽한 시골 국민 학교 선생을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웁지, 학교 선생이 되자. 선생이 되면 한가한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섬 안을 마음 내키는 대로 돌아다닐 수도 있을 테니까.’

그 무렵에는 학교 선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조금도 번거롭지 않았읍니다. 학생들보다 조금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생이 될 수 있었읍니다.

그래서, 윌트는 열 일곱 살 때에
롱아일랜드의 국민
학교 선생이
되었읍
니다.





게으름뱅이의 철학

윌트 휘트먼이 선생으로 취임한 국민 학교는 노오워치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곳은 윌트의 할아버지인 메르자 노인의 집에서 4 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국민 학교라고는 하나 교실은 한 개뿐이고, 큰 난로에 석탄을 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탄이 떨어지면 학생 중의 누군가가 근처의 인가에 가서 석탄을 꾸어 오곤 하였습니다.

휘트먼이 그 국민 학교 선생으로 취임한 것은 1836년 6 월이었는데, 그 때 그의 나이는 열 일곱 살이었습니다.



그 무렵, 국민 학교 선생들 중에는 휘트먼처럼 나이가 어린 선생도 드물지는 않았읍니다. 그러나, 휘트먼의 교육 방법은 다른 선생들의 교육 방법과는 전혀 달랐읍니다.

그 무렵의 학교 선생들은 누구든지 회초리를 들고 있다가, 선생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거나 학과를 외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에는 사정 없이 매질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휘트먼만은 학생들에게 단 한 번도 매질을 하는 일이 없었읍니다. 우선 그는 회초리 같은 것을 들



고 교실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의 국민 학교 학생들은 모두 23명이었는데, 나이는 다섯 살부터, 휘트먼과 비슷한 나이의 학생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각양 각색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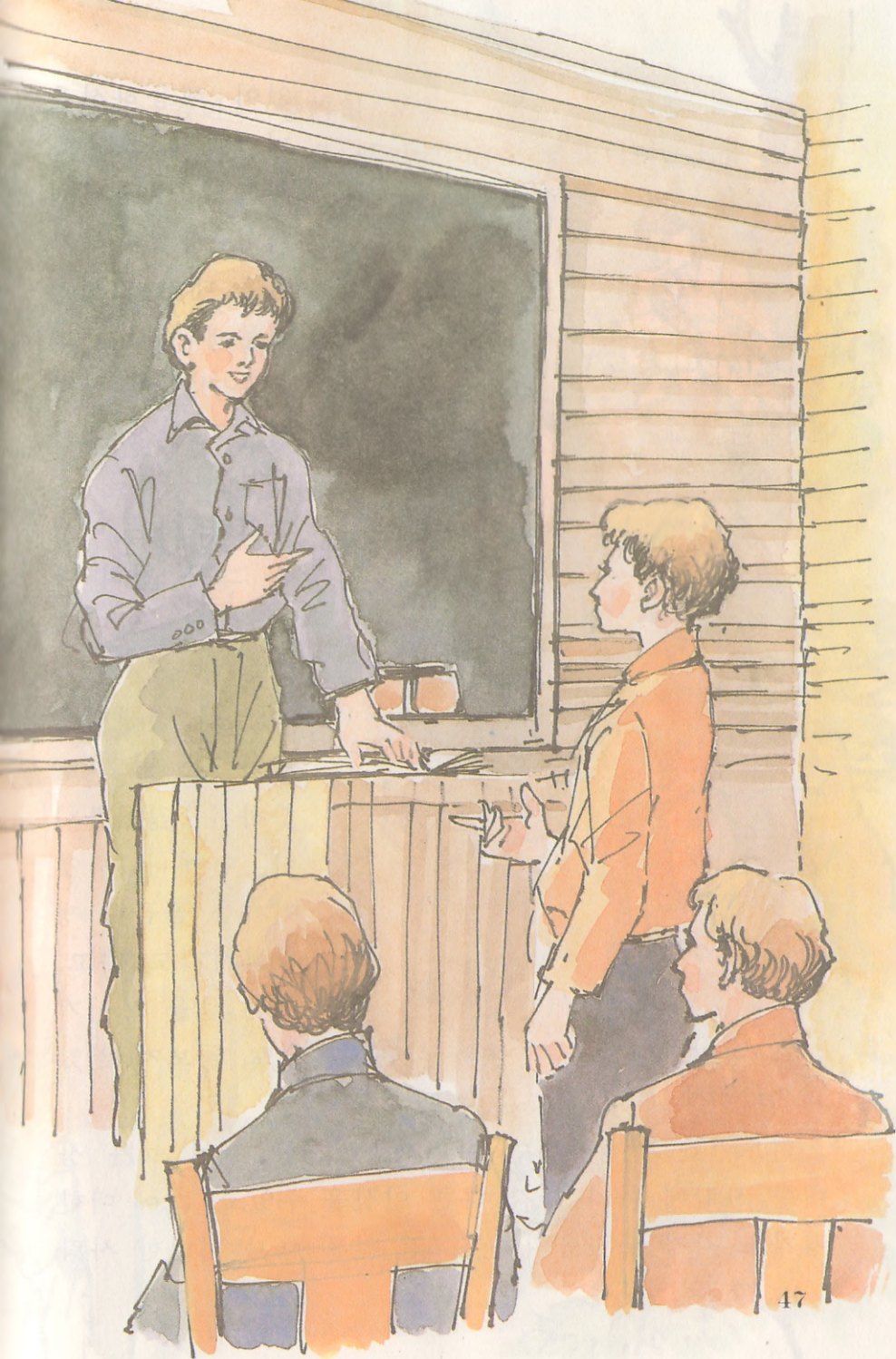
그러나, 그 학생들은 누구나 다 휘트먼이 이르는 말을 잘 들었고 태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휘트먼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휘트먼의 푸른 빛이 도는 회색 눈은 언제나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교육 방법도 이치에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휘트먼에게는 그를 가까이하고 싶은 데가 있는 한편, 아주 친근한 느낌을 주는 데가 있었으므로, 학생들을 언제나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교과서를 한옆에 제쳐놓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시(詩)를 읽어 주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생각이나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무렵, 휘트먼이 가르친 학생들 중의 한 사람은 훗날, 그 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휘트먼 선생님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이나 수업이 끝난 뒤의 휴식 시간에 우리는 선생님과 같이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런 때에 휘트먼 선생님은 정말 우리 학생들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휘트먼 선생님에게는 가까이하고 싶은 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비범한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은 그와 전혀 다른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휘트먼 선생님은 수업에는 별로 열중하지 않았읍니다. 언제나 무엇인가를 꼼꼼히 생각하시기도 하고, 무슨 글을 쓰시기

도 하며, 학생들의 공부 같은 건 별로 돌보지 않았읍니다.”

휘트먼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 그가 상대한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른 인상을 주었고, 그에 대한 평가도 각각 달랐읍니다. 그런 것은 그가 평범한 사람

이 아니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휘트먼 자신도 훗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대로입니다. 나는 모순투성이의 인간입니다.”

외딴 시골의 국민 학교 선생이라는 직업도 결코 손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급료는 적었으며, 사람들에게서도 별로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휘트먼은 하루의 수업이 끝나면, 맥이 탁 풀리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때, 휘트먼은 구릉 지대를 멀리 산책하기도 하고 술밭 속을 거닐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의 할아버지 베르자 노인한테 가서, 말을
 빌어 타기도 했습니다. 또, 농가에 사는 순박한 사람들과
 세상 돌아 가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울해진 기분을 전환
 시키기도 하였
 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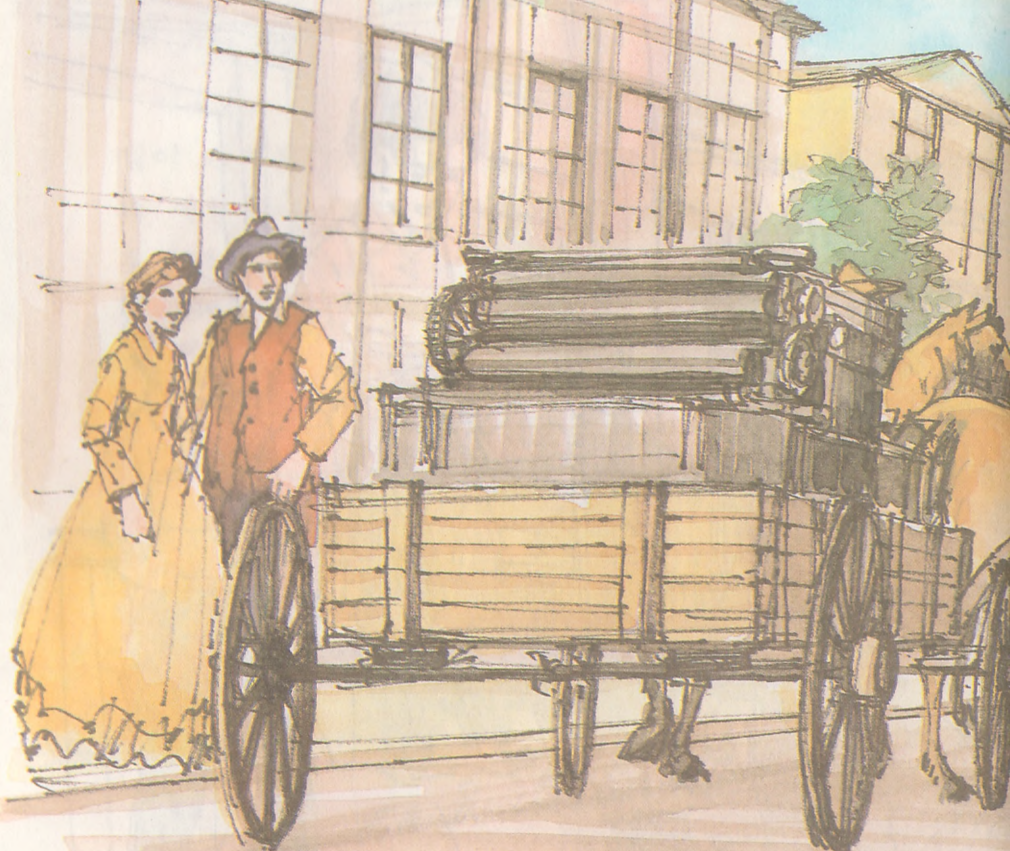
그 무렵의 국민 학교 선생들은 같은 학교에서 오래
 가르칠 수가 없고, 3 개월 동안의 학기가 끝나면, 또
 다른 학교로 옮겨 가서 가르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휘트먼은 롱아일랜드 섬의 여러 마을, 즉
 바비론프래싱, 자마이카 등지로 전근을 다녔습니다. 그
 동안에, 휘트먼은 여러 가정에서 잠깐씩 하숙을 했습니



다. 덕분에 그는 여러 사람과 교제할 수 있었고, 인간에 대해서도 여러 면으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농부나 어부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혼자 있을 때에는 롱아일랜드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사과 나무 밑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인간에 관한 것이나 우주에 관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나 교사 생활을 계속할 생각은 전혀 없다.”

휘트먼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저 뉴우요오크의 떠들썩한 분위기나 변화한 모습을 그리워하였습니다.

‘그 곳에 비하면 이 곳은 마치 천국 같다. 그러나 너무 쓸쓸하다.’

휘트먼은 인쇄 기계의 그 리드미컬한 소리가 매우 그리웠습니다. 그러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1838년, 그의 나이 열 아홉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휘트먼은 학교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 뉴우요크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허름한 인쇄 기계를 한 대 사서 마차에 싣고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인쇄 기계를 싣고 오는 휘트먼을 본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 마디씩 했습니다.

“정말 뜻밖이야. 인쇄 기계를 사 왔어. 이 섬에서

신문이라도 만들어 내려는가 보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대로, 휘트먼은 할아버지네 집 근처에 있는 집을 빌어서, 그 곳에 인쇄 기계를 들여놓고, 신문을 찍어 내기 시작했습니다.

《롱아일랜드》(롱아일랜드 섬 사람이라는 뜻)라고 하는 신문이 바로 그 때 휘트먼이 찍어 낸 신문인데, 원고 쓰는 일을 비롯하여 식자, 인쇄, 그리고 배달까지 모두 휘트먼 혼자서 다 했습니다. 그 신문은 1주일에 한 번씩 발행되는 주간 신문이었습니다.

휘트먼은 말을 타고 집집마다 배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신문사의 사장 겸 배달원이기도 한 휘트먼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을 타고 다니며 신문을 배달하면, 농부들은 입을 딱 벌리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런 광경은 롱아일랜드 섬에서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휘트먼은 신문 배달을 하고 다니면서도 자주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마을에서 무슨 집회가 열리게 되면 기꺼이 참석하였습니다.

그 무렵에 휘트먼의 친구였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휘트먼은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트럼프 놀이를 좋아했고, 또 야구 시합이 있을 때면 자기도 끼워달라고 해서 게임에 참가하였으나, 사냥만은 아무리 권하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휘트먼은 의견을 나누거나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이야기가 정치에 미치게 되거나, 그들의 조국인 미국의 장래에 미치게 되면 그는 갑자기 열을 올렸습니다. 그는 또 노예제도를 반대했습니다.

휘트먼이 발행하기 시작했던 주간 신문 《롱아



일랜더》는 발행한 해인 1838년 12월에 휴간되었습니다. 휘트먼 혼자 편집, 식자, 인쇄를 다 맡아 하고, 또 배달과 수금까지 다 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너무 힘에 겨워서 오래 계속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휘트먼은 신문사 문을 닫자 곧 뉴우요오크로 다시 왔습니다.

그러나, 뉴우요오크는 아직도 경제 사정이 좋지 못했으므로, 신문과 관계 있는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휘트먼은 롱아일랜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마이카 시내에서 간행되고 있는 《롱



아일랜드 데모크랫》(롱아일랜드의 민주주의자란 뜻)이란 신문사에 들어가서 일을 거들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 신문은 제임즈 브렌튼이라는 사람이 경영하고 있었는데, 휘트먼은 그 사람의 집에 하숙하게 되었습니다. 브렌튼은 휘트먼의 재능을 칭찬해 주었으나, 브렌튼의 부인은 휘트먼을 싫어했습니다.

“휘트먼 씨는 언제나 멍청하고, 무슨 일을 하건 조금도 열성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방해만 돼요.”라고 브렌튼 부인은 자주 남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휘트먼은 식당에 나갈 때에도 셔어츠 바람이었으며, 좀처럼 시간도 지킬 줄 몰랐습니다.



“저 사람은 게으름장이어요.”

브렌튼의 부인은 늘 남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휘트먼은 이 신문사에도 오래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문사를 그만둘 무렵에 다음과 같은 글을 그 신문에 실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게으름장이의 변명》이었습니다.

「나는 게으름장이를 한없이 사랑한다. 모든 인간 가운데서 그 순수하고 태어날 때 그대로인,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는 게으름장이보다 나은 것은 어디에도 없다.

내가 여기서 게으름장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12시간이나 14시간쯤 일하고 나서 내일은 아예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변덕스런 게으름장이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어중간한 인간은 질색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침착하고 철학자 같은 게으름장이이다. 이런 사람들을 나는 각듯이 존경한다. 거리의 게으름장이나 부두에 있는 게으름장이나 마찬가지이다.

그가 쓰고 있는 모자의 테가 떨어졌건, 구두의 뒤축이 다 닳았건, 또 저고리의 팔꿈치가 다 뚫어졌건, 그러한 것은 상관이 없다.

옛날의 철학자들은 모두 게으름장이였다. 예를 들

어 디오게네스를 보라. 이 그리이스의 철학자는 큰 통 속에서 살며, 이루 말할 수 없이 게으름을 피웠다.

더 원한다면 창세기의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좋다. 저 아담이야말로 게으름장이가 아니었던가.

그는 빈둥거리기만 하였을 뿐이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그 아담이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은 하지 못한다. 또, 아담이 증권 거래를 했든지 설탕 장사를 한, 바쁜 사람이었다고 잘라 말할 사람도 없다.

여러분은 나를 보고 웃으려면 웃어도 좋다. 그러나, 자연의 순수한 발산(發散)에 수동적으로 내 몸을 모두 바치는, 이런 <게으름장이의 철학>에는, 가장 가슴 뛰게 하는 쾌락보다도 더 황홀하게 하는 만족이 있는 것이다.」

휘트먼이 이 글을 발표했을 때, 그의 나이 스물 한 살이었습니다. 스물 한 살이라고 하면, 꿈과 현실이 엇갈리는 가운데 힘찬 청춘이 지나가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휘트먼의 이 <게으름장이의 철학>은 단순하게 생각나는 대로 써 갈진 글이 아닙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일정한 직장을 스스로 가지려 하지 않고,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대도(大道)를 확보한 것은 바로 그 <게으름장이의 철학>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철학은 휘트먼이 평생에 걸쳐 간직했던 주된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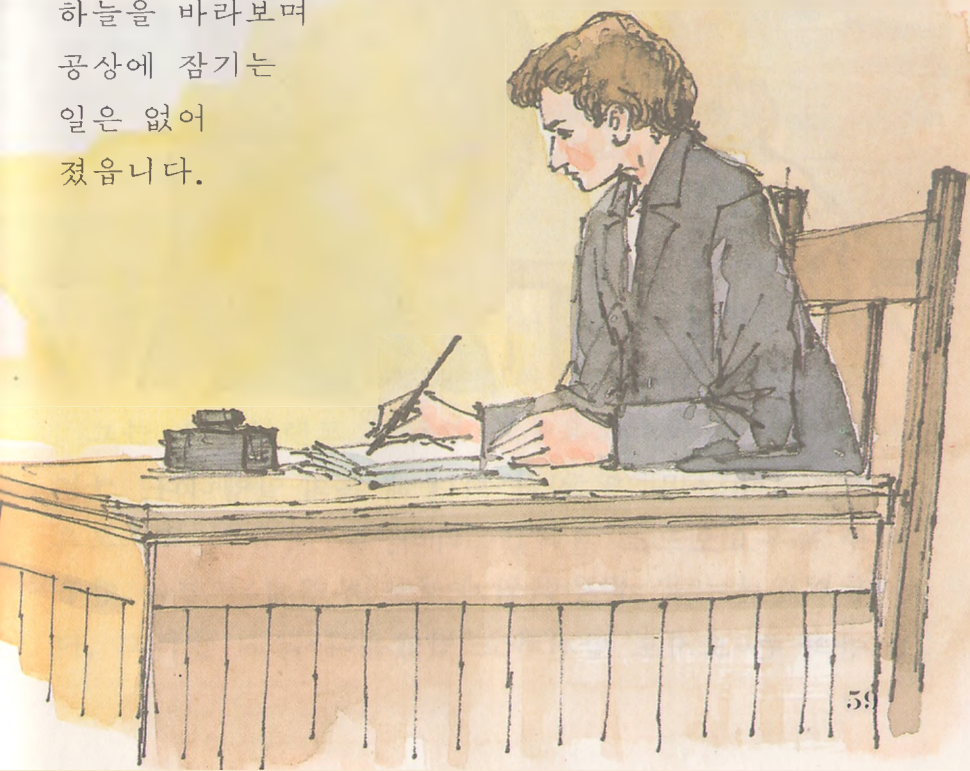


신문사에서 신문사로

휘트먼은 《롱아일랜드 데모크랫》신문사를 그만두자,
다시 국민 학교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신문에 글을 쓰기도
하고, 정치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을 위해 선
거 운동을 하며, 그 스스로 대중 앞에 나서서 연설을
한 일도 두세 번쯤 있었습니다.

휘트먼은 전처럼 사과나무
밑에서 한가롭게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공상에 잠기는
일은 없어
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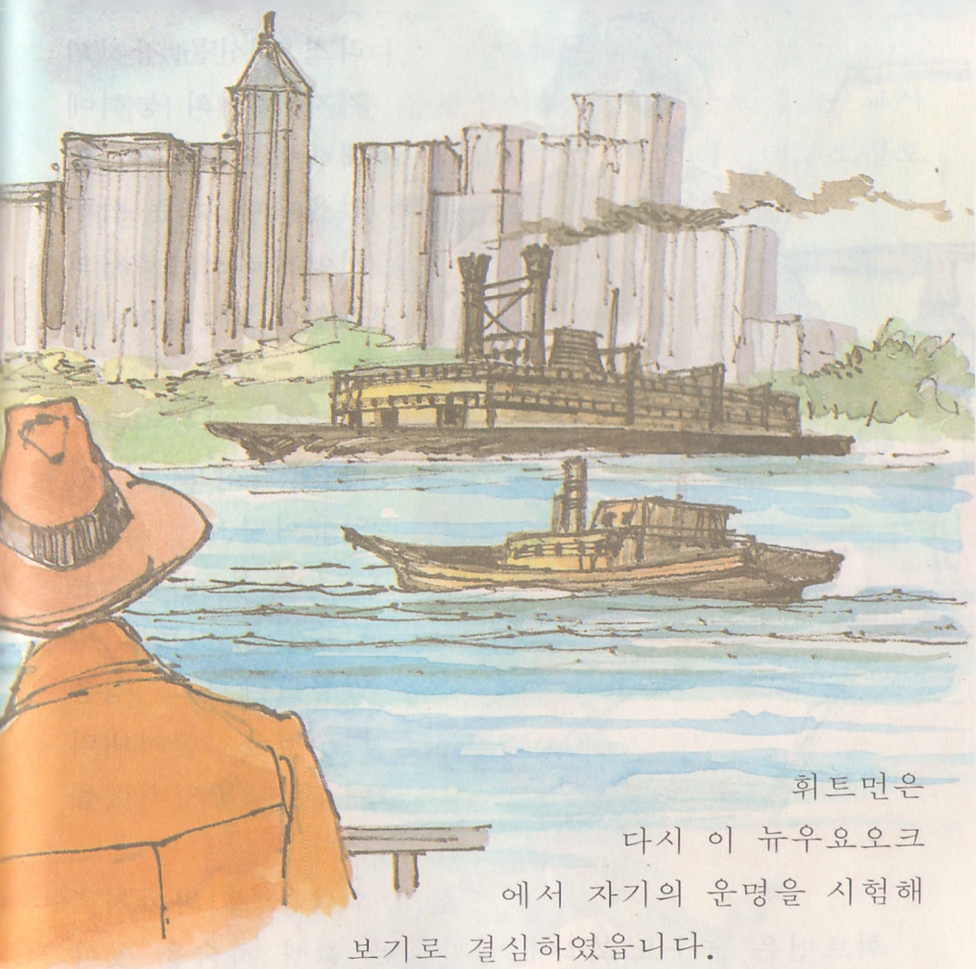
하지만, 그는 정치에 그 이상 열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가보다는 신문 기자나 소설가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그의 머리 속에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느끼고 있는 것, 즉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 전부를 그대로 글로써 표현해 보고 싶은 욕망과, 훌륭한 책을 써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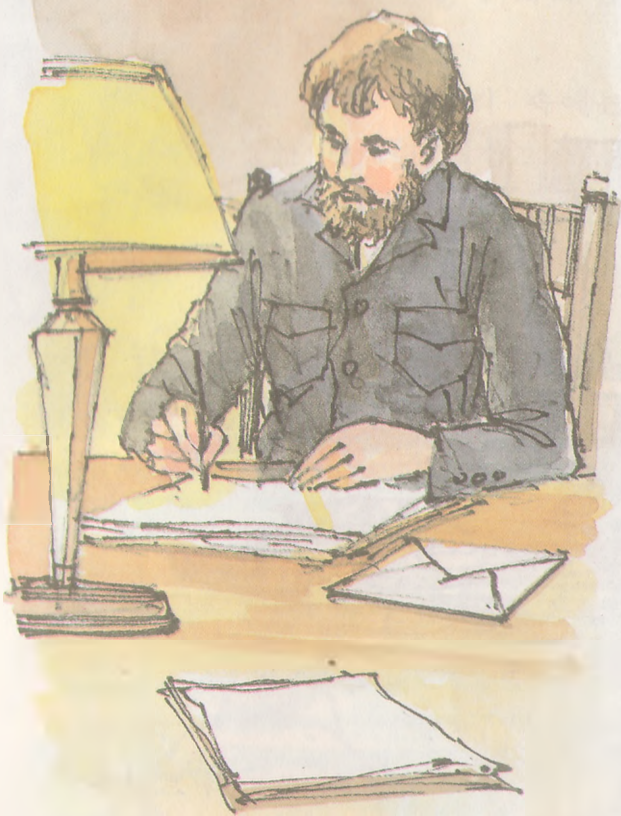
휘트먼이 스물 두 살이 되던 해 봄의 일입니다. 그는 자주 뉴우요오크로 건너갔습니다.

뉴우요오크는 자꾸 커져서, 그 무렵에는 벌써 인구 50만의 큰 도시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휘트먼은
다시 이 뉴우요오크
에서 자기의 운명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롱아일랜드 섬에서 뉴우요오크로 바다를 건너
가는 나룻배의 갑판 위에 서서, 눈앞에 다가오는 뉴우
요오크의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8층 이상의 높은 빌딩들이 우뚝우뚝 세워져 있었습니
다. 그러한 대도시의 모습은 매우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휘트먼도 이제 자기의 저어널리스트(신문, 잡지의 기자)로서의 능력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저어널리스트로서의 경험이 꽤 많이 있었고, 보통 풋내기 젊은이들과는 다르다는 자신도 서 있었습니다.

스물 두 살에 그는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 검은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번 소설을 써 봐야지.”

휘트먼은 뉴우요오크에 닿자, 곧 값싼 하숙을 찾아 들어가서 소설을 부지런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 그가 쓴 소설의 하나가 당시 문예 잡지로서 유명했던 《민주 평론》이라는 잡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스물 두 살이던 8월, 즉 1841년 8월의 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월트 휘트먼이라는 이름이 처

음으로 유명한 잡지에 실렸던 것입니다.

그 때 발표된 글은 단편 소설인데, 《교실의 죽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몸이 약한 학생을 동정심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교사가 매질을 해서 죽이고 말았다는 줄거리인데, 소설로서는 내용이 보잘것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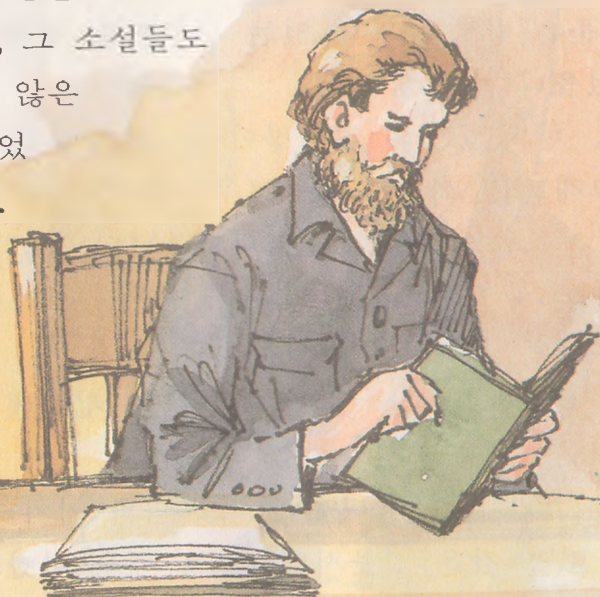
휘트먼이 국민 학교 선생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 중에서 힌트를 얻어 쓰게 된 소설이었습니다.

‘드디어 내 소설이 일류 잡지에 실렸구나.’

휘트먼은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잡지에 단편 소설 2편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설들도
신통치 않은
작품이었
습니다.



그러나 그 때부터, 휘트먼은 지팡이를 짚고, 저고리 깃에 꽃을 꽂고는, 뉴우요오크에서도 가장 변화가인 브로오드웨이를 활기 있게 걸어다녔습니다. 어지간히 의기 양양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변함 없이 하층 계급의 사람들과 잘 어울렸으며, 그들과 여전히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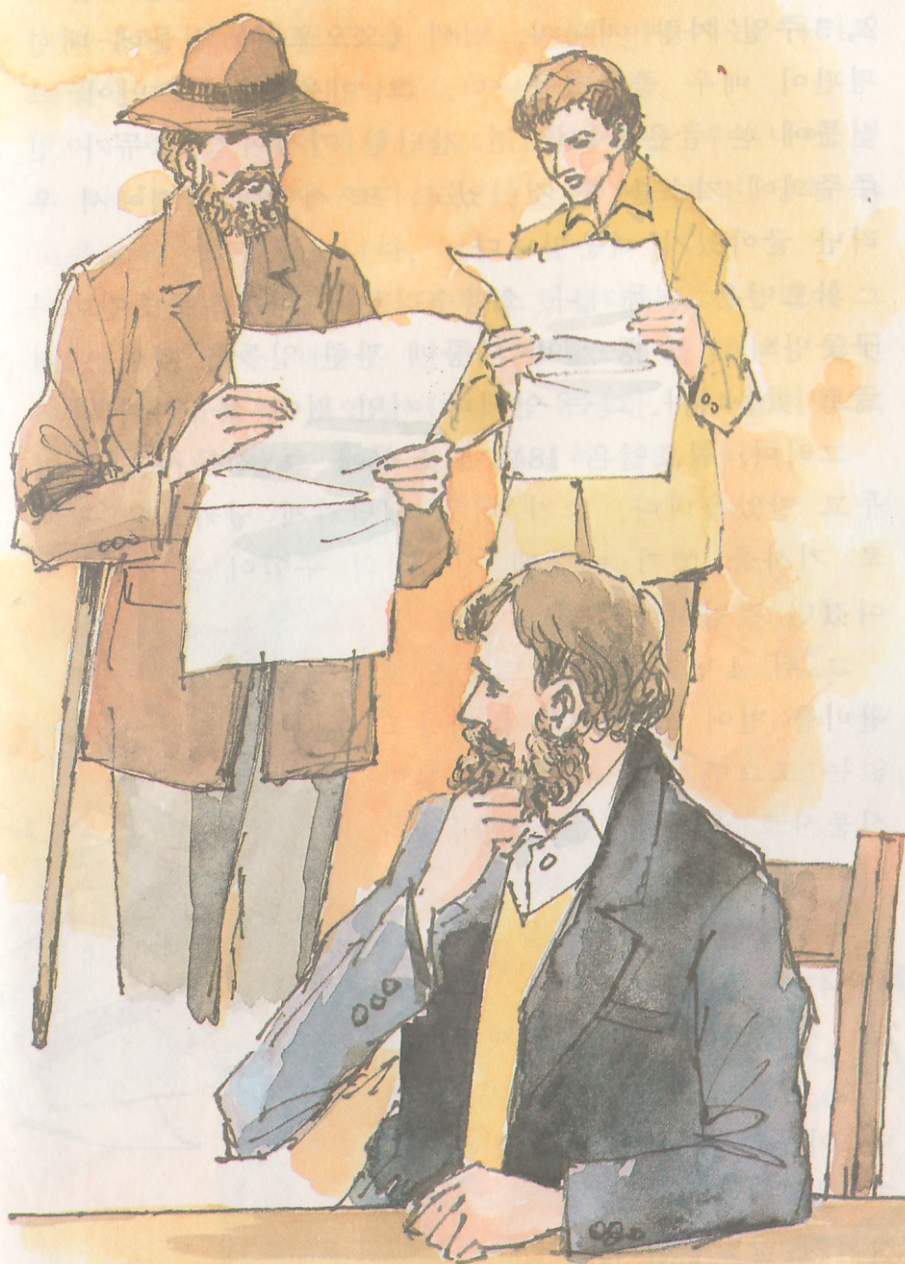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신문에 실을 글을 부지런히 썼습니다. 무엇보다도 하숙비와 잡비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1842년 스물 세 살 되던 때, 휘트먼은 《오오로라》라는 일간 신문의 편집장으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오오로라》란 신문은 별로 이름이 없는 신문으로, 발행 부수도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도, 한 신문사의 편집장이 된 휘트먼은 운두가 높은 실크해트를 쓰고 프록 코우트를 입고, 지팡이를 휘저으며 브로오드웨이를 걸어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림새로 뉴우요오크의 거리를 걸어다니는 자기를 마음 속으로는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실속 없이 너무 걸치레만 번드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닌 신문사는 그 외의 기자라곤 한 사람밖에 없는 작은 신문사였으므로 매우 바빴습니다. 휘트먼 혼자서 기사를 모두 다 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휘트먼이 그 신문사의 편집장으로 들어간 지 2, 3주일 가량 지나자, 벌써 《오오로라》 신문에 대한 평판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휘트먼이 그 신문에 쓴 글은 사실이건 간단한 기사이건 모두가 민주주의에 기초를 둔 것이었고, 또 서민의 감정에서 우려난 글이었기 때문입니다.

휘트먼은 노동자나 소방수라든가 마부, 푸줏간이나 구둣방의 점원 등 일반 대중에 관한 일들을 찾아 내어 글로 썼습니다. 그는 언제나 서민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휘트먼은 1842년 5월에 그 신문사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가 너무 대담하게 날카로운 필치로 기사를 썼기 때문에 신문사의 주인이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뒤 4년 동안, 휘트먼은 생활비를 벌어 쓰기 위하여, 이름도 없는 조그만 신문사에서 조그만 신문사로 옮겨다니는 생활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는 4년 동안, 휘트먼은 소설가로 성공하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수십 편의 소설을 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 보아도 자신이 쓰고 싶어했던 소설을 썼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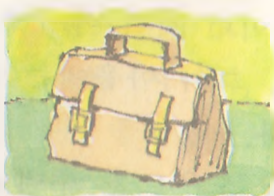
‘내가 정말 쓰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아닌데…….’

아무리 소설다운 것을 써도, 그의 마음에는 자기의 작품에 대한 불만이 남았습니다.

이 무렵, 그는 언제나 조그만 노트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언제 어디서든 생각이 떠오르면 당장 그 노트에 쓰곤 했습니다.

그는 또, 틈 나는 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무렵에 그가 열심히 읽은 책들은 단테, 셰익스피어, 호머, 밀턴 등의 이름 높은 시인들이 남긴 유명한 명작들이었고, 또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것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뉴우오올리안즈

시로 떠나다

1845년 8월, 휘트먼은 뉴우요오크를 떠나 브루클린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 무렵, 그의 부모님이 다시 브루클린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듬해인 1846년 2월에 휘트먼은 브루클린의 《이이글》(독수리란 뜻) 신문의 편집인이 되었습니다. 휘트먼은 이 신문사에 1847년 말까지 근무했습니다. 그가 한 신문사에 거의 2년 동안이나 근무한 것은 이 《이이글》 신문사뿐입니다. 말하자면, 이 《이이글》 신문사는 휘트먼이 일했던 신문사 중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신문사였습니다.



이 무렵에 휘트먼은 신문 편집에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했습니다.

당시 휘트먼은 그 신문사의 식자 견습공인 헨리 새튼이란 소년을 매우 귀여워했습니다. 그 헨리는 훗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휘트먼 씨는 매우 친절하고 좋은 분이었습니다. 짧은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복장이 단정했습니다. 휘트먼 씨와 저는 일을 끝낸 뒤에는 함께 자주 수영하러 가곤 했습니다. 그런 뒤, 우리는 나룻배를 타고 뉴우요오크로 갔습니다. 그리고, 함승 마차를 타고

브로드웨이를 오락가락하였습니다. 휘트먼 씨는 언제나 마부 옆에 앉아서, 손님들한테 요금을 받는 일을 거들어 주곤 했습니다. 휘트먼 씨는 마부들을 몹시 좋아했고, 그들이 여러 마리의 말을 잘 부리는 솜씨를 보고 늘 감탄을 했습니다. 마부들도 휘트먼 씨를 잘 알고 있어서, 그의 얼굴을 보기만 하면 ‘안녕하십니까?’라고 먼저 인사를 하였습니다. 휘트먼 씨는 또 마부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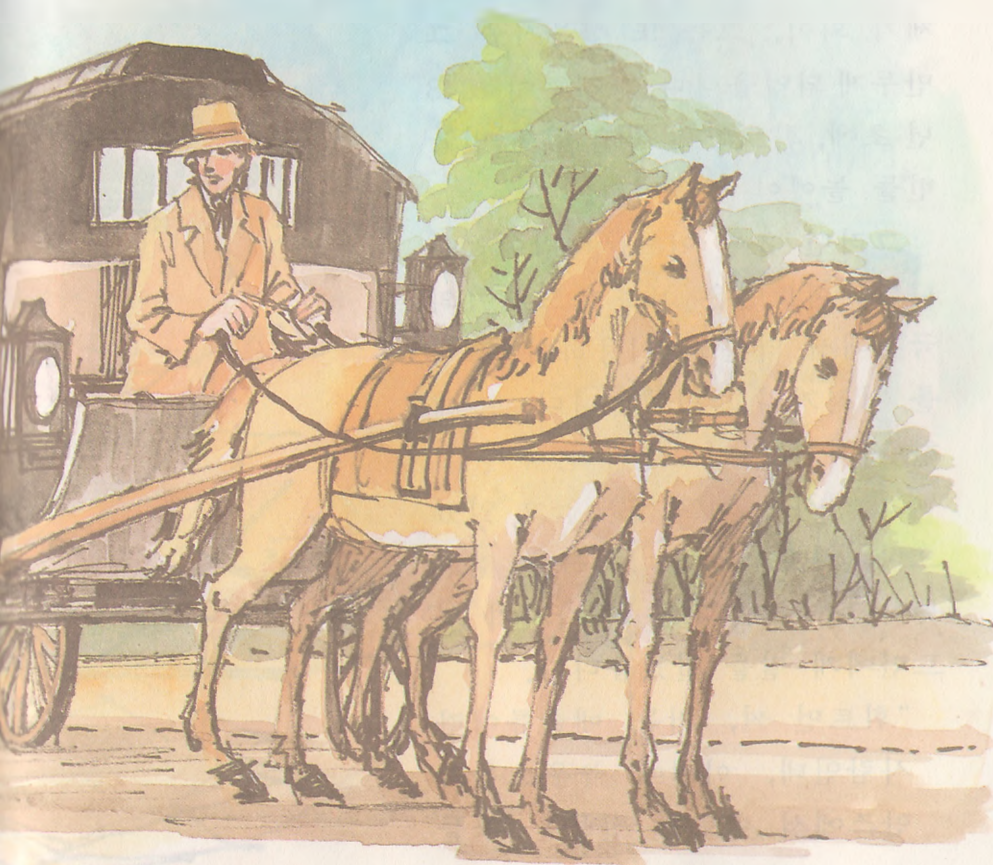
휘트먼이 《이이글》신문 편집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에도 세상은 시시 각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북부와 남부 사이에서는
노예 제도에 대한
논쟁이 격렬해
지고 있었
습니다.



또, 미국과 그 남쪽의 멕시코 사이의 국경 문제가 악화되어, 미국의 제11대 대통령 포오크는 멕시코에 대해서 선전 포고를 했습니다. 이 때의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있었던 싸움을 <미국·멕시코 전쟁>이라 부릅니다.

그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났지만, 새로 편입된 미국의 영토에 노예 제도를 허용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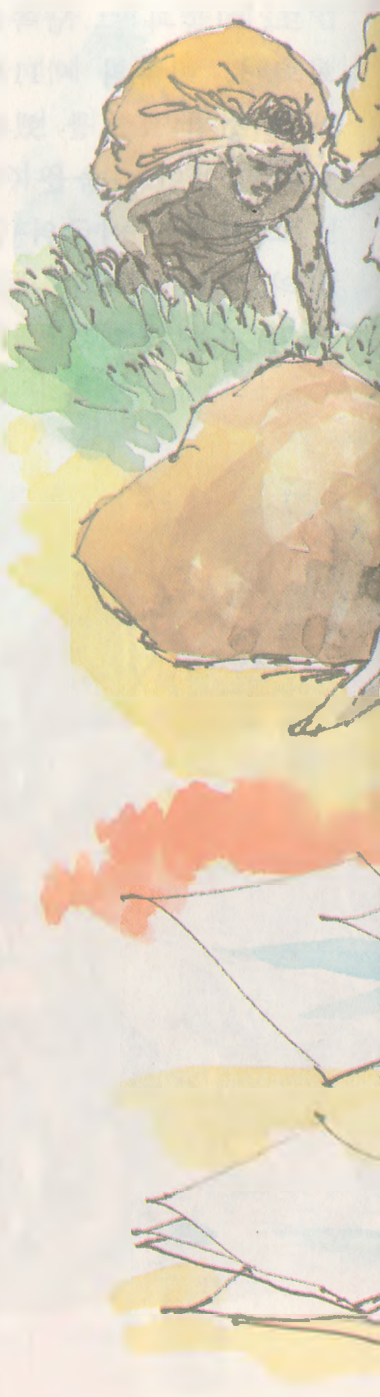
휘트먼은 단호히 그 곳을 노예가 없는 자유로운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런 의견을 신문에 글로 써서 발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예 제도는 미국 전역에서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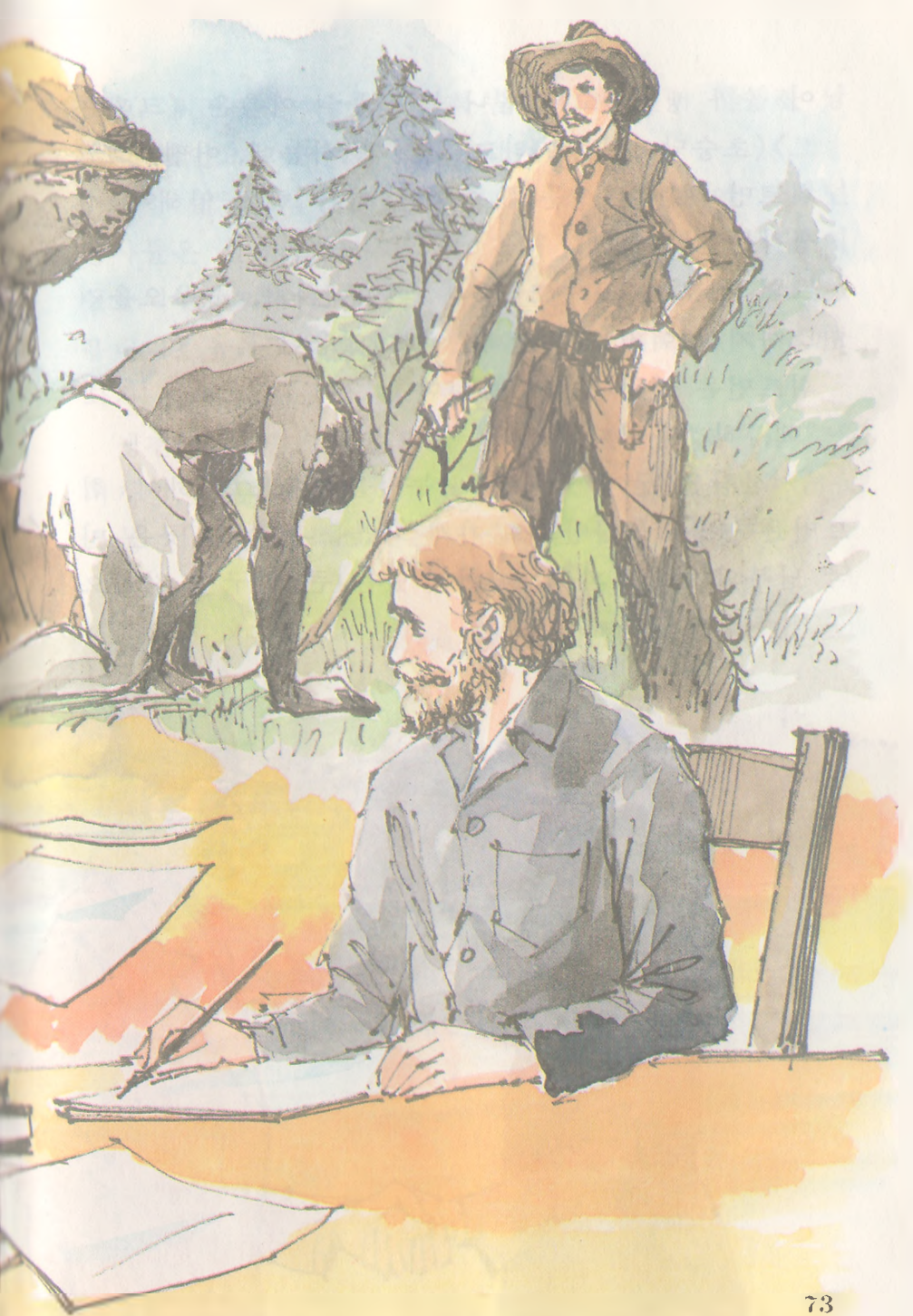
휘트먼의 이러한 주장이 보수적인 민주당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어, 그는 또 신문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848년 초에, 휘트먼은 직업 없이 빈들 빈들 놀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2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휘트먼은 브로드웨이의 극장에서 막간을 이용하여 로비를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신사가 다가왔습니다.

그 신사는 휘트먼을 알고 있었으나, 휘트먼은 그 신사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신사는 갑자기 휘트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휘트먼 씨, 저는 매클류어란 사람인데, 이번에 뉴우오올리안즈에서 새로운 신문을 만들





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의 이름은 《크레스트》(초승달이란 뜻)라고 붙일까 하는데, 어떨까요? 휘트먼 씨, 이 신문의 주필이 되어 함께 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의 말로는 보수도 좋은 편인데다가, 뉴우오올리안즈까지의 여비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휘트먼은 선뜻 승낙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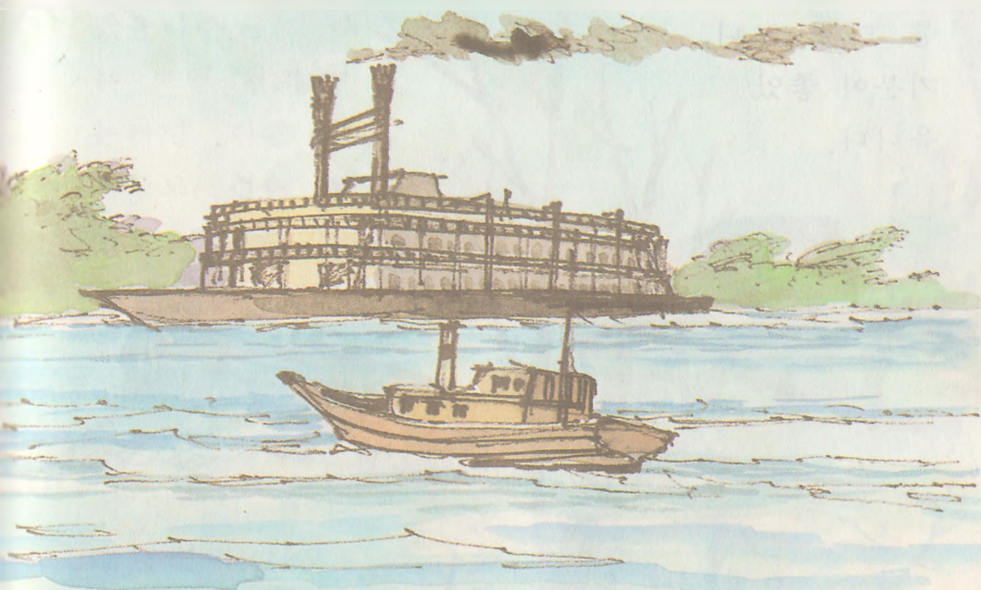
두 사람은 굳게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휘트먼은 뉴우오올리안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곳은 미국 남부의 미시시피 강 어귀에 있는 큰 항구 도시였으



므로, 휘트먼은 미국의 동북부에서 꽤 멀리 떨어진 남부의 해안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마침 미국·멕시코 전쟁이 끝나서, 전쟁터에 나갔던 병사들은 뉴우오올리안즈를 거쳐 귀국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우오올리안즈 항구는 몹시 소란했습니다. 뉴우오올리안즈 항구는 본래 배로 실어 낼 목화가 많이 모여들어 번창한 항구였습니다.

생전 처음 미시시피 강과 같이 큰 강을 배를 타고 내려가서, 그 번화한 항구 도시에 가게 된다고 생각하니, 스물 아홉 살의 휘트먼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휘트먼과 그의 아
우 제프를 태운 기
차는 그 날 저녁에
컴벌랜드에 도착했
습니다. 거기에서부
터는 기차가 없었으
므로, 합승 마차로
갈아 타게 되었습
니다.

합승 마차는 엘리
저니 산맥을 넘어
갔습니다. 그 때에
는 조명 전기 기구
는커녕 다른 조명
기구도 전혀 없는
때였으므로, 마차는
오직 별빛에만 의지
하고 험한 산길을
밤새 달렸습니다. 그
래서, 그 날 밤은 마
차 안에서 거의 새
우다시피 하고, 그
이튿날도 종일 마차
로 달렸습니다. 그
동안에 그들은 겨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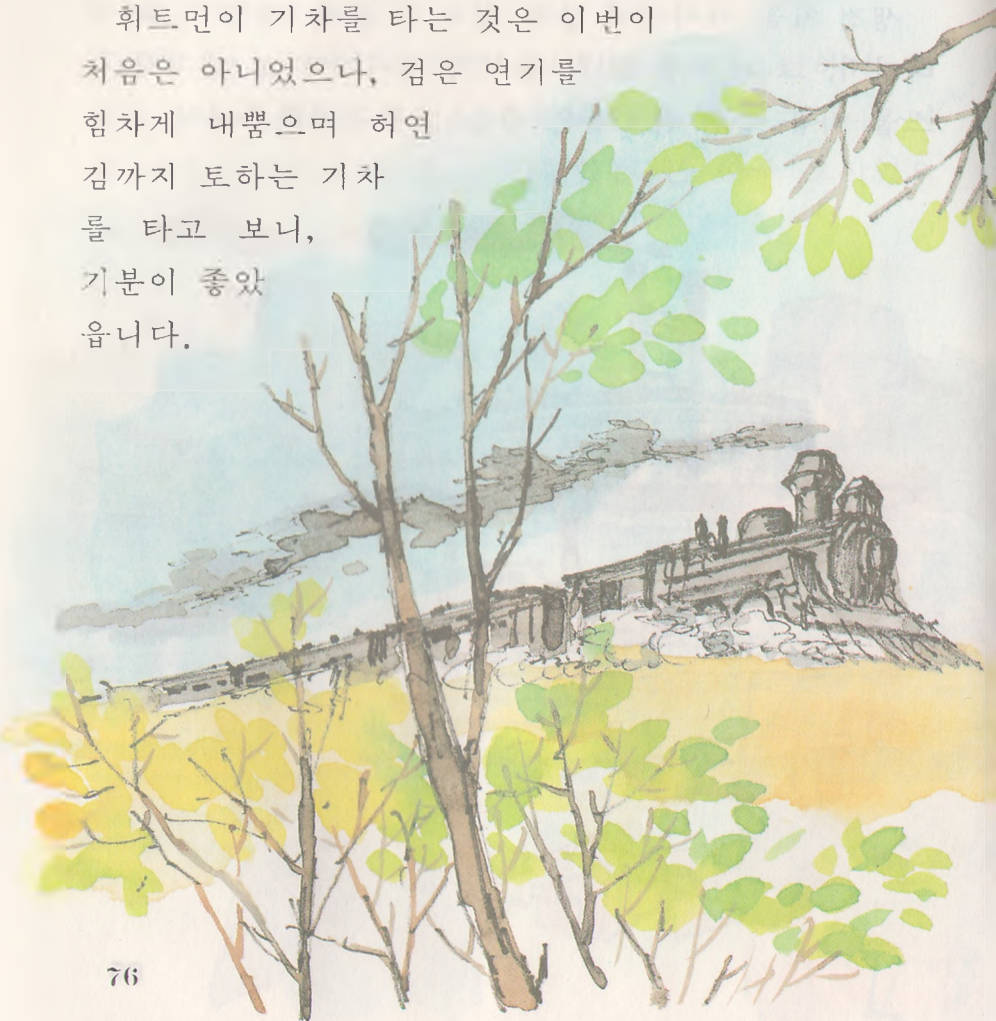




첫번째 시집을 내기까지

2월 11일, 휘트먼은 열 네 살 된 아우 제프를 데리고,
뉴우요르크에서 우선 기차로 떠났습니다. 제프도 새로
운 신문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휘트먼이 기차를 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으나, 검은 연기를
힘차게 내뿜으며 허연
김까지 토하는 기차
를 타고 보니,
기분이 좋았
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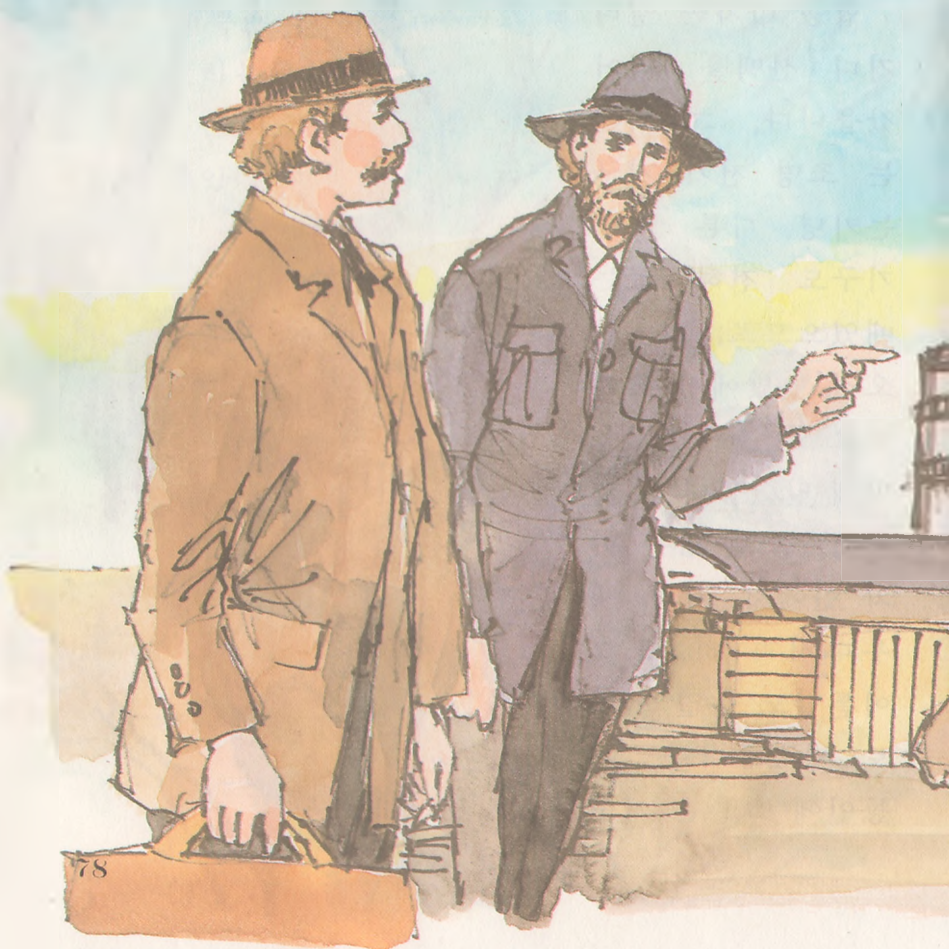


식사 때에만 잠깐 음식점에 머물러 쉬며, 말을 바꾸어 대곤 했습니다.

일요일 밤에 휘트먼과 그의 아우 제프는 웨스트버어지니아의 호일링이라는 곳에 이르러 비틀거리며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아, 피곤하다. 머리가 핑핑 도는구나, 제프.”

“정말 피곤해요, 형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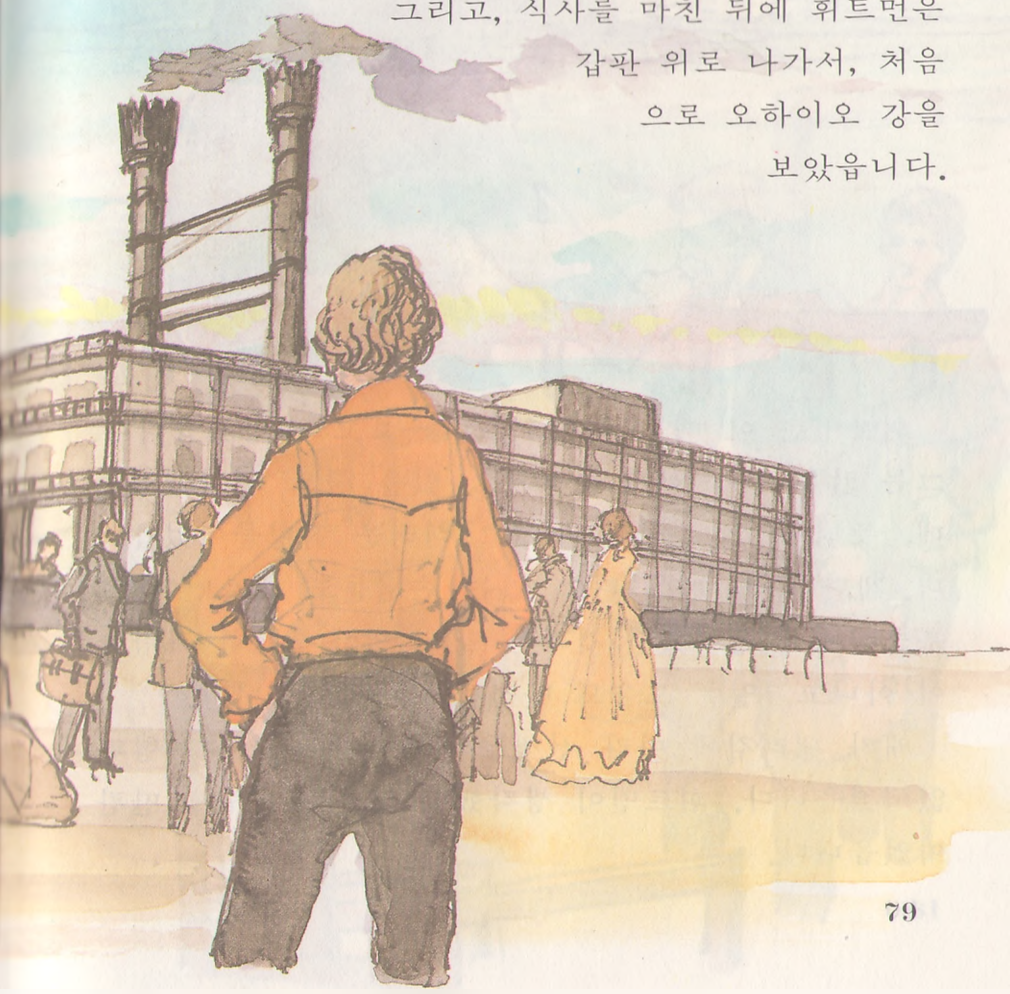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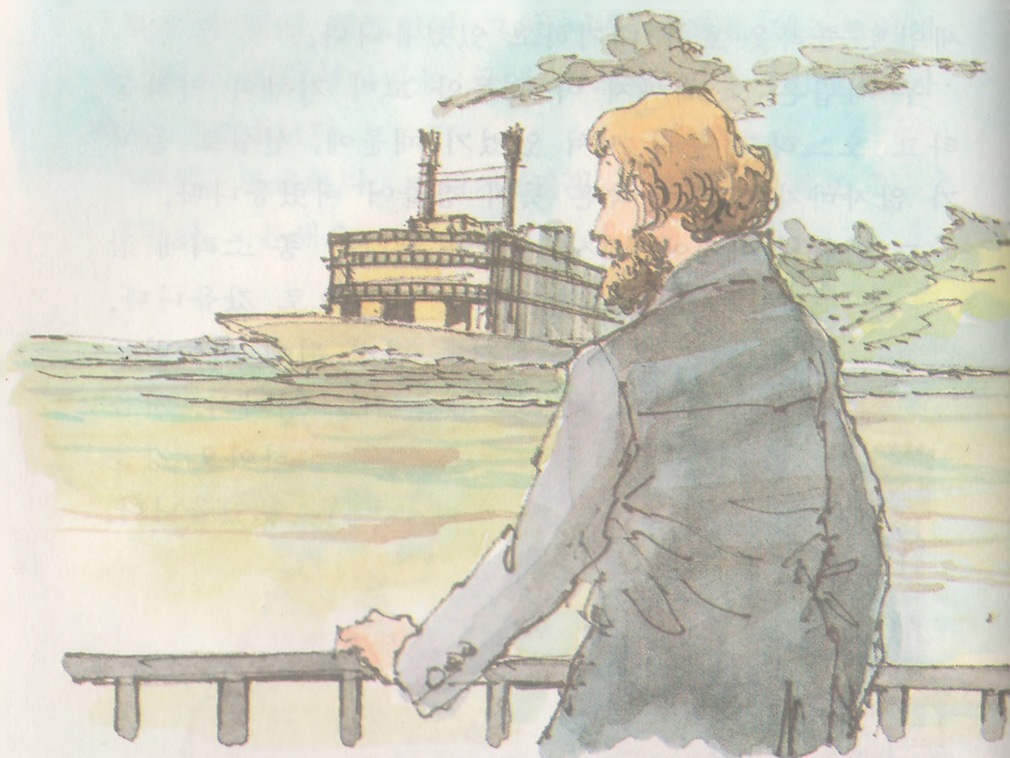
두 사람은 짐을 들고 나루터로 갔습니다. 그 곳은 오하이오 강 나루터였는데, 뉴우오올리안즈로 가는 기선 세인트 클라우트 호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때까지 이틀 동안 꼬박 기차와 마차를 타고 오느라고 몹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선실로 들어가 앉자마자 그대로 죽은 듯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 소리에 잠이 깬 휘트먼과 제프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에 휘트먼은 갑판 위로 나가서, 처음으로 오하이오 강을 보았습니다.





휘트먼은 이 때 오하이오 강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는 맑은 물이 희게 물결치고 있을 줄로 생각했었는데, 뜻밖에 그 강물은 누렇게 더러운 흙탕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배에 타고 있는 손님들도 휘트먼이 브루클린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별로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고, 얼굴 모습도 단정하지가 않았습니다.

배가 내려감에 따라 선객들의 복장은 점점 더 형편 없어졌습니다. 휘트먼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단편이었습니다.

“확실히 상업은 번창하고 있군.”

휘트먼은 배가 중간 나루터에 닿을 때마다 사람들이
짐을 싣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오하이오 강과 미시시피 강을 거쳐서, 12일 동
안의 긴 여행 끝에 휘트먼과 그의 아우 제프는 그들의
목적지인 뉴우올리안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누추한 하숙에 들게 되어, 또 한
번 실망을 했습니다. 게다가, 제프는 벌써
고향을 그리워하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3일 뒤에 두 사람은 조금
나은 하숙으로 옮겼
으나, 그 집은
몹시 시끄러
웠습니다.



휘트먼은 곧 뉴우오올리안즈 시내를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이 곳의 물가는 놀랄 만큼 비싼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리는 활기가 있고, 화초 시장에서는 아름다운 꽃들이 거래되고 있어서, 휘트먼의 마음은 다소 위로가 되었습니다.

곧, 휘트먼은 《크레슨트》신문사에 다녔습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밤에는 11시경까지 늦도록 근무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 제프는 잡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질을 알아 두 눈이 쾅해졌습니다. 이래저래, 휘트먼은 언제나 동생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줄곧 제프는 고향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한편, 신문사에서는 일을 시작한 휘트먼에 대해서 그의 아래 직원들이 처음에는 말을 잘 들었으나, 얼마 안 가서 그들은 휘트먼을 차갑게 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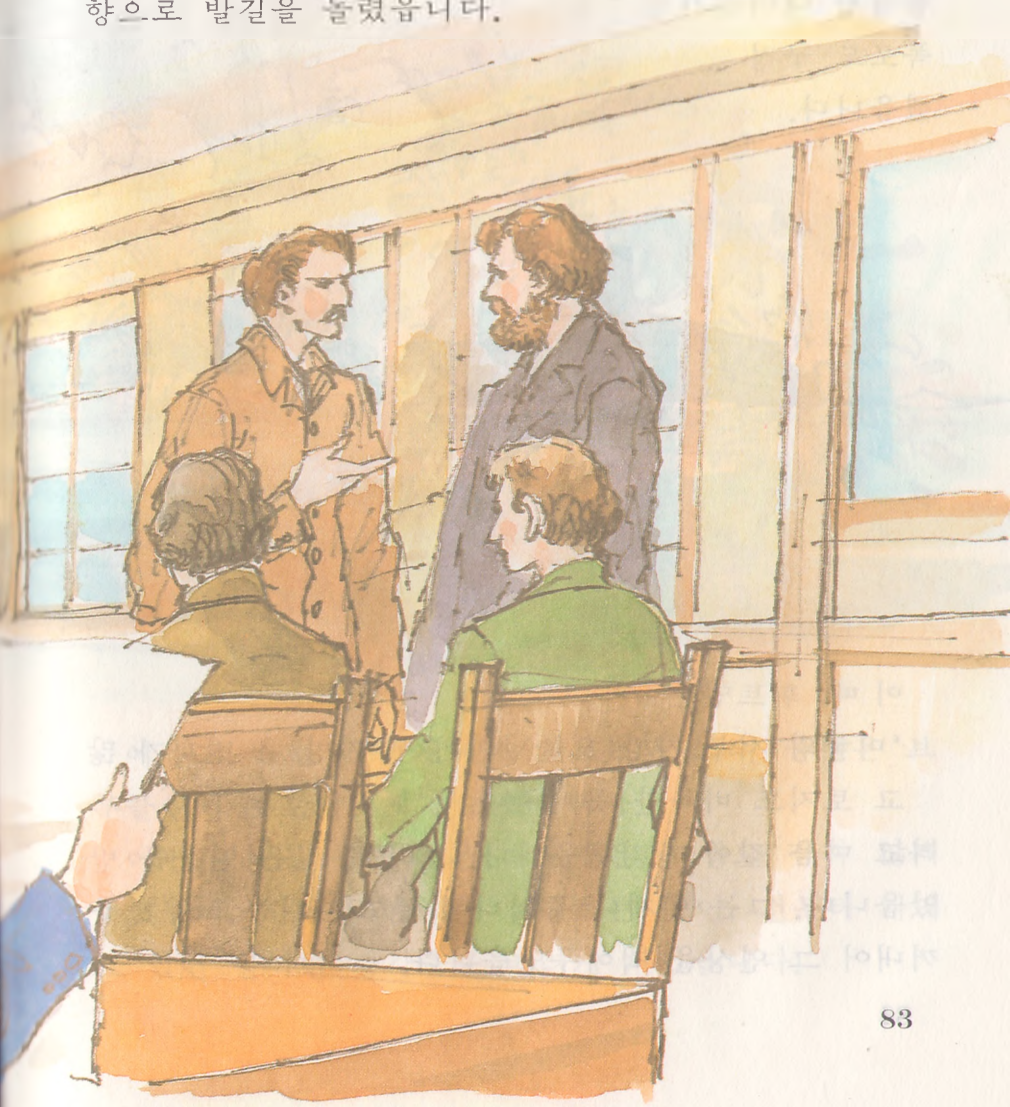
‘왜 그럴까?’

휘트먼은 좀처럼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원인을 분명하게 휘트먼에게 알리지 못하였던 듯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휘트먼



의 강한 개성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신문사의 주인 매클류어도 휘트먼에 대해서 쌀쌀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뉴우오올리안즈에 간 지 녀 달째인 5월 말에 이르러서 휘트먼은 그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어, 신문사를 그만두고, 아우 제프와 함께 그 곳을 떠나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에는 미시시피 강을 거슬러 올라가 당시의 미국의 서부 지방(지금의 중부 지방)이던 미주리 주의 세인트루이스, 일리노이 주의 시카고, 미시간 주의 디트로이트 등 큰 도시를 거쳐 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과의 국경에 있는 세계 최대의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도 구경했습니다.



이 때, 휘트먼은

‘미국의 서부 지방(오늘날의 중부 지방)은 변화가 많고 토지도 비옥한 곳이구나.’

라고 마음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노트를 꺼내어 그 인상을 적어두었습니다.



이윽고, 6월 15일 저녁에 휘트먼과 그의 동생은 브루클린의 부모님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젊은 휘트먼은 고생도 적지 않게 하였으며, 삭막한 현실을 경험하는 동안,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안이한 생각들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휘트먼은 그 해 여름은
 줄곧 브루클린의 부모님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러
 다가 그 해 가을에, 그는
 노예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
 는 단체의 기관지인 《브루
 클린 프리이먼》(브루클린
 의 자유인이라는 뜻)이라
 는 신문의 편집을 맡게 되
 었습니다. 그러나, 휘트먼
 이 사무실에 나가기로 결
 정한 이튿날 그 근처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그 신문
 사도 불타 버렸기 때문에
 쉬게 되었습니다.



휘트먼은 그 뒤 2개월 동안 부지런히 인쇄기 등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노예 제도를 그대로 보존시키고 싶
 어하는 정치가들의 방해로 받게 되어 적지 않은 괴로
 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 몹시 뚱뚱했던 아버님의 건강이 나빠
 졌습니다. 그래서, 휘트먼은 얼마 전에 사 놓았던 브루
 클린의 마아트르 거리에 있는 땅에 집을 짓기로 했습
 니다.

그의 동생들 중에 앤드류와 조오지가 목수였기 때문
 에, 휘트먼은 이 동생들의 도움을 받아 3층집을 세웠



읍니다. 그리고, 그 새 집의 1층을 인쇄소와 서점으로 꾸몄읍니다.

그 동안 《브루클린 프리이먼》 신문은 차차 발전하고 있었으나, 휘트먼은 그 신문사의 경영자와 의견이 맞지 않는 데다가 불쾌한 사건들이 겹쳐서 9월에는 이 신문사도 그만두었읍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인 1850년부터 4년간은 휘트먼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읍니다. 그의 나이 서른한 살에서 서른네 살까지에 이르는 4년 동안입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보아도, 이 기간은 뉴우요오크와 브루클린의 상업 무역이 자못 활발해진 시기입니다. 그리고, 브루클린 시가는 어디나 변화해지고, 인구는 10만 명이나 되어, 미국에서 일곱 번째로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휘트먼은 마아트르 거리에 지은 집을 팔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고, 또 그 집을 팔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는 등 이사를 몇 번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휘트먼은 예술가들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뉴우요오크 시에 미국의 첫번째 대

통령인 조오지 워싱턴을 조각하여 세운 유명한 헨리 브라운을 비롯하여 여러 훌륭한 예술가들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휘트먼은 바로 이 무렵에야 자기가 시인이 되는 게 가장 좋다는 결심을 굳힌 듯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시인 이상 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즉, 예언자가 되고 싶다.’

라고 혼자 다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그의 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는 시인이 되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우선 시를 써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휘트먼은 어느 날, 포어 한 가지를 널빤지에 새겨 자기의 책상 위에 놓아 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나 그 포어의 말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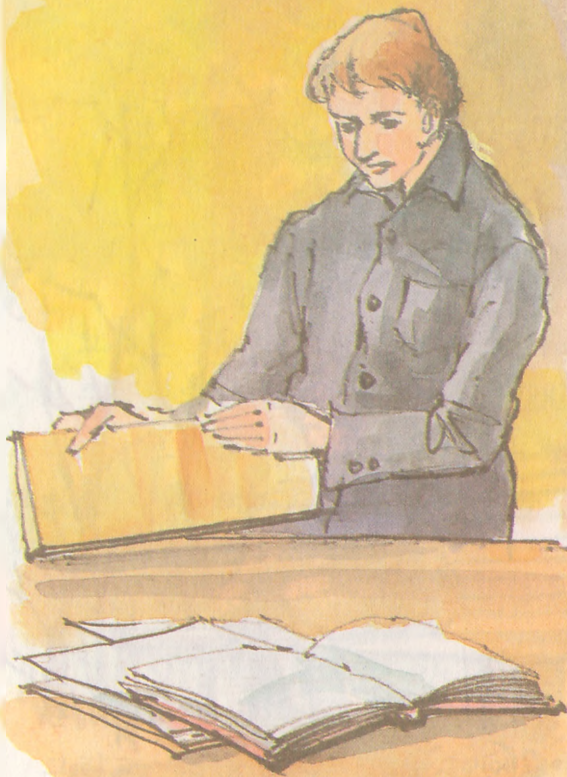


그 포어는 <작품을 써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휘트먼은 전과는 달리 이젠 프록 코우트도 입지 않았고, 실크해트도 쓰지 않았으며, 지팡이를 들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는 바지에 장화를 신고, 와이셔츠 앞자락을 풀어 헤친 채, 속에는 플란넬 셔츠를 입고 지냈습니다. 그것을 휘트먼의 특이한 걸치레라고 말한 비

평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휘트먼 자신의 정신적 변화에 의해 그렇게 됐던 것이 분명합니다.

<작품을 써라>라는 포어를 널빤지에 새겨서 언제나 눈에 잘 보이는 자기 책상 한가운데에 놓기로 했다고, 휘트먼 자신이 쓴 글이 있기는 하지만, 그의 아우 조오지에 의하면 그렇게 했어도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조오지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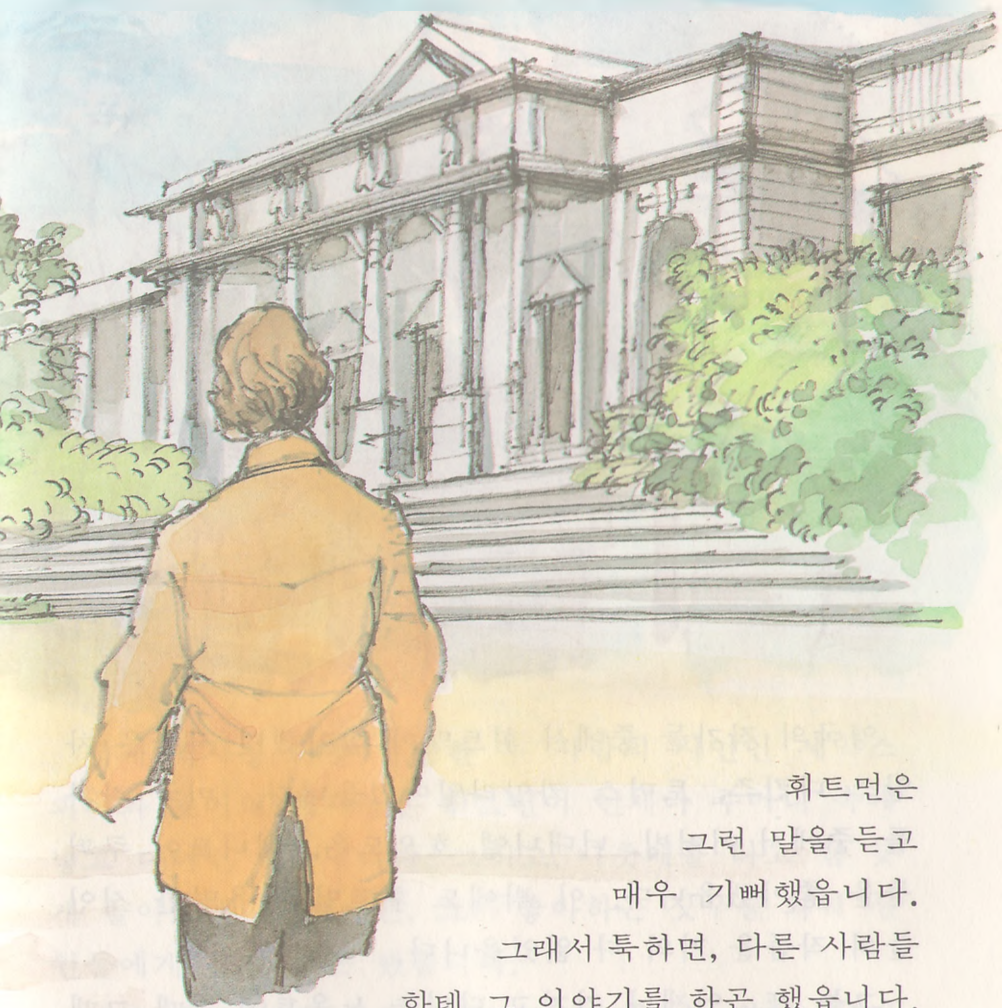
“형님(윌트 휘트먼)으로서는 웬만큼 쓰고 있었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별로 일을 하지 않고, 여전히 빈들빈들 놀고 있었읍니다. 형님은 돈 같은 것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무렵에 휘트먼은 공부에 열중하였읍니다. 그는 역사책을 읽기도 하고, 종교 서적을 읽기도 하고, 천문학에도 흥미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한편, 그 무렵 미국에서 유행하던 관상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휘트먼이 것처럼 관상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느 날 그가 뉴우요오크의 브로드웨이에서 관상학
 의 대가로 알려져 있던 로렌조 포올러라는
 사람을 찾아갔을 때, 그 사람
 한테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기
 때문입
 니다.



“휘트먼 씨, 당신의 가장 좋은 점은 우정이 두터운
 점, 동정심이 깊은 점,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점, 자존심이 강한 점입니다. 게다가, 당신은 매우 몸
 이 튼튼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오래 살 것입니다.”



휘트먼은
그런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특하면, 다른 사람들
한테 그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는 또, 뉴우요오크의 도서관에 자주 갔습니다. 그의 독서 범위는 옛 로마 제국의 시인 루크레티우스로부터 근대 프랑스의 대표적 철학자인 장 자크 루소라 든가, 역시 프랑스의 여류 작가인 조르즈 상드에까지 미쳤습니다.



영국의 작가들 중에서 휘트먼이 좋아했던 사람은 찰스 디킨즈, 토머스 카알라일이었습니다. 미국 작가들 중에서 어어빙, 너대니엘 호오도온, 페니모어 쿠퍼들을 좋아했습니다. 이 밖에도 휘트먼은 유명한 시인들의 작품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는 또, 언제나 가지고 다니는 노트에 그때 그때 생각나는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게다가, 휘트먼은 또 지리학, 지질학 등 그의 흥미를 끄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읽었으며, 매일 신문이나 잡지의 중요한 기사를 오려 내어서 스크랩북에 붙여 두곤 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의 시인인 셰익스피어와 호머의 저서들은 휘트먼이 언제나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던 책들입니다. 그리고, 나룻배를 타고 밤 늦게 돌아오게 될 때에는, 그가 좋아하는 낚시를 외워 선원들에게 들려 주곤 했습니다.

서른 살이 조금 넘은 휘트먼의 머리에는 벌써 흰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의 아버지의 병환은 자꾸만 악화되어 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자기의 목숨이 오래 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하고, 어느 날 휘트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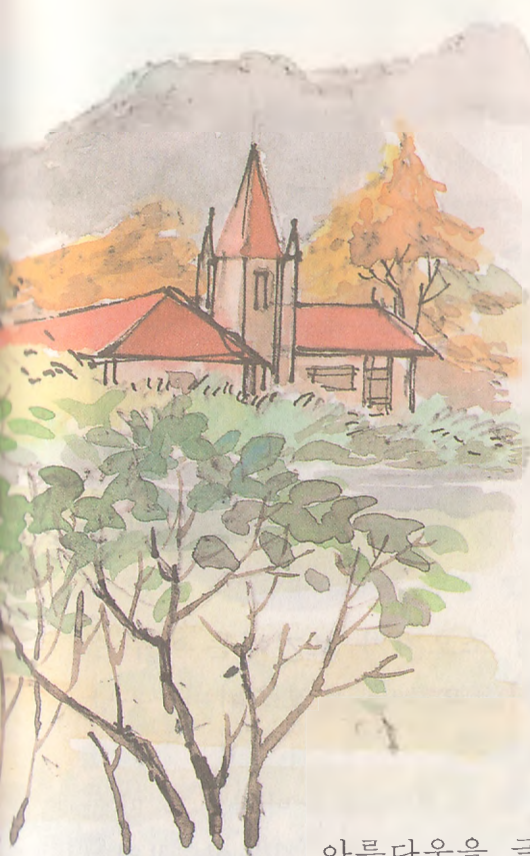


“월트야, 죽기 전에 다시 한 번 롱아일랜드의 웨스트힐즈나 그 근처의 낯익은 경치를 보고 싶구나.”

“알겠습니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휘트먼은 아버님을 모시고 원하시는 대로 웨스트힐즈에 가 보았습니다. 이미 휘트먼의 할아버지 반베르자 노인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건물이나 헛간은 옛날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구릉도 초원도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휘트먼은 그리운 할아버지의 옛 모습을 눈앞에 떠올리면서 세월이 빠른 데에 새삼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브루클린으로 돌아오
자, 휘트먼은 열심히 시
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좀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발표하면 세
상 사람들은 칭찬할까,
아니면 웃을까?’

휘트먼은 시를 쓰면서
도 자주 이런 의문을 느
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야 어떻게 되
건 자기가 잘 알고 있
는 이 세상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글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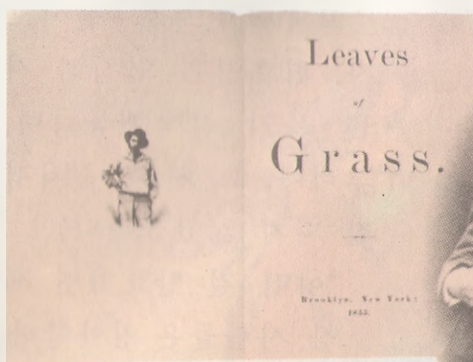
세상의 위선자들 앞에 내 자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
는 것들을 뚜렷이 내세워서 보여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도 거리에서 누구나 항상 사용하고 있는 가장
평범한 일상적인 언어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비평
가들이나 매우 고상한 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
건 간에 그런 언어는 얼마든지 써도 괜찮은 것이다.’

라고 휘트먼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심을 굳히고 있었던 휘트먼도, 매우



휘트먼의 첫 시집인 《풀잎》
초판의 책표지와 1887년의 휘
트먼

현실적인 인물인 그의 동생 조오지가 보기에는 아무 쓸
모 없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훗날,
조오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형님은 밤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 때 문
에 아침에는 으레 늦게 일어났으며, 기분이 내키는
날에는 두세 시간씩 시를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달리 하는 일 없이 종일 빈들빈들 놀았읍
니다. 우리 형제는 모두 일을 하고 있었는데, 놀고
있는 사람은 그 형님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남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건 간에 휘트먼의 노
우트에는 많은 시가 쓰이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꽤 긴
시도 12편이나 쓰이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 작
품에는 그 때까지 다른 시인들이 쓴 시에는 반드시 있
어야 했던 일정한 가락(문학 용어로는〈운율〉이라고 말
한다.)은 없고, 그 자신의 영혼처럼 자유롭고 매우 독립

된 시들뿐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의 시는 매우 특이하고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휘트먼은 그 12편의 긴 시를 한데 모아 책을 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새로운 시집을 출판해 주려고 하는 출판사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휘트먼은 자기의 시집에 일단 《풀잎》이란 제목을 붙인 다음, 자기 돈으로 책을 출판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그에게는 인쇄소를 경영하고 있는 친구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웁지, 그 친구한테 가서 의논해 보자.’

휘트먼은 진부터 아는 사이인 로움 형제를 찾아가서, 자기의 시집 《풀잎》출판에 대해 의논을 했습니다. 로움 형제의 형은 제임즈, 동생은 토머스란 사람이었는데, 풀른 거리에서 인쇄소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야아, 휘트먼 아닌가! 참 오래간만이군.”

로움 형제는 휘트먼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부탁할 게 있어서 왔네. 이거 내가 쓴 시집인데 조판을 좀 해 주게.”

“허, 그래? 그거야 쉬운

일이지. 자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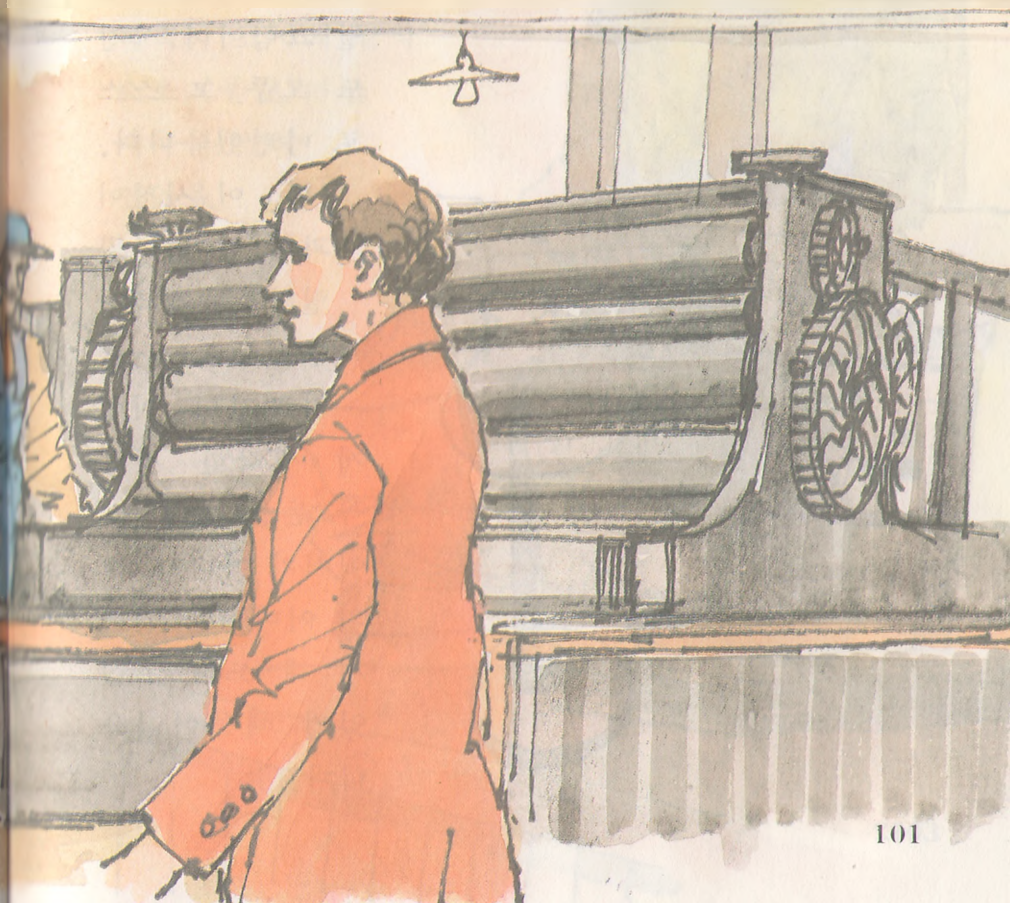
쓴 것이면

뭐든지.”



로움 형제는 선뜻 휘트먼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곧 그의 시집 《풀잎》의 인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휘트먼은 자기 자신도 전에 활자를 다루어 본 경험이 있었고, 그런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휘트먼은 그 다음 날부터 로움 형제의 일을 거들어 주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교정도 보았습니다.

그 해 봄이 다 가도록 휘트먼은 매일 로움 형제의 인쇄소에 나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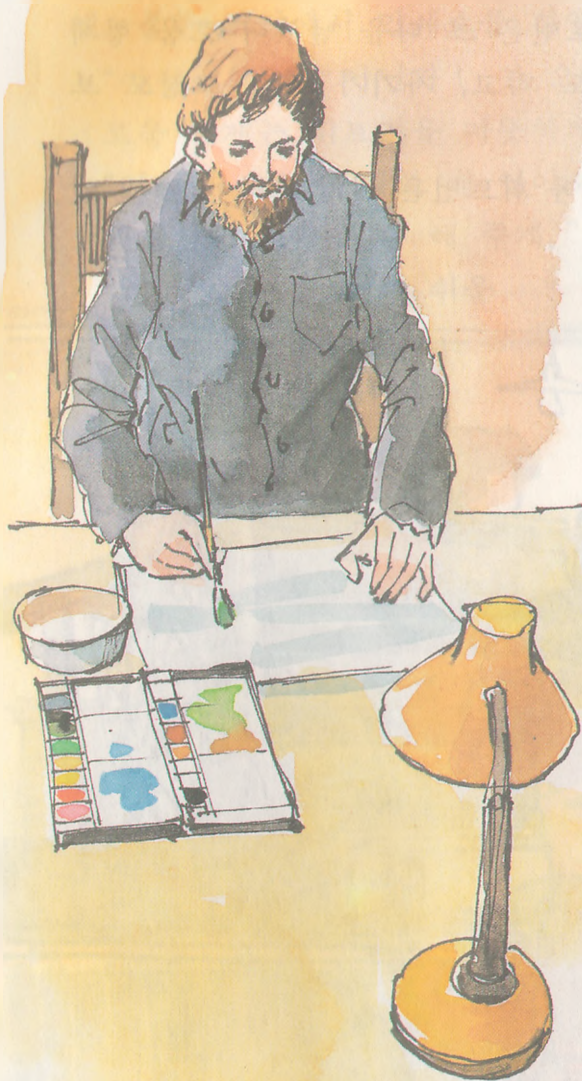


휘트먼의 아버지는 이 무렵 병상에서 꿈쩍도 못하셨고, 회복될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았읍니다.

휘트먼은 책의 장정도 그 스스로 생각하여 정했고, 책의 첫머리에 실릴 그림이나 사진도 모두 그 스스로 마련했읍니다.

‘아, 이 시집이 과연 얼마나 팔릴까? 잘 팔리면 좋겠는데…….’

휘트먼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꼭 돈을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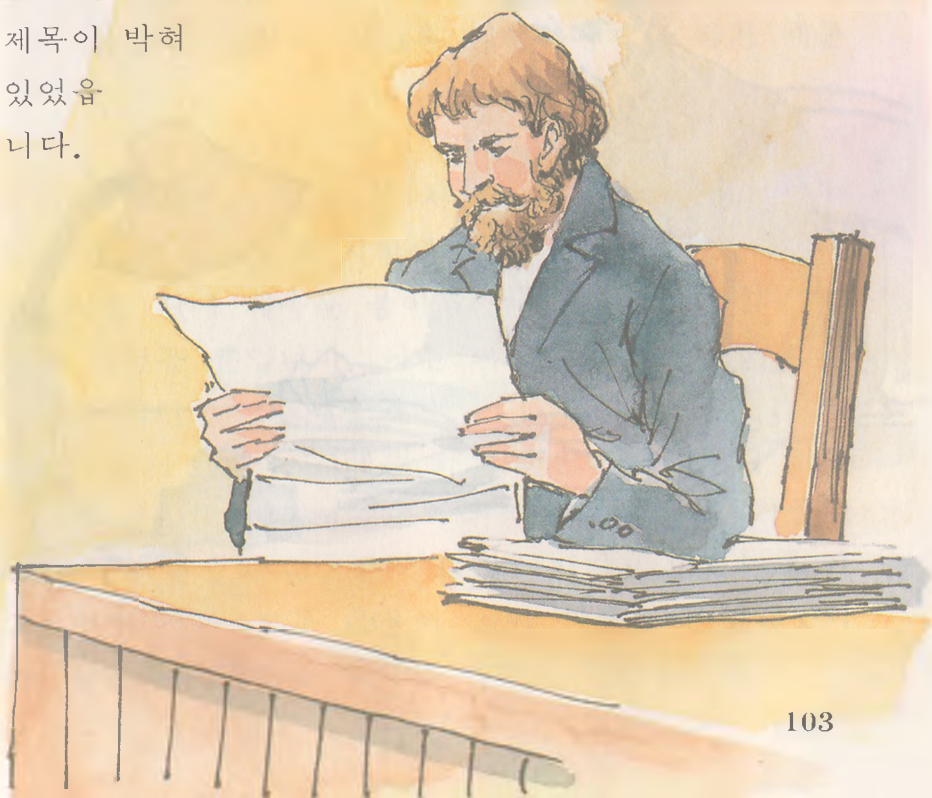


세상의 악평

1855년 7월 6일, 뉴우요오크의 《트리뷰운》 신문의 한구석에 조그만 책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 광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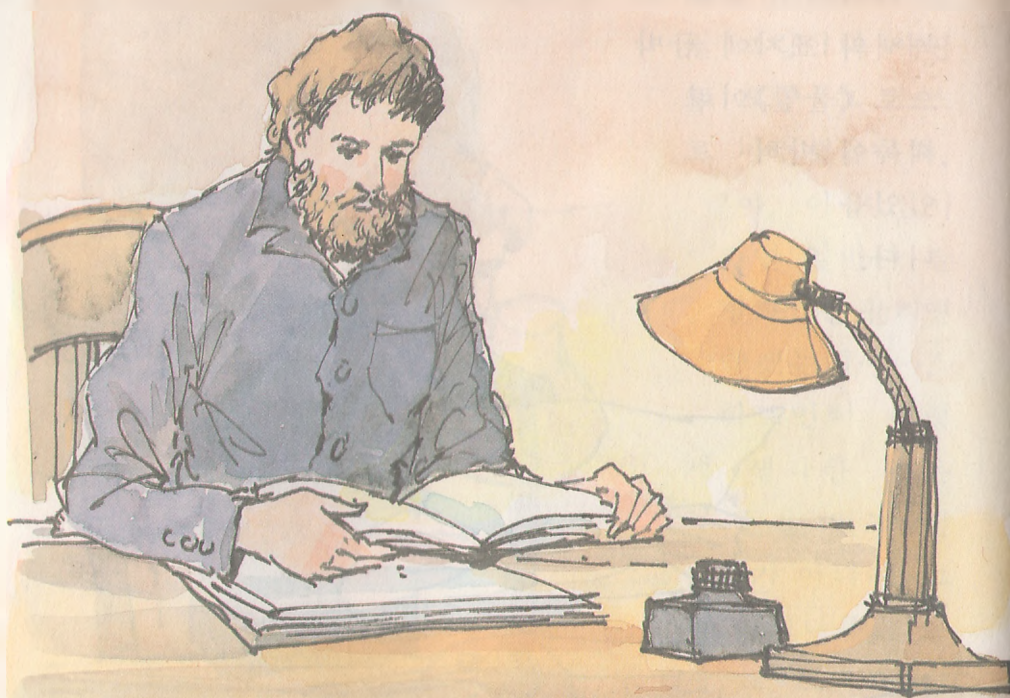
「월트 휘트먼의 시집 《풀잎》이 브루클린의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음. 책값은 2 달러임.」

서점에 진열된 그 시집은
녹색의 표지에 금박
으로 《풀잎》이란
제목이 박혀
있었습
니다.



책의 속표지에는 목수의 모습인 휘트먼의 초상이 실려 있을 뿐이고, 겉표지에도 속표지에도 그 시집의 저자 휘트먼의 이름은 인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판권 소유자를 밝힌 곳에만 월트 휘트먼이라는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3 페이지부터 12 페이지까지 계속된 서문에는 격렬한 어조로, 이 시집의 사명을 길게 서술해 놓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과거에 대해 많은 힘을 입고 있으며, 그 과거로부터 은혜와 교훈을 얻고 있다. 시정(詩情)이 풍부한 미국 사람들은 본래부터 선택된 국민인데, 그것은 미국 그 자체가 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적어도 시인이든 민중이든 같은 기준으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시의 기쁨은 반드시 운율이나 음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위대한 시는 쉬어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 시란 겉치레 없이도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꾸며서는 안 되며, 그러한 멋대로의 꾸밈을 버리고 과학을 존중해야만 한다. 위대한 시인이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이른바 오늘을 사는 시인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시인은 예언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으로 길게 쓴 서문이 첫머리에 실려 있는 것도 그 때까지 다른 시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이지만, 서문 뒤에 제목을 붙이지 않은 시들이 겨우 12편 실려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휘트먼의 시집 《풀잎》이 야말로 회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시에는 꼭 각운이니 율격이니 하여 일정한 운율이 있었고, 당시의 다른 시인들의 작품에서도 그런 운율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이 휘트먼의 시는 모두 운율이 없이 자유롭게 말하듯이 쓴, 완전한 자유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집 <풀잎>은 그 뒤 여러 번 거듭 인쇄되면서, 차츰 내용이 보충되어 책의 페이지 수가 늘어났으나, 그 시집의 중심을 이룬 사상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휘트먼은 그 첫번째의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예찬하고

나 자신을 노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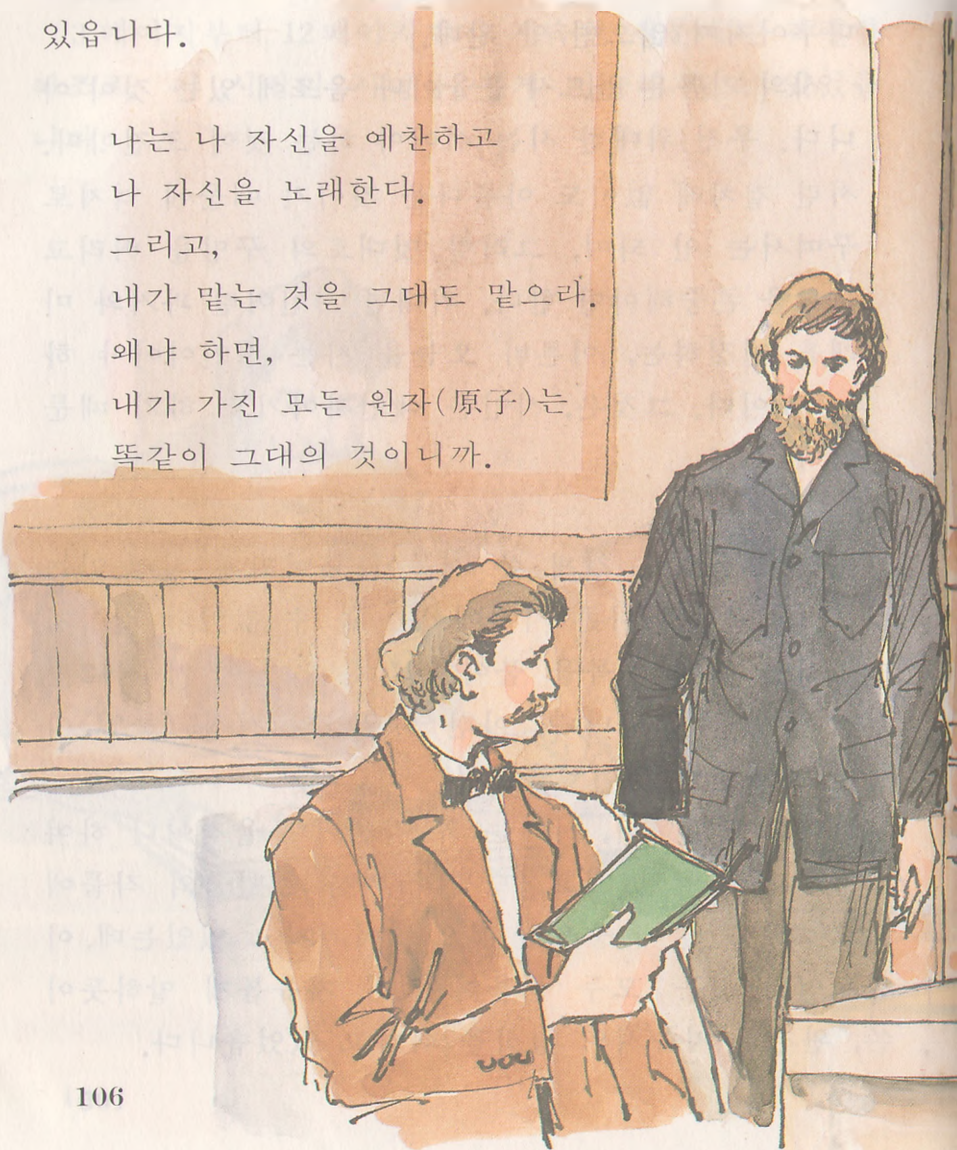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도 말으라.

왜냐 하면,

내가 가진 모든 원자(原子)는

똑같이 그대의 것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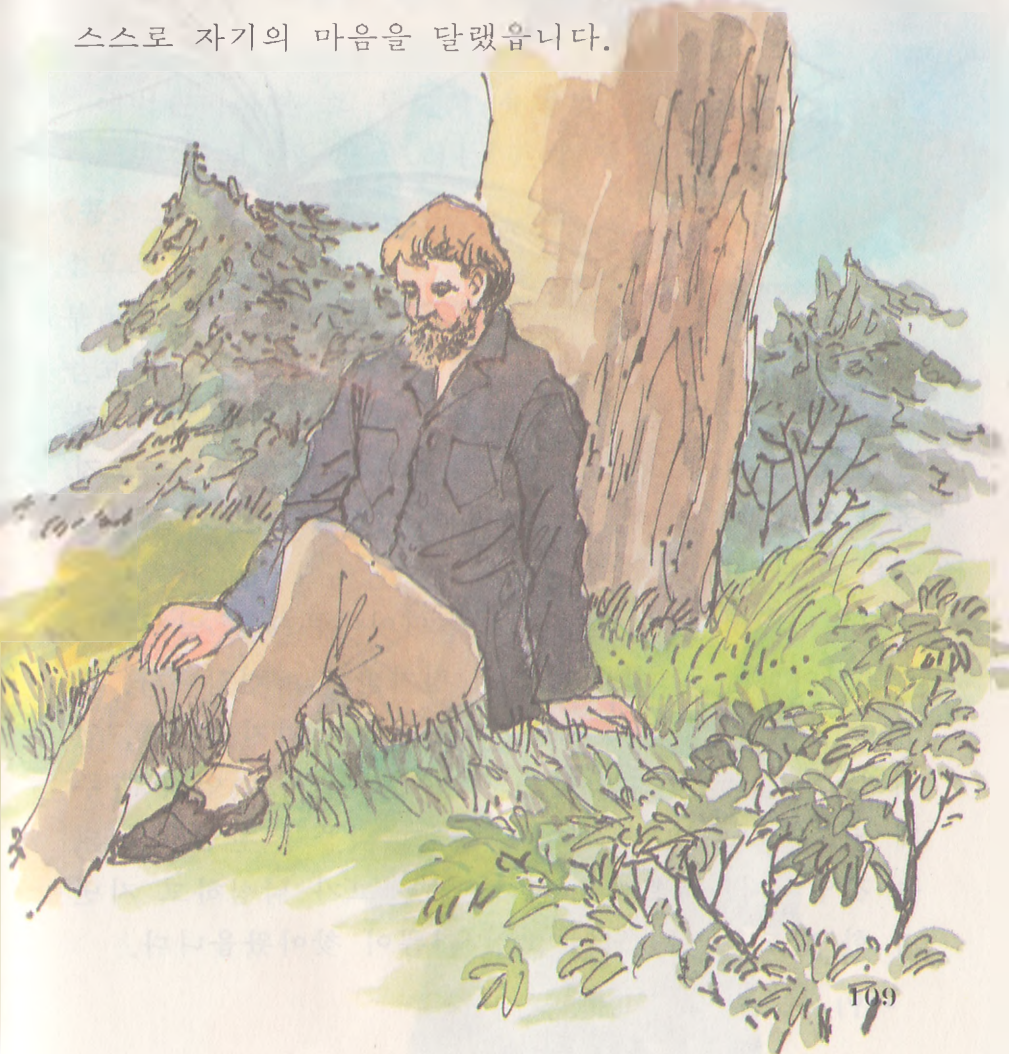
휘트먼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예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편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같다는 생각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휘트먼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휘트먼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까지 높여져 있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는 월트 휘트먼이란 개인인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기도 했습니다.

휘트먼은 이와 같이 고심하며 출판한 시집 《풀잎》을 그의 친구나 아는 사람, 그리고 몇몇 신문사와 잡지사에 보냈으나, 누구도 칭찬의 말 한 마디 없었습니다.



인 7월 11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첫번째 시집이 악평만 받고 있는 때에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보니, 휘트먼은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휘트먼은 어디까지나 자신을 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아픔을 견딜 수 없어서 때때로 혼자서 숲 속이나 인적 없는 곳을 걸거나 풀밭에 앉아서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 무렵의 유명한 시인인 휘티어와 같은 사람은 휘트먼한테서 기증받은 시집 《풀잎》을 난로에 던져 넣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휘트먼에게 들려 온 소리는 모두 그의 시집 《풀잎》에 대한 악평뿐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휘트먼 자신의 가족들에게서도 칭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의 동생 조오지는 그 시집을 받고도

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예 읽어 볼 가치가 없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휘트먼의 어머니는 아예 그런 시집을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아버지는 몹시 쇠약해져 있어서 책을 보는 일이 없었을뿐더러, 아들의 시집이 발행된 지 며칠 뒤



역사를 돌이켜보면, 훌륭한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들은 흔히 처음에는 세상의 악평을 받아 빛을 보지 못한 예가 많습니다. 휘트먼의 첫 시집 《풀잎》도 그러한 예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땅 속에 묻혀 있는 다이아몬드는 언젠가는 발굴되어 제 값어치를 온전히 평가받기 마련입니다. 훌륭한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간 그 누군가가 그 작품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해 주게 되고, 그로 인해 세상은 꼭 그 작품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휘트먼의 경우에는, 그가 낙심하고 지낸 지 한 달도 채 못 되어 그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에머슨의 편지 이후

그 해 7월 말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휘트먼에게 배달되었습니다. 겉봉을 보니,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은 랠프 왈도 에머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에머슨이라면 그 무렵의 유명한 시인으로서 사상이 이기도 한데, 콩코오드라는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콩코오드의 철학자>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의 국민들로부터 크게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휘트먼 자신도 그 에머슨의 저서를 읽은 일이 있고, 이런 분이야말로 자기의 스승으로 섬길 만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분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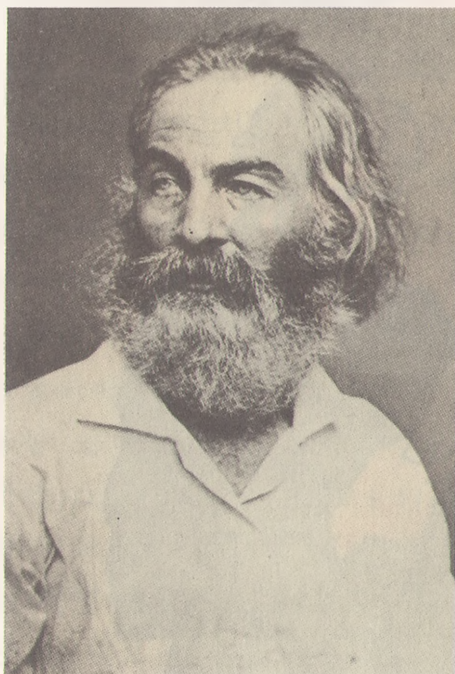
그런데, 뜻밖에도 그분한테서 직접 휘트먼에게 편지가 날아온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대강 다음과 같았습니다.

「삼가 글월을 올립니다.

저는 당신의 시집 《풀잎》의 뛰어난 가치에 대해서 결코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미국에서

휘트먼



지금까지 나온 시집들 중 가장 비범한 기지와 지혜로 가득 찬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래 위대한 힘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신의 시집을 받아 보고 크게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미국에서 유럽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지나친 기교나 지



나치게 나약한 기질 때문에 둔감해지거나 비속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래 전부터 항상 불모 상태의 빈약한 문단을 지적해 왔었는데, 저의 그러한 요구에 대해 당신의 저서는 참으로 잘 맞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자유롭고 용감한 사상에 대해 진심으로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번 저서에는 특히 훌륭한 내용이 훌륭한 솜씨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 솜씨는 저를 아주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솜씨가야말로 넓은 견식에서만 우러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대한 시인의 출발점에 서 계신 당신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기야 이런 출
발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준비 기간을 보내셨을 것
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태양의 빛이 환각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눈을 감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
신의 시집이 저의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시집은
최고의 가치, 즉 남을 고무하고 격려해 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밤에 신문에서 당신의 시집 광고를 보
기까지는 당신의 이름이 시집에 없었으므로, 당신에
게 편지를 보낼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당신을 뵈고 싶어하
고 있으며, 저의 일을 중단하고 뉴우요오크로 가서
당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1855년 7월 21일

매사추세츠 주 콩코오드에서

램프 왈도 에머슨.

휘트먼은 서른 여섯, 에머슨은 쉰 두 살 때였습니다.

휘트먼은 에머슨의 편지를 읽어 나갈수록 뺨이 달아
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당시의 일류 사상가요
시인이라고 알려진 사람한테서 이처럼 칭찬해 주는 편

지를 받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휘트먼은 그 에머슨의 편지를 들고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그 뉴우스를 온 세계에 큰 소리로 알려 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휘트먼은 꼭 참고 그 편지를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다가, 친구들과,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과연 에머슨은 그가 편지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해 그믐계부터 이듬해에 걸쳐 몇 번 휘트먼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56년 가을에 휘트먼의 시집 《풀잎》 제 2 판이 간행되었습니다. 이 제 2 판에는 그 전해 7월에 에머슨이 휘트먼에게 보냈던 편지가 전부 실려 있었습니다.

또, 제 2 판에는 초판 때와는 달리 책표지에 월트 휘트먼이라는 저자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발행처도 뉴우요오크 시 브로드웨이 가 306번지의 파울러 앤드 웨일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초판에 실렸던 서문은 다시 실지 않고, 그 대신 에머슨의 편지를 실었습니다.

시편의 수도 2 배 이상 늘어서 32편이었고, 책의 페이지 수는 3 백 84 페이지나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각 작품의 첫머리에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제 2 판은 에머슨 편지의 영향도 있어서 꽤 많이 팔렸던 듯합니다.

한편, 휘트먼은 《폴잎》을 간행한 뒤 브루클린의 《데일리 타임즈》란 신문의 편집을 맡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시를 쓰기도 했으나, 더욱더 구체적인 현실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신문에 자주 발표했습니다.

휘트먼의 자필 원고

휘트먼은 신문의 사설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하기도 하고, 수도 사업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브루클린의 항만 시설을

Passage to India
Walt Whitman
 Singing my days,
 Singing ^{and exulting} the greatness of the present,
 Singing the strong, light works of
 engineers,
 Our modern wonders, (the antique
 ponderous Seven outwied)
 In the Old World, the East, the Suez
 Canal,
 The New by its mighty railroad spans,
 The seas ~~at~~ inland with elegant,
 gentle wires
 I sound, ^{to commence} ~~for the first~~ the cry, with thee,
 O soul,
 The past! the past! the past!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에도 휘트먼은 틈만 있으면 나룻배를 타고 브루클린과 뉴우요크 사이를 왕래하면서, 선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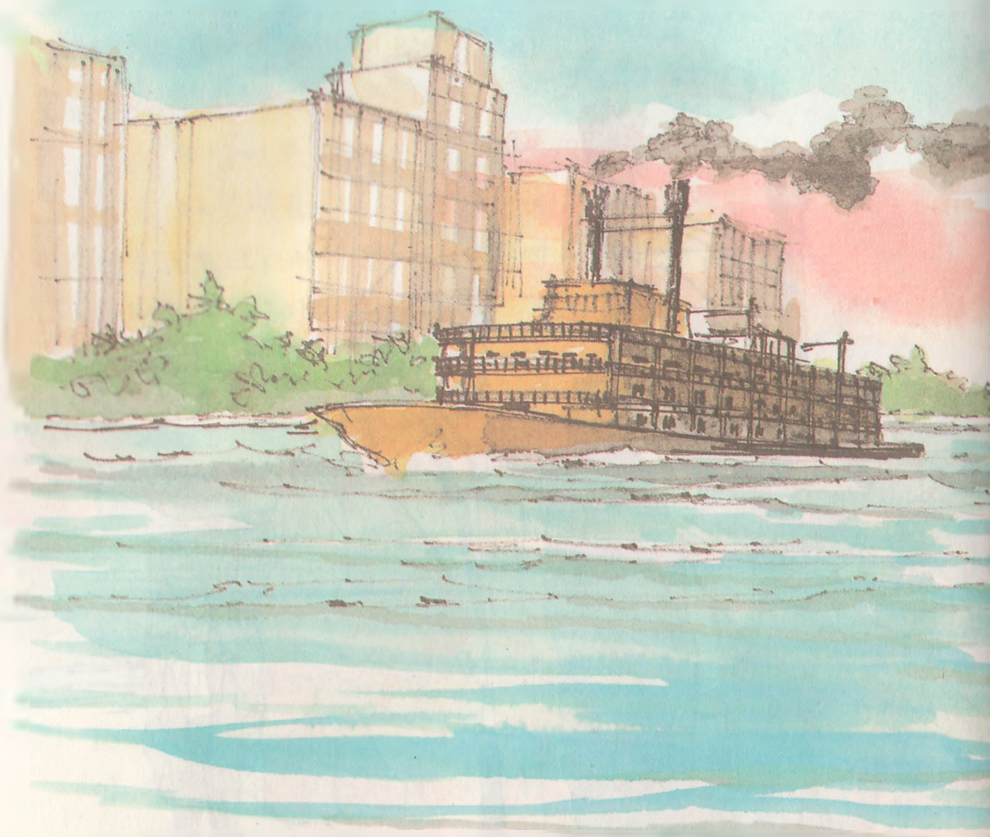
그러나, 휘트먼은 1859년 마흔살 때에 《데일리 타임즈》 신문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폴잎》 제 3 판을 출판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폴잎》 제 3 판은 그 이듬해인 1860년 5월에 간행되었습니다. 이 제 3 판은 보스턴의 세이어 앤드 엘드리지 출판사에서 출판했습니다. 휘트먼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출판사에서 《폴잎》의 출판이 이루어진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휘트먼은 이 무렵 보스턴에 머물면서 에머슨을 찾아가 만나기도 하고, 사상가로서 유명한 월든, 숲 속의 철학자 도로오 같은 사람들과도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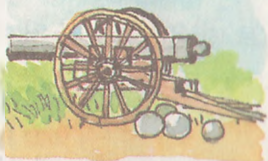






그의 시집 《풀잎》의 제 3 판은 총 페이지 수가 456페이지나 되었는데, 제 2 판에 실린 시 이외에 새로운 시 125편을 합쳐, 모두 157편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해 6 월, 휘트먼은 《풀잎》의 제 3 판 간행이 순조롭게 끝나자 뉴우요오크로 돌아갔습니다. 이 무렵에는 휘트먼도 미국에서 매우 새로운 시를 쓰는, 주목할 만한 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로 부터 널리 관심을 끌고 있었으며, 《풀잎》의 제 3 판은 꽤 많이 팔렸던 듯합니다.



찬란한 명성 속의 불행

1861년, 휘트먼의 나이 마흔 두 살이던 해의 4월 12일입니다.

이 날 휘트먼은 뉴우요오크의 14번가에 있는 한 극장에서 연극을 구경하고, 날이 어두워졌을 때 극장 밖으로 나와 브루클린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갑자기 어디선가 요란한 방울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그리고는 뒤이어,

“호외요, 호외!”

하는 외침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휘트먼은 무슨 호외일까 궁금하여 급히 신문을 샀읍니다. 주위가 캄캄했으므로, 휘트먼은 그 근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호텔 안으로 들어가 호외를 읽었습니다.

〈남북 전쟁 시작되다!〉

라는 큰 제목이 대뜸
눈에 띄었
읍니다.





‘결국 전쟁이 시작
되었구나.’

신문을 보던 휘트먼
은 자기도 모르게 중
얼거렸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의 역
사에서 가장 비참한
사건이었다는 남북 전
쟁이 시작되었던 것입
니다.

그것은 노예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북부
와, 노예 제도의 유지
를 고집하는 남부와의
오랜 의견 대립에서
나온 미국의 국내 전
쟁이었습니다.

미국의 장래에 대해
서 매우 낙관적인 생
각만을 가지고 있던
휘트먼도, 이제는 미
국의 비극적인 현실을
다시 한 번 사실 그대
로 분명하게 보지 않
을 수 없었습니다.

휘트먼은 마흔 두 살이나 됐기 때문에 군대에 동원되지는 않았으나, 그의 동생 조오지는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부군의 의용군으로 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휘트먼은 자기 혼자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 그 해 겨울부터 1862년에 걸쳐서, 브로드웨이의 한 병원에 드나들며 상이 군인들을 위문하고, 그들의 간호를 거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전부터 휘트먼 자신이 노예 제도 폐지를 강경히 주장해 왔던만큼, 이제 그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 남부와 싸우다 부상당한 북부의 상이 군인들을 대하는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1862년 12월, 뉴우요오크의 《헤럴드》 신문에 부상병의 명단이 발표되었을 때입니다. 그 명단을 훑어보고 있던 휘트먼은 얼굴빛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 명단 속에 동생 조오지의 이름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큰일이군. 곧 전선으로 가서, 동생을 간호해 줘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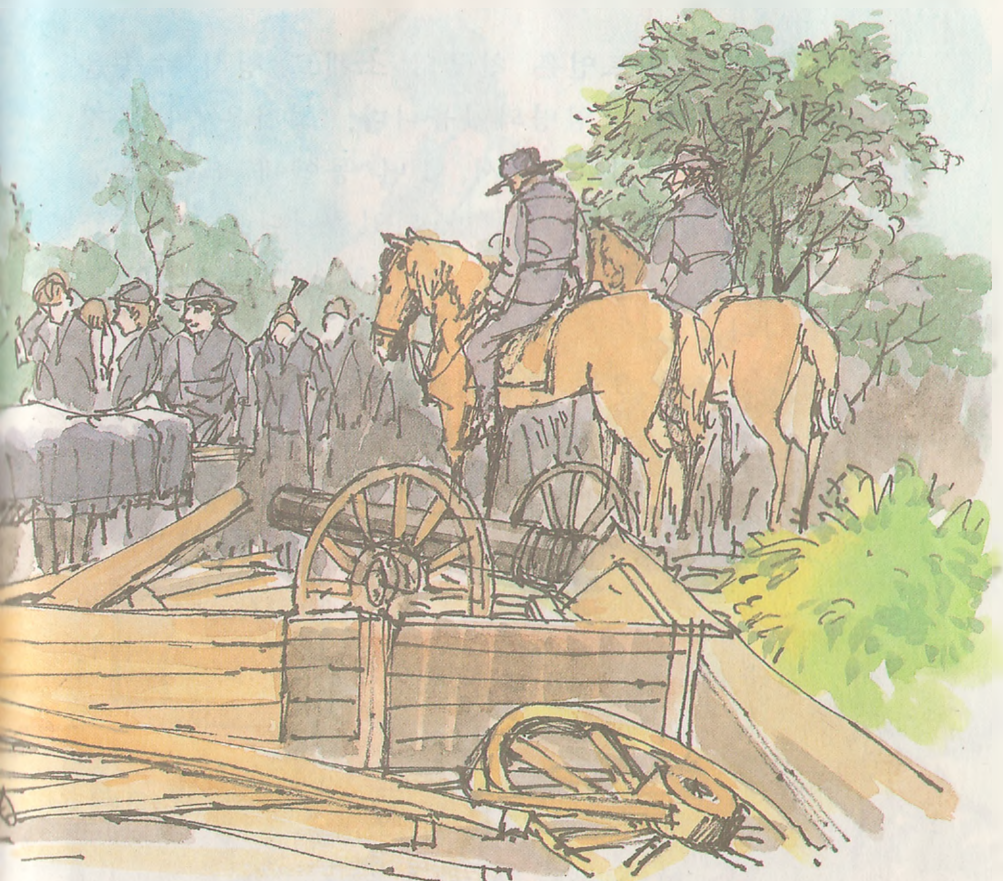
휘트먼은 이렇게 결심하고 곧 워싱턴으로 갔습니다.





그는 워싱턴의 육군 병원을 다 뒤져 보았지만, 동생 조오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휘트먼은 허가를 얻어 버어지니아 주로 가서, 그 곳의 포오츠머드의 진지에서 겨우 그의 동생 조오지를 찾아 내었습니다. 조오지는 다행히도 중상은 아니었습니다.

휘트먼은 그 포오츠머드의 진지에 10일 가량 머물러 있었는데, 몹시 황폐해진 풍경 속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자, 크게 슬픔을 느꼈습니다.



휘트먼은 그 진지를 떠나 워싱턴으로 돌아오자, 오크너라는 친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병원으로 가서 상이 군인들을 위문하기도 하고, 신문에 글을 써서 상이 군인들을 위한 기부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1863년부터 휘트먼은 육군 병원의 보조원이 되어 전심 전력으로 상이 군인들을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그는 틈을 내어 뉴우요오크로 돌아가서, 어머니와 동생의 일을 보살피곤 했습니다.

1865년 1월, 휘트먼은 친구의 소개로 정식 수속을 밟아 내무부 시기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지위가 낮은 3등 서기관으로서, 1년 동안에 받는 봉급은 모두 1천 2백 달러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무는 편하였고, 시간 여유도 꽤 있었으므로 휘트먼은 유쾌했습니다.

그 해 3월 중순경이 되었을 때, 휘트먼은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고, 곧 휴가를 얻어 뉴우요르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4월 15일 아침의 일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있던 휘트먼은, 그 전날 밤에 링컨 대통령이 워싱턴의 극장에서 연극을 구경하던 중 반대파 사람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휘트먼은 링컨 대통령을 좋아하였으므로, 깊은 슬픔에 싸였습니다. 그는 곧 링컨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해 7월, 휘트먼은 재무부의 서기관으로 옮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와

그 밖에 새로 쓴 시들을 모아서, 《군대의 북 소리》라는 얇은 시집을 내었습니다. 이 시집의 출판은 뉴욕요오크의 한 출판사가 맡았습니다.

휘트먼은 관리로 워싱턴에서 지내면서도 여전히 하층 계급의 사람들과 친했습니다. 워싱턴의 합승 마차의 마부는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휘트먼을 만나면 손을 들어 인사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휘트먼 씨!”

그러면, 휘트먼도

“예, 반갑습니다.”



라고, 유쾌한 표정으로 대꾸하곤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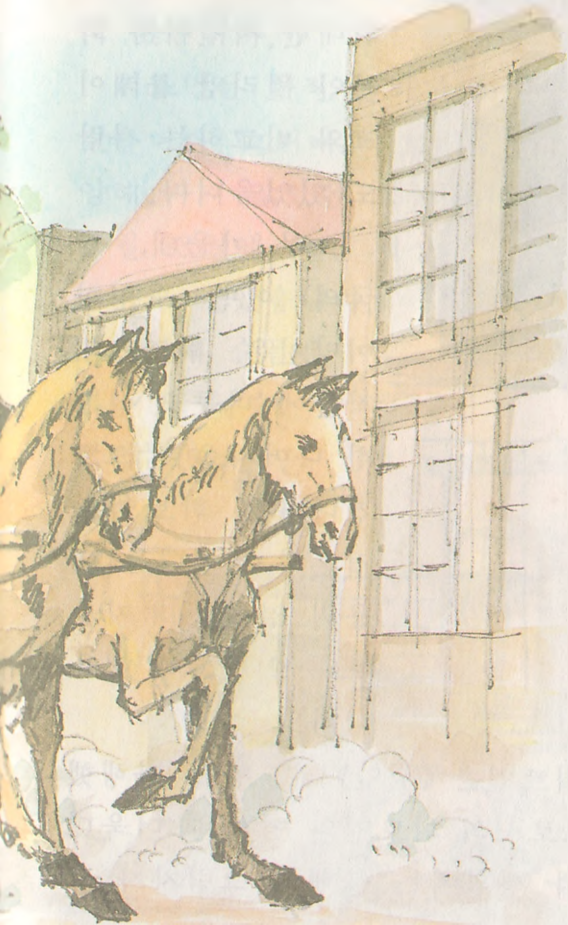
한편, 첫번째 시집 《풀잎》의 제3판을 낸 뒤로 휘트먼이 오랫동안 원하고 있었던 것은 제4판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원은 드디어 1867년, 그의 나이 마흔 여덟 살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제4판에는 제3판에 실렸던 작품들 외에도, 두

번째의 시집 《군대의 북 소리》에 실렸던 작품들과 그 속편들을 실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휘트먼의 시에 대한 세평은 매우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미국 사람들보다도 영국 사람들이 휘트먼의 시를 더욱 높이 칭찬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휘트먼이라는 위대한 시인의 진가가 올바르게 평가되어,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들만을 추려 모은 《휘트먼 시선》이라든가, 또는 그의 작품에 대





해서 논평한 《휘트먼론(論)》이 여러 신문과 잡지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런 글을 쓴 사람들 중에는 휘트먼을 영국의 위대한 시인이자 화가인 윌리엄 블레이크와 비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국의 어떤 유명한 미망인은 휘트먼의 작품에 너무도 심취한 나머지, 미국으로 건너와서 휘트먼과 결혼하고 싶다는 내용의 열렬한 편지를 보내 오기까지 했습니다.

1871년, 쉰 두 살의 휘트먼은 《풀잎》 제 5 판을 간행했습니다. 이로써 시인으로서의 휘트먼의 명성은 더욱더 높아졌으나, 한편 그의 생활에는 불행의 그림자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873년, 휘트먼이 쉰 네 살이 되던 해 1월

23일 밤의 일이었습니다. 휘트먼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와 친한 사람들이 곧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휘트먼은 차츰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이 되자, 뉴우저어지 주의 캠덴에서 '동생 조오지와 살던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휘트먼은 아직 성하지 못한 몸을 이끌고 어머니한테 갔습니다. 그러나, 휘트먼이 <완전한 어머니>로 극구 찬양해 마지 않았던 그 어머니는

5월 23일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휘트먼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음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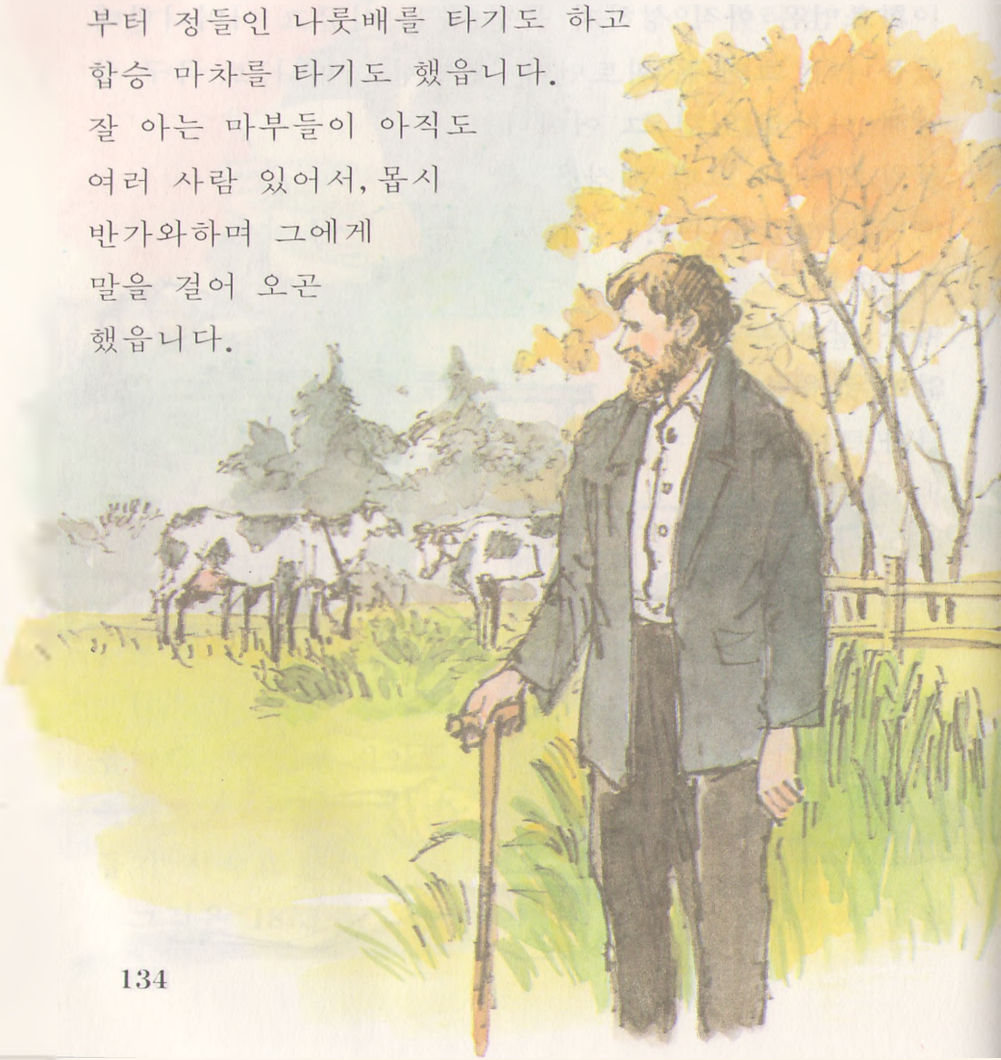


제다가, 그 자신이 건강하지 못했으므로, 그는 이 해 7월 1일, 워싱턴 관청의 서기관직도 사퇴하였습니다.

그 뒤 1876년 여름, 건강을 회복한 윈 일곱 살의 휘트먼은 친구의 농장에 가서 여름을 보냈습니다. 이 때 그는 숲 속을 산책하기도 하고, 친구의 아들과 함께 강에 가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2월에는 다시 뉴우요오크로 가서, 어릴 때부터 정들인 나룻배를 타기도 하고 합승 마차를 타기도 했습니다.

잘 아는 마부들이 아직도 여러 사람 있어서, 몹시 반가워하며 그에게 말을 걸어 오곤 했습니다.



1879년 가을, 에순
살의 휘트먼은 전부
터 여행해 보고 싶
었던 서부 지방으로
떠날 기회가 왔습니
다. 휘트먼은 그의
시에서 서부의 대평
원이나 대초원을 노
래하고 있었으나, 실
제로 서부의 대자연
을 눈으로 직접 볼
기회가 아직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동행
했습니다. 휘트먼은
그들과 함께 이 때
처음으로 침대차를
타 보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미주리 주
에 들어서서 끝없이
펼쳐진 대평원을 바
라보자, 늙은 시인
휘트먼도 가슴이 두
근거리는 것을 느꼈
습니다.



캔자스 주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되어 마차는 덴버로 향했는데, 주위 풍경의 장대함과 변화가 많은 모습을 보고 휘트먼은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그는 10월에 세인트루이스로 돌아왔는데, 여행에서 몹시 지쳐 있던 그는 동생의 집에서 3개월 가량 머무르며 휴양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 6월에, 휘트먼은 다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캐나다의 온테리오 주에 사는 친구 바크 박사의 초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이 캐나다 여행을 마친 것은 그 이듬해인 1881년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그에게 보스턴의 일류 출판사인 오즈구드 출판사의 사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당신의 시집 《풀잎》에 매우 감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풀잎》을 다시 출판하고 싶으시다면, 꼭 저희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일류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풀잎》의 출판을 요청해 온 것은 휘트먼에게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휘트먼은 매우 기뻐서 오즈구드 출판사와 《풀잎》의 출판 계약을 맺었습니다.

조판은 그 해 8월 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때, 휘트먼은 보스턴까지 가서 직접 그 자신이 시집의 교정을 보아 주기도 하고, 보스턴 근처에서 사는 옛날의 은인인 에머슨을 방문하기도 하는 등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풀잎》 제 7 판은 그 해 11월에 간행되었습니다. 이

시집에 실린 300편에 가까운 많은 시작품 중에서 18편은 새로 쓴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3월, 오즈구드 출판사는 보스턴 검찰청으로부터 휘트먼의 시집 《풀잎》의 판매를 중지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시집 《풀잎》 속에 미풍 양속을 어지럽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출판사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휘트먼은 할 수 없이 《풀잎》의 몇 군데를 고쳤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에서는 그 정도로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시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없게 된 데 대하여 분개한 휘트먼은 《풀잎》의 판매를 중지하고, 빗을 얻어서까지 그 시집의 원판을 오즈구드 출판사로부터 사들였습니다. 원판이란 책을 내기 위하여 인쇄소에서 인쇄를 할 수 있도록 지형이나 사진을 떠 놓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풀잎》 제7판은 판매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휘트먼은 그 제7판의 원판에 새로운 작품을 더 보태어, 필라델피아의 리이스 웰슈 출판사에서 제8판을 발행하였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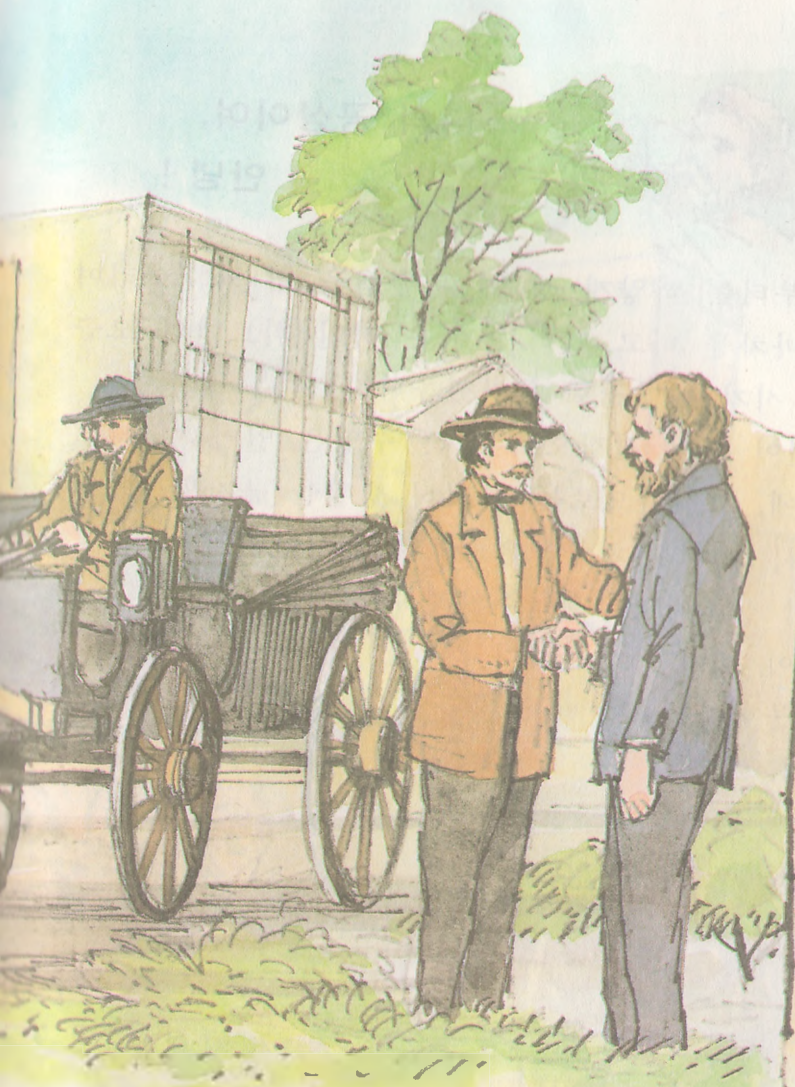
그 뒤에는 또한, 필라델피아의 마케이라는 출판사에서 《풀잎》을 한 군데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출판하였

입니다. 그로부터 마케이 출판사는 휘트먼의 시집을 출판한 대표적인 출판사가 되었습니다.

1884년, 휘트먼은 1750달러로 미클 거리 328번지의 조그만 2층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집 근처로 철도가 깔려 있었으므로,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그 집은 흔들렸습니다.

서재로는 2층의 침실을 사용했는데, 가구다운 것이 라곤 고작 책상과 두세 개의 의자, 그리고 책이 꽂 찬 책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미망인이 와서 그의 식사 시중을 들어 주었습니다.





넌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도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마아크 트웨인도 끼여 있었습니다.

휘트먼의 눈에는 금세 감사의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는 도널드슨에게 이끌려 바깥으로 나와 마차를 타고는 어린아이처럼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휘트먼은 이 무렵, 다리가 튼튼치 못해서 마음대로 걷지를 못하였습니다.

1885년, 휘트먼이 예순 여섯 살 때의 일인데, 휘트먼은 9월 어느 날 무심히 그 작은 2층집의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읍니다. 잘 먹인 말이 끄는 1인용의 마차가 그의 집 앞에 와서 멎었습니다.



‘웬 손님이 오시나?’

휘트먼은 궁금하게 여겼읍니다. 그런데, 변호사인 친구 도널드슨이 2층으로 올라와서, 그 마차와 말은 친구들의 선물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휘트먼의 다리가 튼튼치 못한 것을 알고, 그를 위해 돈을 모아서 마차와 말을 사 주었던 것입니다. 그 때, 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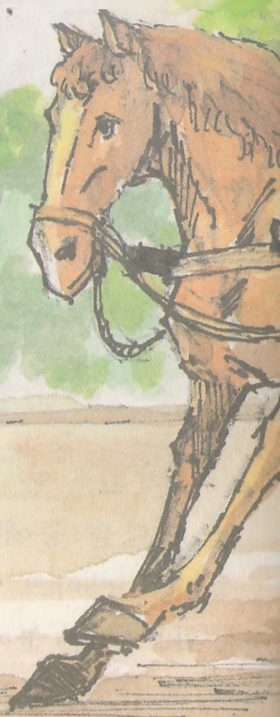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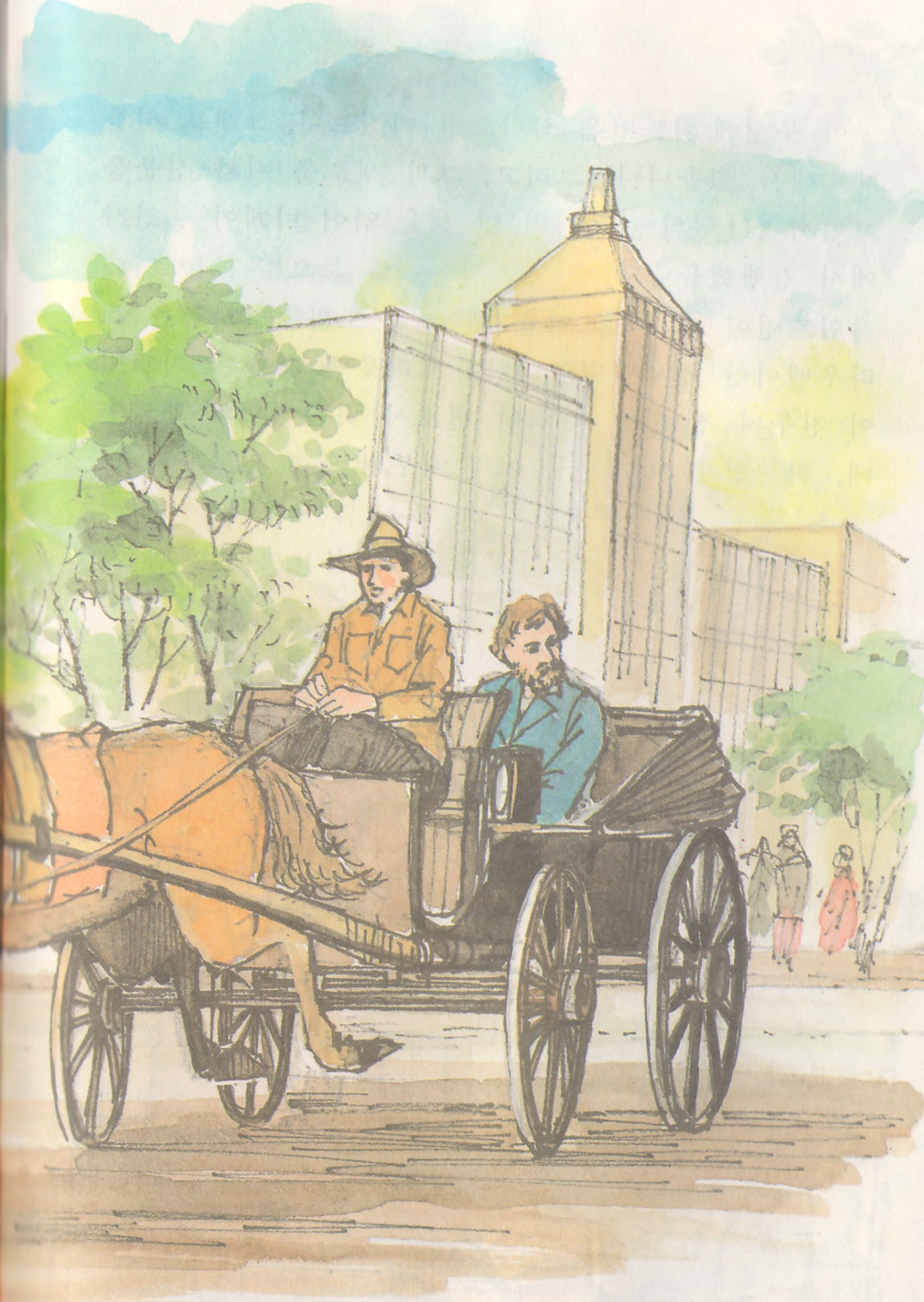
나의 공상이여, 안녕 !

그 후부터는 하얗게 센 긴 턱수염을 바람에 날리며
1인용 마차를 타고 달리는 늙은 시인 휘트먼의 모습
이 캠덴 시가의 명물로 등장했습니다.

휘트먼이 그의 시집으로 얻는 수입은 얼마 안 되었
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유지할 수 없
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이 늙은 시인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 가면서,
돈을 모아 보내곤 했습니다.

영국의 문학자들도 이에
찬성하여, 많은 돈을
모아서 보내
왔습니다.





이 무렵에 휘트먼은 시력도 나빠졌으나, 그래도 시를 계속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시와 산문을 모아서 《11월의 나뭇가지》란 책을 엮어 마케이 출판사에서 간행했습니다.

휘트먼이 이 책을 엮을 때 그를 도와 준 사람은 트라우벨이란 청년이었습니다. 트라우벨 청년은 휘트먼이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변호사 하아네트의 조카인데, 휘트먼은 이 청년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트라우벨은 늙은 시인 휘트먼을 존경했고, 늘 미클 거리 휘트먼의 집으로 찾아와서 이 늙은 시인의 말을 받아 쓰곤 했습니다.

1888년 6월 2일, 예순 아홉 살의 휘트먼은 강둑에 서서 오랫동안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때 너무 무리한 탓인지, 휘트먼은 집으로 돌아오자 갑자기 신열이 높아지면서 중태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이 급히 연락을 받고 모여들었습니다. 늙은 시인 휘트먼은 얼마 안가서 회복되어 친구들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이듬해인 1889년, 휘트먼은 일흔 살의 기념으로 《70세의 모래》라는 시와 《회상록》, 그리고 전의 《풀잎》을 한데 모아서 《풀잎》을 새로 간행했습니다. 늙은 시인 휘트먼은 이 책의 속표지에,

「틀림없이 이 책은 한 권의 서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인간이다.」

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책으로써 자기의 전부를 표현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890년, 일흔 한 살의 휘트먼은 많이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꽤 원기가 있었으므로, 친구들은 크게 안심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휘트먼은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음인지, 이 해 2월에 자신의 유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자기의 부모 형제 가운데서 이미 죽은 사람들을 한군데에 모아 장사를 지내기 위해, 휘트먼 일가의 묘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곧 화강암으로 만든 훌륭한 묘가 교외에 세워졌습니다. 가족 묘지를 바라보는 휘트먼에게는 어떤 여한도 없었습니다.





뉴우저어지 주 캠폰에 있던 휘트먼의 집
휘트먼은 이 집에서 여생을 보냈다.

청년의 결혼에 증인을 서 주었으며, 5월 31일의 생일에는 자기의 집에 40여 명의 손님을 초대하여 축하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나의 공상이여, 안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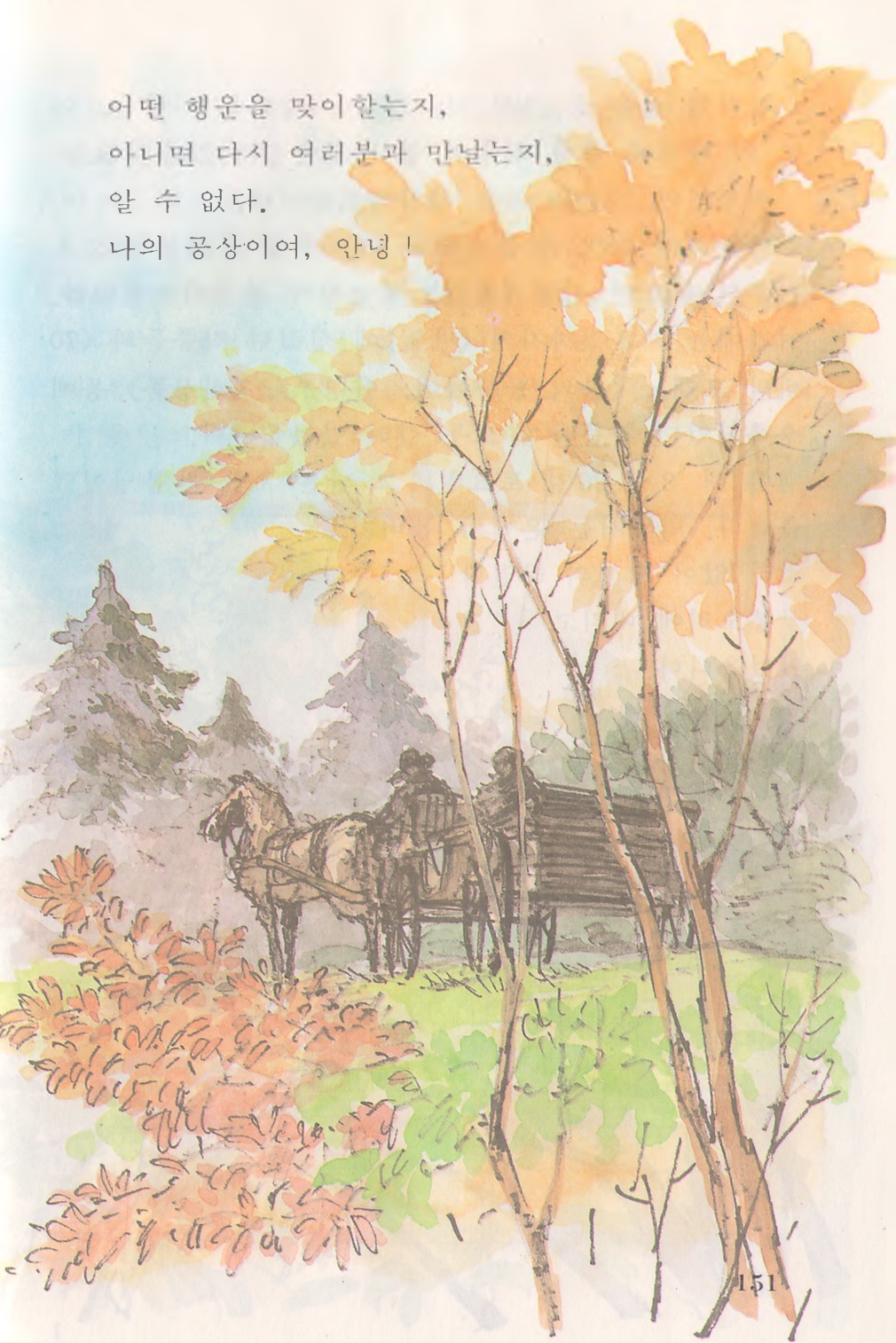
안녕, 나의 벗이여,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

나는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나려 한다.

이 해 여름, 휘트먼은 트라우벨 청년의 노력에 힘을 입어 다시 시와 산문 들을 모아서 《나의 공상이여, 안녕 !》이라는 제목의 책을 엮어, 마케이 출판사에서 간행했습니다. 휘트먼은 이 책이 자기가 세상에 내보내는 최후의 저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듬해인 1891년에는 트라우벨

어떤 행운을 맞이할는지,
아니면 다시 여러분과 만날는지,
알 수 없다.
나의 공상이여, 안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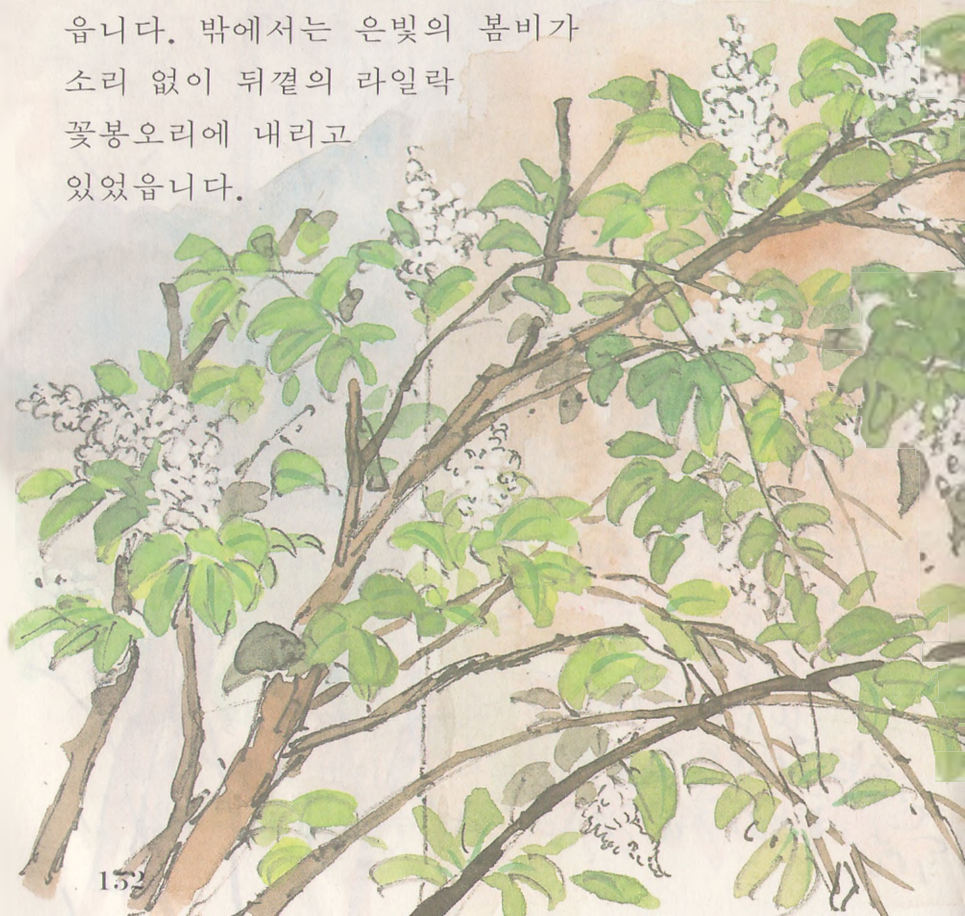


이러한 시는 곧 그의 벗,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 이 세상에 대한 최후의 인사 같은 것이었습니다.

휘트먼의 건강은 차츰 쇠약해졌습니다.

이듬해인 1892년 2월에는 트라우벨 청년의 힘으로 최후의 휘트먼 시집 《풀잎》 제9판이 간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제8판까지의 《풀잎》에 실렸던 작품들과 《70세의 모래》, 《나의 공상이여, 안녕!》, 《회상록》 등에 수록되었던 작품들이 모두 실려 있었습니다.

이 해 3월 26일 토요일, 그 날은 포근한 봄날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은빛의 봄비가 소리 없이 뒤꼍의 라일락 꽃봉오리에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날 저녁 6시 40분, 시인 월트 휘트먼은 트라우벨에게 오른손을 맡긴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때, 휘트먼의 나이는 일흔 셋이었습니다.

장례식은 3월 30일에 거행되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수백 명이 넘었습니다. 활짝 갠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생전에 시인 휘트먼이 사랑하던 구조새가 이해 봄 들어서 이 날 처음으로 울었는데, 그 울음 소리가 유난히 잘 들렸습니다.





그대로, 또 자기의 가슴 속에 떠오른 감정 그대로, 솔직하고 자유롭게 시를 써서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단정한 시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대개가 휘트먼의 이 새롭고 아름답고 자유로운 시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휘트먼의 시를 비난했고, 심지어는 휘트먼의 시집을 난로 속에 쳐넣어 불태워 없애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 속의 다이아몬드를 알아보는 사람이 따로 있듯이, 휘트먼의 시가 훌륭한 것임을 알아보는 사람도 따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의 미국에서 사상가로 이름이 나 있던 에머슨, 도로우 같은 사람들은 휘트먼의 시가 매우 훌륭한 것임을 알아보고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에 힘입은 휘트먼은 더욱더 훌륭한 시를 쓰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를 잘 쓰기 위해서 휘트먼은 아무리 가난하고 고생이 되어도 부자유스러운 직장에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시를 위한 그의 노력, 그의 인내심은 참으로 놀라운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시를 구상하느라고 하루 종일 빈들빈들 노는 것같이 보였을 때, 사람들이 그를 비판해도 그는 모른 채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이상을 노래한 시인

장 문 평

〈문학 평론가〉

미국의 위대한 시인 월트 휘트먼의 생애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는 1819년 5월 31일, 미국 뉴요크 주에 있는 롱아일랜드라는 곳에서, 농부 겸 목수이던 가난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민 학교도 제대로 다 마치지 못하고 중퇴한 뒤에 사동, 직공 등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틈만 생기면 혼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하여 17세 때부터는 국민 학교 교사, 신문사 기자 등으로 지식인 사회에 진출하였고, 30대에는 시집 《풀잎》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미국에서는, 유럽에서처럼 일정한 형식에 따라 고운 말들만 가려서 쓰는, 단정한 시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형식에 매인데다가 고운 말들만을 가려서 쓰는 까닭에, 새로운 미국의 풍경이나 미국 국민의 감정, 또는 세계의 새로운 모습, 민주주의를 희망하는 인류의 새로운 기분,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휘트먼은 그의 시집 《풀잎》에서 농민, 일반 근로 생활자, 노동자 등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비속한 말까지 써서 사기의 머리 속에 떠오른 생각



그런 가운데 그의 시집 《풀잎》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
서까지 널리 읽히게 되었고, 그가 죽기 전해인 1891년 제
9판이 간행될 때 그 시집에 실린 작품은 거의 300편에 가
까왔습니다.

그의 작품은 위에서 말한 것같이 표현이 새롭고 자유로
운 것이었을뿐만 아니라, 과거의 시들이 주로 남녀의 사
랑을 노래했던 것과는 달리 민주주의, 평화, 우정, 그리고
진보 등 사회적인 것이나 문명에 관한 것을 주로 찬미하였
습니다. 그의 이러한 시들은 크게 성공을 거두어, 그 뒤의
많은 시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가 죽은 뒤, 특
히 20세기에 와서는 그의 시를 닮은 새로운 시들이 차례차
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흔히 읽고 쓰고 있는 자유시라는 시
의 형태가 생겨나게 된 데에는, 다름 아닌 이 휘트먼이라
는 위대한 시인의 영향이 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휘트먼
은 미국에서만 위대한 시인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손꼽
히는 위대한 시인입니다. 그의 생애는 끈질긴 노력과 인내
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일깨워 줍니다.

끝으로, 휘트먼의 대표적인 시를 소개함으로써, 그가 과
연 어떤 시인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나는 미국이 노래하는 것을 듣는다

나는 미국이 노래하는 것을 듣는다, 온갖 기쁨의 노래를.
직공들의 노래, 누구나 자기의 노래를 유쾌하게 힘껏 노래한다..

목수는 두꺼운 널빤지나 재목의 칫수를 헤아리며 자기의 노래를 부른다.

석공은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일을 끝마칠 때에 자기의 노래를 부른다.

사공은 배에서 자기의 노래를 부르고, 선원은 기선의 갑판에서 노래한다.

구둑방 직공은 의자에 앉아 일하면서 노래하고, 모자점 직공은 선 채로 노래한다.

나뭇꾼이나 밭에 나가는 젊은이는 아침에 길을 갈 때에도, 낮에 쉴 때에도, 해질녘에 돌아올 때에도 노래한다.

일에 열심인 어머니나 젊은 아내, 또는 바느질이나 세탁을 하는 아가씨는 즐거운 듯이 노래한다.

그들은 제각기 자기만의 노래를 한다.

낮에는 낮과 관련 있는 것을 노래한다. 밤이 되면 들뜬 젊은이들이 소리를 높여 힘껏 가락이 좋은 노래를 한다.

연 표

연대	나이	휘트먼의 생애와 업적	
1819		5월 31일, 미국 뉴우요크 주 롱아일랜드의 웨스트힐즈에서 9남매의 세째로 출생.	
1823	4	가족이 브루클린으로 이사.	
1825	6	브루클린의 공립 국민 학교에 입학. 이 시절 프랑스의 라파이엥 장군 모습을 본 것이 어린 그에게 커다란 감동이었음.	
1830	11	국민 학교를 중퇴. 클라이크 씨의 변호사 사무실에 사환으로 취직.	
1831	12	인쇄소 견습공으로 들어가서 문학 서적을 탐독하기 시작. 셰익스피어의 《리처드 3세》 연극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음.	
1836	17	롱아일랜드 국민 학교 교사로 취직.	
1838	19	주간지 《롱아일랜드러》를 발행.	
1840	21	신문사에서 일함.	
1841	22	단편 소설 《교실의 죽음》 발표.	
1842	23	《오오로라》지 편집장이 됨.	

연대	나이	휘트먼의 생애와 업적	
1846	27	《이이글》지의 편집일을 맡게 됨.	
1848	29	뉴우오올리안즈 시의 《크레슨트》 신문의 주필이 되어 동생 제프와 함께 가서 부임했으나 곧 사표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옴. 《브루클린 프리이먼》 신문 편집을 맡음.	
1855	36	시집 《풀잎》 제1 판을 자비로 출판.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사상가 에머슨으로부터 격찬의 편지를 받음.	
1856	37	《풀잎》 제 2 판 간행.	
1860	41	《풀잎》 제 3 판 간행.	
1861	42	남북 전쟁이 일어남. 상이 군인들을 위문하고 간호함.	
1862	43	전선으로 부상당한 조오지(동생)를 찾아감. 워싱턴 육군 병원에서 부상병들을 위문.	
1865	46	워싱턴 관청에 근무. 링컨 대통령 암살을 애도함.	
1867	48	《풀잎》 제 4 판 간행.	
1871	52	《풀잎》 제 5 판 간행.	

연대	나이	휘트먼의 생애와 업적	
1873	54	1월 23일 밤, 뇌출혈로 쓰러짐. 어머니 사망. 캠덴 시에 있는 동생 조오지의 집으로 이사.	
1876	57	《풀잎》 제 6 판 간행.	
1879	60	가을에 미국 서부를 여행.	
1880	61	바크 박사의 초대로 캐나다를 여행.	
1881	62	《풀잎》 제 7 판 간행. 보스턴 검찰청으로부터 《풀잎》의 판매 중지를 당함.	
1882	63	《풀잎》 제 8 판 간행.	
1884	65	캠덴 시 미클 거리의 2층 집을 사서 이사.	
1885	66	마아크 트웨인 등의 친구들이 돈을 모아 마차와 말을 선물함.	
1888	69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	
1889	70	《70세의 모래》 간행.	
1890	71	최후의 유서를 작성.	
1892	73	《풀잎》 제 9 판 간행. 병세가 악화되어 병상 생활을 계속함. 3월 26일, 캠덴 시 미클 거리의 자택에서 조용히 눈을 감음. 3월 30일에 장례식이 거행됨.	

학습 인명 사전

감 수 / 심 경석 (아동문학가 · 서울 서초국민학교 교장)
 〈무순〉 김 종삼 (아동문학가 · 서울 유석국민학교 교사)
 도 재희 (아동문학가 · 서울 선일국민학교 교감)
 김 일환 (아동문학가 · 서울 당곡국민학교 교사)
 최 영재 (아동문학가 · 서울 사대부속국민학교 교사)

● 소크라테스	162
● 솔로몬	166
● 쇼 팡	169
● 순 자	176
● 슈 만	179
● 슈베르트	183
● 스위프트	186
● 스토헤	189
● 스트라빈스키	191
● 스티이븐슨 (조오지)	195
● 스티이븐슨 (로버트 L.B.)	198
● 시바이찌	203
● 시벨리우스	205

※ 이 인명 사전은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 인명을 중심으로 해서 엮었습니다. 본 전집의 본문에서 다룬 인물에 대해서도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게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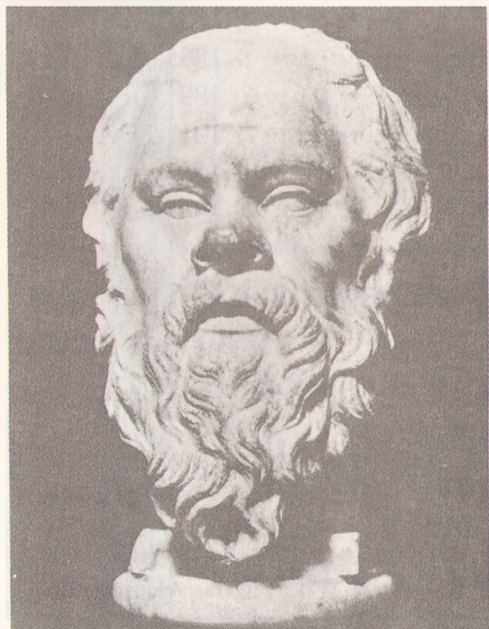
각 인물의 연대별 사실과 나이의 관계는 만(滿)으로 셈하여 통일하고, 특히 생물 연대 등에 대해서, 세계 인명은 《브리태니커 백과 사전》(Encyclopaedia Britannica)을, 한국 인명은 《국어 대사전》(이 회승 편)을 따랐음을 밝혀 둡니다.

소크라테스 (기원전 470~기원전 399)

고대 그리이스의 철학자

인류의 스승으로 존경을 받는 고대 그리이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전반생은 확실하지 않다. 그는 아테네에서 조각가인 아버지와 산파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젊었을 때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각가가 되었으나, 머리가 명석했던 그는 철학책을 읽기도 하고, 소피스트(아테네의 제법 철학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며 진리 탐구에 몰두했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태어났을 무렵의 아테네는, 페르시아 군을 무찌르고 변방을 복속시켜 강대한 도시 국가로 군림하던 시기였다. 그 후, 훌륭한 정치가 페리클레스 등의 힘으로 스파르타와 화평을 맺고, 강력한 해양 제국이 되었으며, 국내는 매우 민주화되어 있었다. 그 무렵, 소크라테스는 혈기 왕성한 청년이었다.

세월이 흘러 소크라테스가 40세쯤 되었을 무렵, 아테네는 또다시 스파르타와 전쟁을 하게 되어, 이른바 펠로폰네소스 전쟁(기원전 431~404년)을 계기로 해서 마치 추풍낙엽처럼 국력이 쇠퇴해 갔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를 위해 몇 차례나 싸움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 공을 세웠다. 자기의 고향인 아테네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에 지자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무너지고, 스파르타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차차 반민주적인 기운이 강해졌다. 그 때까지 민주적인 입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는가 하면, 국외로 추방되기도 했다.

이윽고, 아테네는 민주 정치를 다시 회복했지만, 그는 새로 실시하게 된 민주 정치에는 별로 호감을 느끼지 않았다. 왜냐 하면, 그 무렵의 민주 정치는 노예를 가진, 권력과 돈이 많은 시민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지배 계급을 위한 민주주의였다. 소피스트들이 주장하는, 인간의 생활 태도와 정의에 관한 설도 다만 어떻게 하면 입신 출세를 할 수 있나 하는 편의주의로 끝나 있어서, 인생의 진실을 탐구하는 열의가 부족했다.

이와 같이 타락한 경향에 불만을 품고 있던 소크라테스는, 시대의 흐름이나 권위에 아첨하지 않고,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했다.

철학의 원조인 탈레스를 비롯하여, 그 때까지 수많은 철학자가 주장해 온 철학은 주로 자연이나 우주나 천체를 문제삼은 것이었다. 그러나, 소피스트들은 문제를 인간의 생활, 도덕, 정치, 교육 등 인간 자체의 생활로 옮겨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했다. 즉, 천계에 대

해서 논한 이제까지의 철학 대신에, 인간의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을 일으켰던 것이다.

소크라테스도 역시 문제의 중점을 인간적인 사항에 두고 있었지만, 소피스트들처럼 인간의 생활 태도를 공리적으로 해석하는 철학자는 아니었다. 그가 바랐던 것은 어느 시대, 어느 경우에도 통용되는 진리를 연구하는 일이었다.

사람은 착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착한 일을 하자면 그 착한 일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세상의 관습이나 과거의 전통에 의해서 주어진 지식이란 대단히 불확실한 법이다.

“우리는 먼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데 대화 방법을 사용했다.

대머리와 주먹코의 못생긴 얼굴에 누더기를 걸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모이는 거리나 시장에서 민중에게 호소했다. 권위를 믿지 않고 자기가 믿는 바를 말하는 그의 가르침은 수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런데, 세상에는 거짓말장이라도 있는가 하면 교활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 자기만 잘 되면 남이야 어떻게 되어도 상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겐 옳은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소크라테스가 못마땅했다. 또 신분이 높은 사람들 중에는, 잘난 체 큰소리를 치기도 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체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그러한 가르침을 아니꼽게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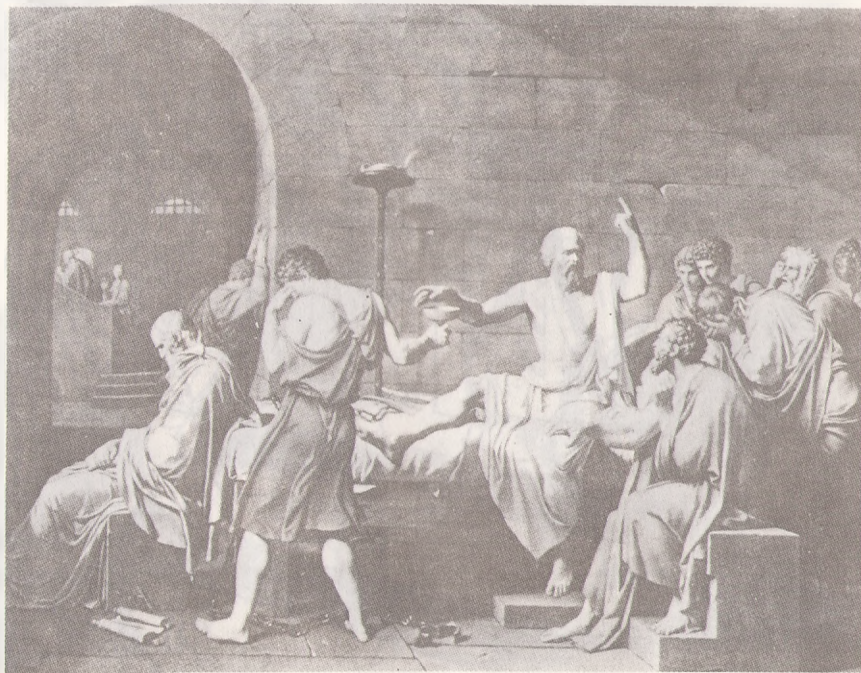
이와 같은 까닭으로 해서 사람들의 반감을 산 그는, 청년을 유혹하고 국가에 해를 끼치는 위험 인물로 간주되어, 마침내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기원전 399년의 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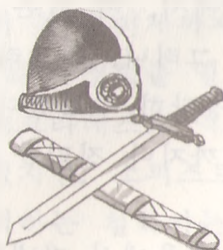
다. 301명이나 되는 판사로 조직된 법정에서, 이 늙은 철학자는 60표의 차로 사형을 언도받았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당당히 주장했다.

“나는 입을 다물지 않을 것이오. 어디까지나 진리를 탐구할 것이오.”

그 후 30일 동안이나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서 지냈다. 친구들은 그에게 국외로 도망가라고 권했으나, 그는 아무리 악법이라도 국가의 법률은 따라야 한다고 말하며 독약을 마시고 조용히 죽었다. 소크라테스에겐 저작이 없다. 말하자면 그의 언행과 사상 자체가 저작이었으며, 그것은 제자인 플라톤, 크세노폰,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쓴 책을 통해서 후세에 계승되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다비드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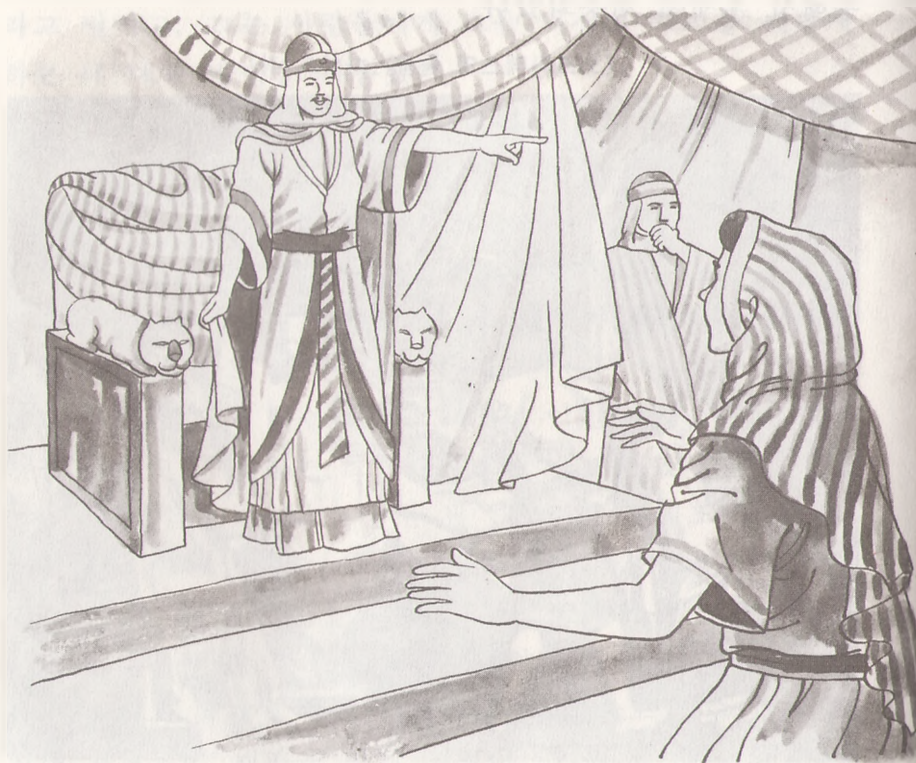




솔로몬 (? ~기원전 922 ?)

고대 이스라엘의 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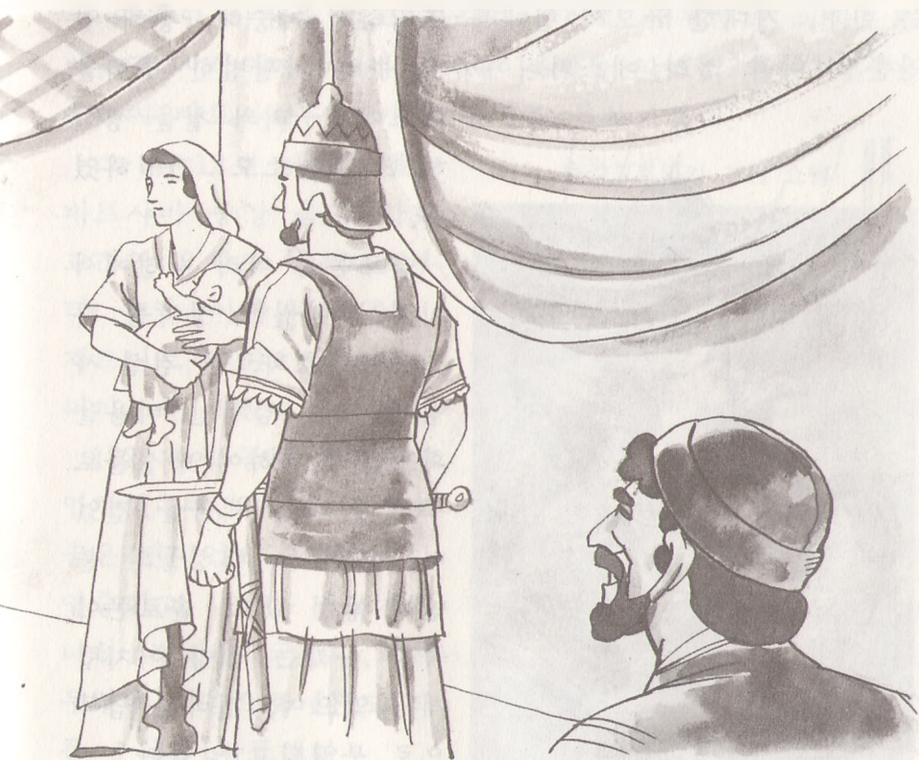
솔로몬은 고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주 지혜로웠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솔로몬의 지혜>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그는 또 이웃 나라들과는 우호 관계를 맺고 무역을 확대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으며, 행정을 개혁하고 군비를 강화하여 이른바 <솔로몬의 영화>를 누렸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막내아들로 태어나, 동북부는 유프라테스 강, 남동부는 아카바 만, 남서부는 이집트에 달하는 광대한 제국을 물려받았다.

솔로몬은 우수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여, 이웃의 여러 나라들과 우호 관계를 맺는 데에 노력했다. 서로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을 썼으며, 자신도 이집트 왕의 공주와 결혼하여 남부 국경의 평화를 유지했다.

오늘날까지도 유명한 이런 일화가 있다. 어느 날,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가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이 나타나서, 솔로몬 왕에게 아기의 진짜 어머니를 가려 줄 것을 애원했다.



그러자, 솔로몬은 칼을 뽑아 들고, 서로 자기의 아기라고 주장하니 아기를 반으로 갈라 각각 가지라고 말하면서 칼을 높이 쳐들었다. 아기의 진짜 어머니는 차마 볼 수가 없어, 자기가 가짜 어머니이니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은 아기의 진짜 어머니를 가려 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호화로운 왕궁과 신전을 세웠는데, 그것들은 오리엔트 문화의 정수라고 일컬어진다.

또한, 적의 침략에 대하여 견고하게 도시를 방어했다.

솔로몬은 또 여러 산업을 부흥시켜 나라의 부를 축적하는 한편, 거대한 규모의 함대를 조직하여 지중해, 홍해 연안뿐 아니라 멀리 에스파니아까지 누비며 활발한 무역을 했으며, 구리와 철을 생산하고 제련소도 건설하였다.



솔로몬은 여러 방면에서 이처럼 탁월한 정치를 하였으나, 호화로운 건설 사업에 드는 엄청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백성들로부터 지나친 세금을 걷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불만이 쌓여 갔고, 솔로몬이 죽자 나라는 금방 어지럽게 되었으며, 결국은 남북으로 분열되고 말았다.



쇼팽 (1810~1849)

피아노의 시인

<피아노의 시인>으로 불리는 프레데리크 프랑스와 쇼팽은 1810년 2월 22일,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근처인 켈라쑈바볼라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1787년에 로렌에서 프랑스어 교사로서 바르샤바에 온 프랑스인이었다. 어머니는 폴란드인으로 피아노의 명수였다. 쇼팽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여, 8세 때에는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하여 바르샤바 사교계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그 후 12세 때, 쇼팽은 바르샤바 중앙 음악 학교 교장인 요제프 엘스너로부터 음악 이론과 작곡을, 지브니로부터는 계속해서 피아노를 배웠다.

1824년에 공립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학과 성적도 좋은 편이었으나 음악에만 열중했고, 장차 작곡가로 나설 결심을 굳혔다. 이 무렵에 처음으로 《론도(작품 1)》를 발표했다.

들라크르와가 그린 쇼팽



17세 때인 1827년, 바르샤바 중앙 음악 학교에 정식 입학하였고, 이듬해에는 아버지의 친구를 따라 베를린을 여행하였으며, 그 곳에서 여러 가곡을 관람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많은 작품을 작곡했다.

특히, 19세 때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작품 11, 12)》이 유명한데, 그것은 그가 바르샤바 중앙 음악 학교 시절에 짝사랑했던, 같은 학교 성악과에 다니던 가수 콘스탄차 글라드코브스카에게 첫사랑을 고백하지 못했던 괴로운 심정을 쏟아부은 작품으로, 《마주르카》《야상곡》 등과 함께 그의 명곡으로 꼽힌다. 나아가서 비인, 바르샤바에서 연주회를 열어 피아니스트로서나 작곡가로서 천재로 불리게 되었고, 이미 어엿한 대가의 한 사람이 되었다.

1830년 20세 때, 그는 큰 희망을 품고 고향인 바르샤바를 떠났다. 이 때,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폴란드의 흙을 채워 넣은 은제(銀製) 컵을 기념품으로 주었다. 쇼팽은 자신이 고국 땅에 묻힐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채, 한평생 그것을 지니고 돌아다니게 되었다.

그 무렵, 폴란드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압제에 견디다 못한 국민들은 비밀리에 독립 운동을 진행했다. 그러므로, 언제 무엇이 폭발할는지 알 수 없는 험악한 분위기였다. 과연 그가 비인으로 왔을 때, 폴란드에서 혁명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 왔다.

이 소식을 듣자, 그와 함께 고국을 떠나 온 친구는 곧 고국으로 돌아갔다. 쇼팽 역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으나, 고국에 돌아가서 혁명 대열에 참가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의 건강

을 염려한 아버지가 비인에 머물라는 편지를 보내 왔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비인에 머물러 있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외로움과 초조감에 사로잡혀 괴로운 나날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1831년, 도이칠란트의 시투트가르트에 들렀을 때, 바르샤바가 러시아 군에게 점령당했다는 슬픈 소식이 날아왔



상드가 그린 쇼팽

다. 그는 거의 기절할 정도로 절망에 빠져들었다. 그 때 작곡한 것이 오늘날 《혁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연습곡 다단조(작품 10의 12)》이다.

그 후, 비인에서의 생활이 뜻대로 되지 않자 런던으로 가기로 했다. 그래서 1831년 9월, 우선 파리에 머물렀다. 그런데, 파리 사람들은 비인 사람들보다 폴란드 인에게 호의를 보여 주었다. 그는 런던으로 가려던 생각을 바꾸어 파리에서 남은 일생을 지내기로 결심했다.

1832년, 파리에서 처음으로 가진 연주회는 대단한 호평을 받았다. 그 때 슈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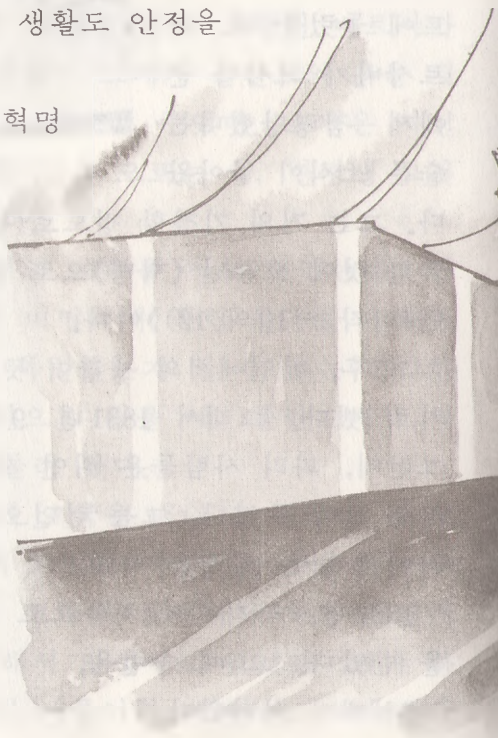
“천재가 나타났다.”



화려한 파리의 살롱에서 연주하는 쇼팽

고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쇼팽은 상류 계층 사람들과도 친숙해져서, 드디어 그의 생활도 안정을 찾게 되었다.

그 무렵의 파리는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정신이 가득 차 있었고, 리스트, 멘델스존, 베를리오즈 등의 작곡가와 피아니스트인 칼크브레너, 모슈레스 등이 활약하고 있었다. 쇼팽은 리스트와 같은 좋은 친구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문학자인 발자크, 위고, 하이네, 화가인 들라크루와 등과 깊이 사귀어, 그들로부터 직접 간접



으로 크게 영향을 받아 차차 인간적인 깊이를 더해 갔다.

쇼팽은 그다지 연주회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교계에서 연주를 하는 한편 피아노의 개인 교수도 했으며, 작곡에 몰두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1832년 무렵부터 서서히 작품을 출판하여 그의 명성은 차차 높아져 갔다. 그의 작품은 거의 모두가 피아노 곡이었는데, 어느 작품이나 풍부한 공상과 정서가 넘쳐 흘러, 화려한 분위기 속에 어둡고 쓸쓸한 그늘이 흘렀다. 애국적인 정열가인 한편, 여성과 같은 섬세한 신경의 일면도 있어서, 그러한 기질이 솔직하게 음악에 표현되었던 것이다.

파리에 와서 1, 2년 동안, 그는 《스케르쑈》《발라드》,



그 밖에 몇 곡의 마주르카를 작곡했다.

1835년에는 몇 해 만에 조국으로 돌아가서 양친을 만났으며, 조국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는 매우 슬퍼했다. 그는 파리로 돌아오는 길에, 드레스덴에 있는 친구의 별장에 들러 친구의 누이동생인 마리아와 알게 되어 약혼까지 했으나 파혼하고 말았다. 《이별의 왈츠》는 마리아와 헤어질 때 작곡한 것으로 유명하다.

쇼팽은 어린 시절부터 그다지 건강한 편이 아니었지만, 그 무렵에 결핵을 앓게 되어, 고독에 잠기는 우울한 나날이 계속되었다.

1836년 겨울, 낭만파의 거장이라 불리는 리스트의 소개로 프랑스의 뛰어난 여류 소설가 조르즈 상드와 사귀기 시작했다. 그 후, 두 사람은 약 3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1837~39년), 해마다 겨울이 되면 지중해의 마조르카 섬

남장을 한 조르즈 상드



으로 요양을 떠났다. 그러나, 그 섬의 더위와 습기는 오히려 쇼팽의 건강을 악화시켰다. 조르즈 상드는 어머니처럼 쇼팽의 신변을 잘 돌봐 주었으나, 성격이 잘 맞지 않았던지 두 사람의 사이는 차차 벌어지기 시작했다.

상드는 화려한 사교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비해, 쇼팽은 내성적

이며 고독을 좋아하는 성품이었다. 드디어 1848년, 둘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겨 상드는 쇼팽에게서 영원히 떠나고 말았다.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진 쇼팽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주로 작곡이나 피아노 개인 교수를 하면서 생활했다.



파리에 있는 쇼팽의 무덤

그러던 1848년 가을, 제자의 도움을 받아 함께 런던으로 연주 여행을 떠났다. 파리에 2월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연주회는 대성공이었다. 그는 온 영국 안의 인기를 독차지하여, 매일같이 연주회를 갖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모진 추위와 짙은 안개로 건강이 아주 나빠진데다 지나치게 무리를 했기 때문에, 쇼팽의 병은 악화되어 가기만 할 뿐이었다. 그리하여 이듬해인 1849년 1월, 파리로 돌아온 후부터 병이 갑자기 심해졌다. 마침내 그는 《말체로의 노래》를 마지막으로 몇몇 친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해 10월 17일에 세상을 떠났다. 피아노 음악에서 낭만파 최고의 작곡가인 쇼팽은 이렇게 39세로 요절했다.

그의 무덤에는 고국을 떠날 때 선물로 받은 한줌의 폴란드 흙이 뿌려졌다.

荀
子

子
子

(기원전 298 ? ~ 기원전 235 ?)

성악설을 주장한 사상가

순자(荀子)는 중국 전국 시대 말기의 사상가이다. 순황(荀況), 순경(荀卿)이라고도 불리며, 옛날 순국(郇國)의 공손(公孫)이었기 때문에 손(孫)씨라는 말도 있어 손황(孫況), 손경(孫卿)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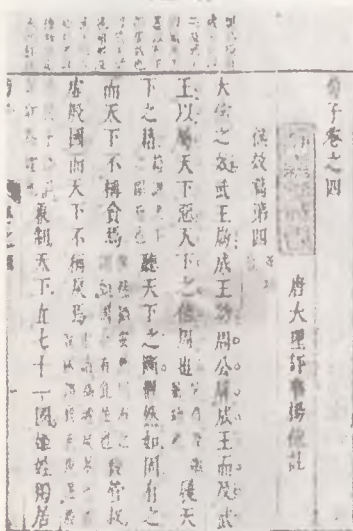
순자는 한때 제(齊)나라의 양왕(襄王)을 섬겼으나 모략을 당해, 초(楚)나라로 가서 춘신군(春申君)을 섬겨 난릉(蘭陵)이라는 곳의 현령(縣令 : 현의 장관)이 되었다.

그러다가 춘신군이 암살을 당하자, 그는 관직을 물러난 뒤 난릉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저작 생활에만 힘썼다. 그

《순자》

는 유가(儒家)의 계열에 속하며, 공자, 맹자, 순자 순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의 저서 《순자(荀子)》는 원래 322편이었는데, 한(漢)나라의 유향(劉向)이 중복된 것을 빼고 12권 32편으로 간추려 《손경신서(孫卿新書)》라고 이름하였다 한다. 뒤에 당나라 양양(楊倞)이 주석을 달고 12권 32편을 20권 32편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순자》이다.



순자는 맹자와 더불어 공자의 도(道)를 이었는데, 맹자는 공자의 도의 주관적인 면, 곧 인(仁)을 이론화한 증자(曾子)와 자사(子思: 공자의 손자)의 계통을 이었고, 순자는 주로 공자의 도의 객관적인 면, 곧 예(禮)를 이론화한 자하(子夏)의 계통은 이은 것이다.

맹자는 인간 본성의 이타적(利他的)인 면을 들어 성선

설(性善說)을 주장하여 인의(仁義)를 내세웠고, 순자는 반대로 인간 본성의 이기적(利己的)인 면을 들어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하여 예의(禮儀)를 내세웠다.

즉,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한 것으로 보고, 도덕적인 수양으로 악의 요인이 되는 물욕을 제거하여 본연의 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 반면, 순자는 악의 근원이 인간 내부에 있다고 보고, 외면적인 예의와 스승의 가르침에 의하여 악한 본성을 선하게 고치자고 주장하였다.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은 그 후의 사상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순자도 공자와 맹자나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는데, 당시 전국 시대의 황폐한 사회와 고생하는 인간의 참상을 보고 성악설을 주장하게 된 것 같다.

순자가 교육을 부르짖으며 학습과 수양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스승과 벗 등 환경과 습관을 중요시한 것은, 바로 인간에게는 동화할 수 있는 화성(化性)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본래 인간의 본성은 악한 것이지만 가르침과 수양으로 선인도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성인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예(禮)에 의해서만이 인간의 본성도 고쳐지고 사회 질서도 정리된다는 것이다.

대개 중국에서는 인간의 모든 길흉 화복(吉凶禍福)이 하늘에 있다고 믿어, 천명(天命)이니 천도(天道)니 하는 사상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다. 그러나, 순자는 인간의 길흉 화복을 하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오직 노력과 수양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즉, 순자는 인간의 선천적인 소질보다는 후천적인 노력을 중시했던 것이다.



슈 만 (1810~1856)

낭만과 음악의 거장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된, 개인의 인격과 사상을 존중하는 움직임은 19세기에 이르러서 낭만주의의 운동으로 나타나 유럽 사회에 퍼지게 되었다.

그것은 먼저 프랑스에서 시작하여 도이칠란트, 영국에 퍼져서 커다란 예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모든 예술 중에서도 문학과 미술이 음악보다도 한 걸음 앞서서 이 운동에 참가하였다.

슈 만

음악 부문에서 낭만파 운동이 뚜렷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베에토벤이 사망한 후인 1830년경부터이다.

낭만파 이전의 음악가들이 음악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데 비해서, 낭만파의 음악가들은 문학, 미술 등 다른 예술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음



악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이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최초의 음악가가 바로 《트로이멜라이》의 작곡자 로베르트 슈만이다.

슈만으로 인하여 비로소 낭만파 음악이 깊이 있는 내용을 갖추게 되었고, 즐기찬 운동으로 번져 나간 것이다.

로베르트 슈만은 바하나 모짜르트 또는 베에토벤처럼 음악가의 가정에서 태어나지는 않았다. 슈만은 1810년 6월 8일, 도이칠란트의 남부 작센 지방에 있는 쾰비카우에서 책방 집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아버지가 책방을 하고 있었던 관계로 어려서부터 문학에 취미를 가졌으며, 어머니로부터는 섬세한 감수성을 물려받아 어린 시절부터 예술적인 재능을 나타냈다.

그는 피아노 치기도 좋아했으므로 마을에 있는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에게 피아노를 배워, 7세가 될 무렵부터 재능을 보이더니 11세 때에는 이미 작곡을 할 수 있었다.

그의 음악적 재능에 깊은 관심을 가진 아버지는, 그 때 마리에나바트에 머물러 있던 베버에게 아들의 음악 교육에 대해 의논을 하였다.

그러나, 그가 15세 때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는 그에게 확실한 장래를 기대할 수 있는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다. 슈만은 어머니의 의사에 따라 음악가를 포기하고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 라이프찌히 대학에 들어갔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남겨서, 그 후 그는 내향적인 성격으로 변해 갔다.

1829년, 슈만은 하인델베르크 대학으로 옮겨 갔으나 음악을 향한 정열은 더욱더 강해질 뿐이었다. 그 후부터는 법률보다 음악 공부에 더 기울어져 갔으며, 하이델베르크 대

학에서는 피아노를 잘 치는 학생으로 이름을 날렸다.

1830년, 음악가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어머니를 설득하여 다시 라이프찌히로 옮겨 갔다. 라이프찌히로 오자, 그 무렵에 유명했던 음악가 프리드리히 비이크의 집에 기숙하며 피아노를 배우는 한편, 도른한테서 작곡을 배웠다.

그러나, 잘못된 피아노 연습법 때문인지 오른손 약손가락의 힘줄을 다쳐 피아니스트의 꿈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작곡이나 음악 평론을 하기로 결심했다.

슈만은 섬세한 감수성과 예리한 지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후년에 이르러 많은 작곡을 했으며, 브라암스에 대한 《새로운 길》이라는 평론을 비롯한 많은 음악 평론을 썼다. 이리하여 멘델스존이나 쇼팽, 브라암스 등의 음악을 세상에 널리 소개한 공적이 크다.

비이크의 집에 기숙하고 있을 때, 스승의 딸인 클라라와 사귀게 되었는데, 1840년에 드디어 결혼했다. 클라라



도 훌륭한 피아니스트였으며, 1838년에 그녀는 슈만의 피아노 곡을 처음으로 공개 연주하여 성공을 거둔 일이 있었다.

슈만은 결혼할 때까지는 거의 피아노 곡만 작곡했는데, 결혼 후에는 피아노 곡 외에 가곡이나 교향곡도 작곡했다.

먼저 가곡에 손을 대기 시작하여 1년 동안에 《밀테의 꽃》 《여자의 사랑과 생애》 《시인의 노래》 등의 걸작을 쓰고, 1941년에는 최초의 교향곡인 《교향곡 제1번》을 작곡했다. 이 해에 멘델스존이 슈만의 《교향곡 제1번》을 지휘하여 친교를 맺었다. 그리고, 1843년에는 슈만을 라이프찌히 음악원의 교사로 맞이했다.

이 무렵부터 슈만에게 신경 쇠약의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1844년, 클라라와 함께 러시아로 연주 여행을 하고 돌아온 후에도 **드레스덴으로 옮겨** 가 합창 운동을 한다는 지 지휘자가 되기도 했으나, 신병 때문에 오래 계속하지는 못했다.

1854년 2월 6일, 병이 갑자기 악화된 슈만은 친구들이 모여 있는 방에서 빠져 나가 한겨울의 라인 강에 몸을 던졌다. 다행히도 사람들에게 구출되어 본 근처의 엔데니히 정신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1856년 7월 29일, 46세로 세상을 떠났다.

슈만은 뛰어난 음악가였을뿐더러 교양이 높은 훌륭한 예술가이며, 인자하고 사랑이 깊은 사람이었다. 문학과 철학에 깊은 흥미를 가진 슈만은 새로운 음악으로서 최초로 포제 음악을 탄생시켰고, 3백여 편의 아름다운 가곡 외에 교향곡, 실내악곡, 합창곡 등을 작곡하여 초기 도이칠란트 낭만파 음악의 터전을 마련했다.



슈베르트 (1797~1828)

가곡의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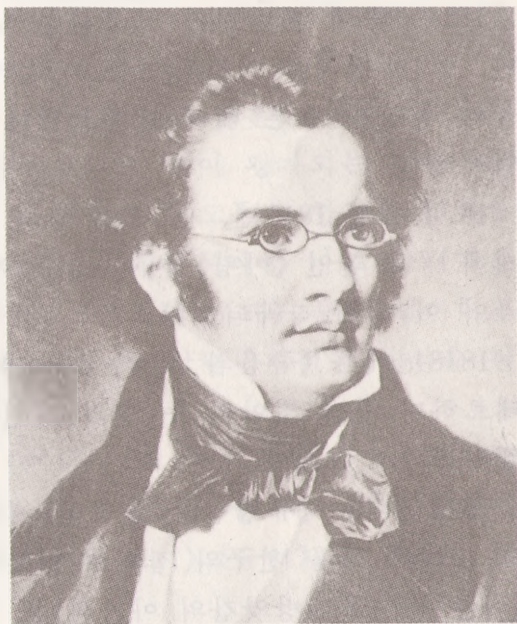
오스트리아의 작곡가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슈베르트는 1797년 1월 31일, 비인의 리히텐타아르에서 태어났다. 도이칠란트의 실레지엔 출신인 그의 아버지는 당시 국민 학교 교감으로 있었으며, 어머니 역시 실레지엔 출신으로 요리사였다.

슈베르트는 열 네 명의 남매 중에서 열 세 번째였는데, 그 중 아홉 명은 어린 시절에 죽었다.

일찍이 슈베르트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한 그의 아버지는 슈베르트가 6세 때부터 피아노 교습을 시켰으며, 8세 때에는 바이올린 교습을 시켰다.

1808년 11세 때, 시립 콘빅트(궁정 악사 양성소)에 들어가 음악적인 재질을 인정받았고, 그 곳에서 이탈리아 인 궁정 악장 살리에리의 지도를 받

슈베르트





아 몇 곡의 작품을 작곡하였다.

1814년부터 아버지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조교사로 일했다. 이 해에 《바 장조의 미사곡》을 작곡하였는데, 바로 이 곡의 독창을 부른 테레제 글로브는 슈베르트의 첫번째 애인이었다.

18세 때인 1815년, 백 수십 곡의 가곡을 썼는데, 괴테의 시에 곡을 붙인 《마왕》《휴식 없는 사랑》《들장미》등의 명곡이 이 해에 작곡되었다.

1818년에는 《죽음과 소녀》《승어》를 작곡하였으며, 에스테르하지 공작 집안의 두 딸의 가정 교사가 되어 한여름을 쾰리츠에서 보냈다.

1823년에는 《유랑인의 환상곡》《로자문테》등을 발표했고, 그 해 여름 친구의 집에서 읽은 밀러의 시에 감동되어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를 작곡하였다.



1827년, 30세가 되자 자신의 인생이 겨울을 맞았음을 느낀 듯 《겨울 나그네》를 작곡하였고, 이듬해인 1828년 11월 19일, 장티푸스로 비인에서 사망했다.

그는 31세라는 짧은 생애에 수없이 많은 가곡과 기악곡, 교향곡을 작곡했는데, 무엇보다도 높이 평가되는 것은 650곡에 이르는 가곡이다. 이 가곡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아름답고 주옥 같은 작품들이지만, 특히 《겨울 나그네》《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백조의 노래》 등은 멜러디의 아름다움, 화성의 미묘한 변화 등 낭만주의적인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교향곡으로는 제 8번 《미완성》이 특히 유명하고, 피아노곡으로는 《유랑인의 환상곡》《악흥이 일 때》 등이 알려져 있으며, 실내악곡에도 《죽음과 소녀》《송어》 등 걸작이 많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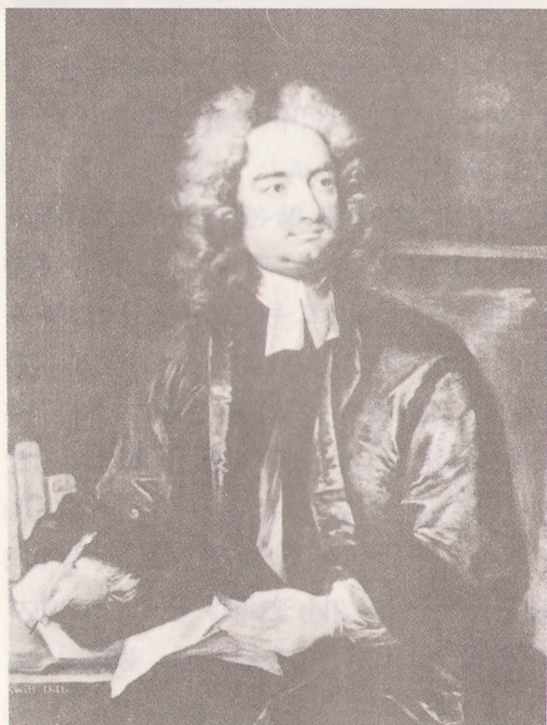
스위프트 (1667~1745)

《걸리버 여행기》를 쓴 사람

《걸리버 여행기》는 전세계의 어린이들이 즐겨 읽는 소설이다. 이 소설의 원작자가 조너던 스위프트이다.

스위프트는 에이레의 더블린에서 출생했다.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인생의 시초부터 남의 손에서 자랐다. 삼촌이 돌봐 주어서 더블린 대학을 나오자, 먼 친척뻘이 되는

스위프트



유명한 정치가 윌리엄 템플의 비서가 되어 윌리엄 가에서 살았다. 그는 여기서 충실히 공부를 해서, 《서적 싸움》과 《통 이야기》 같은 색다른 소설을 썼다.

당시, 영국에서는 휘그 당과 토리 당이라는 두 정당이 정권을 다투고 있었다. 그는 그 다툼에 말려들어 토리 당에 입당하여 팜플렛을



써서 열심히 논전(論戰)을 했다.

불을 내뿜는 듯이 통렬한 그의 문장은 토리 당으로 하여금 정권을 차지하게 만들었고, 그로 하여금 사교계의 인기를 독차지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의 정의감은 정적(政敵)뿐만 아니라 그의 소속 당 사람들도 두려워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미워했다. 이 편견만 버린다면 사회는 아름다와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 후, 앤 여왕이 세상을 떠나 토리 당은 쇠퇴하고, 그의 활약도 부질없는 것이 되자, 고향 더블린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의 정신력은 여전히 쇠퇴하지 않아 꾸준히 세상의 부정이나 잘못과 싸웠으며, 영국 정부에 시달리고 있는 에이레를 위해 정부를 공격했다.

이런 가운데 1726년에 유명한 《걸리버 여행기》를 출판했

다. 이것은 정말 재미있는 소설이다. 그런데, **스위프트**는 어째서 이런 기묘한 소설을 썼을까? 이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배꼽을 쥐고 웃을 것이다. 그러나, **스위프트**가 이 소설을 쓴 것은 단순히 재미만을 위해 쓴 것이 아니었다. 달리 생각하는 바가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인국이라든가 대인국, 말나라 등 판판으로 다른 환경 속에 인간을 데려와서, 인간의 잘난 체하는 모습, 어리석은 짓, 추악한 짓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가를 묘사해 보인 것이다. 요컨대, 인간 전체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이다. 《걸리버 여행기》가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강하게 호소하는 것은, 것처럼 인간의 모습과 인생을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훌륭하게 묘사했기 때문이다.

스위프트는 만년에 정신 이상이 되어 폐인이 된 채, 78세를 일기로 불행한 일생을 마쳤다.

스위프트의 풍자적 작품 《마아틴의 변덕》을 그린 만화





스토우 (1811~1896)

《앵클 톰즈 캐빈》의 작가

해리에트 비이처 스토우는 미국의 여류 소설가, 노예 해방론자로서, 노예 생활의 참상을 그린 《앵클 톰즈 캐빈》을 써서, 당시 사람들에게 강렬한 충격을 주어 노예 해방을 촉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스토우는 코네티컷 주의 리지필드의 엄격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스토우는 신과 의무와 부모에의 절대적 복종이라는 규율 속에서 강압적으로 자랐다.

어머니는 스토우가 네 살 때 죽었는데, 그녀는 어머니의 온화한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한다.

스토우 부인

외양선의 선장인 집안 아저씨가 가끔 찾아와 여러 가지 모험담을 들려 주는 것이 유일한 오락이었으며, 그 밖에는 모두 엄격한 규율로 가득 찬 가정이었다.

1832년, 스토우의 집안은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로 이사하였다. 아버지는 그곳 레인 신학교의 교장으로 일했고, 스토우의 언니는 그곳에 여자 전문 학교를 세웠



다. 스토우는 그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1834년 무렵부터 스토우는 잡지사에 글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뉴잉글랜드 소묘(素描)》라는 글로 상금 50달러를 받은 적도 있었다.

1836년, 스토우는 레인 신학교의 교수와 결혼하였는데, 풍족한 생활이 아니었다. 게다가, 아이가 7명이나 생기고 보니 살림은 더욱 쪼들렸다. 그래서, 스토우는 그 후 16년간 계속 소품들을 쓰게 되었다.

그러던 중 남부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 그 곳 노예 제도의 실태를 보고 돌아왔다. 1850년, 남편이 메인 주로 옮기게 되자, 그 곳으로 이사한 후부터 스토우는 남부 여행에서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앵클 톰즈 캐빈》의 집필에 착수했다.

이 소설은 1851년부터 1852년까지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 신문 《내셔널 이러》에 연재된 후 단행본으로 나왔는데, 일주일 만에 1만 부, 1년 만에 30만 부, 5년 만에 미국에서만 50만 부를 돌파했다고 한다.

이 소설은 앵클 톰이라는 흑인 노예가 처음에는 인정 많은 농장 주인을 만나고, 두 번째는 점잖은 신사를 만났으나, 세 번째는 악독한 주인을 만나 비참하게 죽게 된다는 내용이다. 노예를 부리고 있는 남부에서는 비난이 들끓었으나, 북부와 영국, 유럽 등지에서는 대단한 호평을 얻었고, 외국어로 번역도 되었다.

다음 작품 《드레드》도 노예 소설로서, 《앵클 톰즈 캐빈》보다는 못했지만, 영국에서만도 한 달에 10만 부가 팔렸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그녀는 세계적인 명성과 함께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다.



스트라빈스키 (1882~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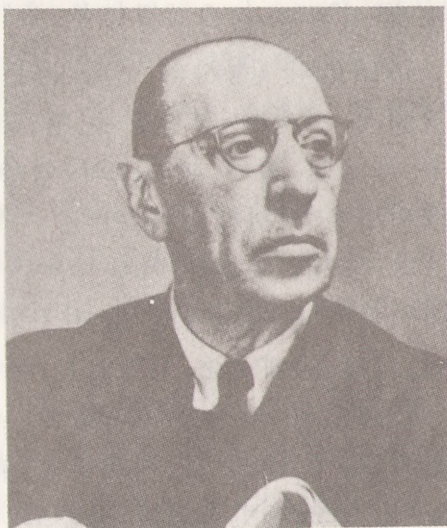
개성적인 현대 작곡가

이고르 페도로비치 스트라빈스키는 러시아 출신의 미국 작곡가로서, 그 개성적이고 풍부한 음악으로 20세기 현대 음악에 말할 수 없는 공헌을 하였다. 스트라빈스키는 1882년 6월 17일, 페테르스부르크(현재의 레닌그라드) 근처 오라니엔바움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러시아 왕실 가극단의 유명한 베이스 가수였다. 스트라빈스키는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고, 마린스키 극장에서 공연되는 발레와 가극을 자주 관람했다.

그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지만,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음악에 헌신할 것을 결심하고, 친구의 아버지이자 당시 러시아의 지도급 작곡가인 립스키이-코르사코프를 찾아가 의논했다. 립스키이-코르사코프는 그를 제자로 삼아 개인 지도를 해 줄 것을 승낙했다.

1908년, 러시아의 유명한 예술 운동가인 디아길레프는 스트라빈스키의

스트라빈스키



《환상적 스케르쑈》와 《불꽃》을 듣게 되었다.

그는 스트라빈스키의 작품에 너무 감동하여, 러시아 발레단의 1910년 공연 작품의 음악을 써 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유명한 《불새》이다.

《불새》는 러시아 발레단이 파리에 갔을 때인 1910년에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은 다채로운 빛과 감미로움을 완전히 소화시켜, 거기에 그 자신의 독창을 섞은 뛰어난 작품이다. 《불새》가 발표되면서 스트라빈스키는 갑자기 유명해졌고, 러시아 발레단을 위한 음악을 계속 작곡하게 되었다.

《불새》《페트루시카》《봄의 제전》 등 세 발레 음악은 스트라빈스키가 세계적인 작곡가의 지위를 확고하게 차지하도록 해 주었다.

1914년, 제 1 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러시아 발레단은 해체되었다. 전쟁중에 스위스에 머무르게 된 스트라빈스키는 소설가이며 시인인 샤를 페르디낭 라뮈와 협력하여 훌륭한 작품을 썼다.

1918년의 《병사의 이야기》는 현대의 많은 작곡가와 연주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중요한 곡이다. 스트라빈스키는 친구인 화가 피카소의 영향을 받아, 이 곡에서 새로운 대위법을 구사했던 것이다.

그 무렵, 《결혼》이란 곡이 완성되었다. 《봄의 제전》의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힘과 《병사의 이야기》의 현대적 세련이, 《결혼》에서는 꾸밈없는 사랑의 구가로 결합한 것이다.

1917년의 러시아 혁명으로 스트라빈스키는 조국에서 추방되었고, 1929년, 세계적인 불황 시대에 디아길레프도 죽었다. 스트라빈스키의 작품도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있었



다.

1934년, 스트라빈스키는 프랑스의 시민권을 얻었다. 당시 프랑스에서의 생활은 매우 불안정했으며, 그의 정신도 혼란되어 있었다. 그 때, 시인 발레리, 철학자 마르탱, 철학자이며 비평가인 피에르 등의 친구들이 그에게 정신적인 안정을 되찾게 해 주었다.

1930년의 《시편 교향곡》은 《봄의 제전》 이후 처음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1936년의 《카아드 파아티》는 미국 발레단을 위해 작곡된 음악이며, 독특한 그의 개성이 여실히 나타나 있다.

1939년, 그의 어머니와 아내가 죽었고, 이어 제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다. 스트라빈스키는 대중 음악에 새로운 관심을 느껴, 몇 개의 소품을 만들기도 했다. 1946년에 우

디 허먼 악단을 위해 쓴 《에보니 협주곡》은 대단한 인기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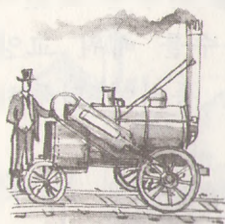
그러다가, 역시 러시아 출신이며 뉴우요오크 시립 발레단을 이끌고 있는 조오지 발란신과의 사이에, 디아길레프와의 사이 이상으로 협력 관계가 생겨, 둘은 공동 작업을 전개했다. 1947년의 발레 음악 《오르페우스》는 대단한 성공을 거둔 작품이다. 1953년에서 1957년에 걸쳐 작곡한 《아곤》도 발레 음악이다. 뉴우요오크 시립 발레단은 스트라빈스키의 여러 곡에 빛을 주어, 그를 다시 유명하게 했다. 힘을 얻은 스트라빈스키는 마침내 대작 가극 《방탕아의 행로》에 착수하여, 1951년에 완성하였다. 이 가극은 세계 각국에서 상연되어 굉장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 후로도 그는 끊임없이 꾸준한 작품 활동을 했고, 만년에는 종교적이고 환상적인 작품을 많이 썼다. 그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최대의 예술가> 또는 <현대 최고의 음악가>로 여러 비평가와 예술가들의 칭찬을 받았다. 또, <당대의 대예언자>로도 불렸다. 그것은 스트라빈스키의 인생과 예술 그 자체가 항상 미래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길이든 뚜렷한 표시와 안전 보장이 되어 있는 길이다. 나 자신은 멀고 먼 길을 돌아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거의 후회하지 않는다. 돌고 도는 길이라도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즐거운 법이며, 어느 고속 도로보다도 한결 좋다. 빠른 자가 항상 이긴다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의 말은, 그가 얼마나 끈기 있게 살아 왔는가를 가르쳐 준다.

그는 89세의 고령으로 뉴우요오크에서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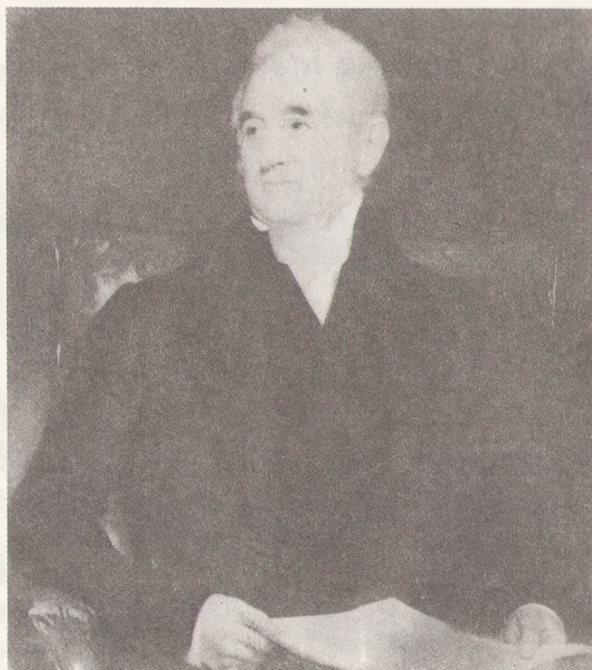
스티이븐슨 (1781~1848)

증기 기관차의 발명자

조오지 스티이븐슨은 잉글랜드의 탄광지 뉴우카슬에서 가까운 와일럼에서 태어났다.

그 무렵, 증기 기관이나 방적기가 발명된 영국에서는 석탄이 많이 필요할 때여서, 탄광 지방인 이 곳도 활기를 띠었다.

아버지는 마을 탄광에서 양수 펌프의 화부로 일하고 있었다. 집안이 가난했던 스티이븐슨은 8 세 때 탄광에서 일



조오지 스티이븐슨
1814년, 진퇴(進退)가
자유로운 증기 기관차
를 발명했다.

하게 되었으며, 16세 때에는 증기 기관의 화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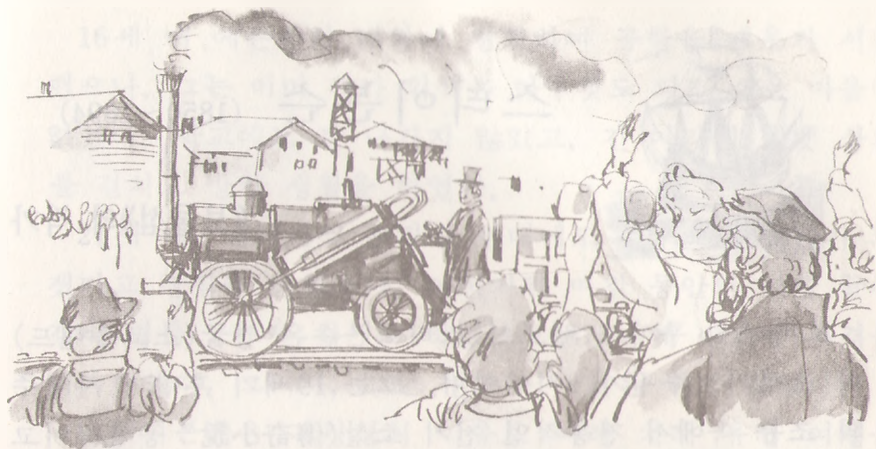
그는 틈틈이 읽기와 쓰기와 그리고 산수를 배워 교양을 넓혔고, 기계에 관한 지식은 이미 독학을 통하여 터득하고 있었다.

1802년에 결혼한 그는 이듬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훗날 아버지를 도운 훌륭한 기술자 로버트 스티이븐슨이다.

얼마 후, 그는 화부장이 되고 다시 기술 감독이 되었으며, 1810년에는 광산용의 안전등을 발명하기도 했다. 한편, 석탄을 빠른 속도로 많이 운반할 수 있는 증기 기관을 만들어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트레비딕의 증기 자동차 등 몇 종류의 증기 기관차가 있었지만, 아직 완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레일 위를 달리는 기관차의 제작에 착수하여, 1814년에 진퇴(進退)가 자유로운 기관차의 시운전에 성공했다. 그러나, 주위의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8년





후인 1822년에야 겨우 주목을 끌게 되었다. 북부 헤튼 탄광에 처음으로 철도가 부설되어, 그가 만든 기관차 <철마>가 달리게 되었던 것이다.

계속해서 1823년에는 다알링턴과 스톡턴을 잇는 철도의 건설에 착수하여, 1825년에 완성했다. 또한, 다알링턴의 탄광주 에드워드 비이스와 함께 뉴우카슬에 세계 최초의 기관차 공장을 만들기도 했다.

한편, 스티이븐슨은 일생을 건 대사업인, 리버풀과 맨체스터를 잇는 45킬로미터의 철도 건설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 철도의 부설로 생업을 잃고 실직하게 되는 많은 주민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고, 더구나 66개나 되는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다 리버풀의 지하를 통과하는 2킬로미터나 되는 터널을 파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드디어 1830년 9월 15일, 그가 만든 기관차 <로켓 호>가 리버풀에서 맨체스터 사이를 멋지게 달렸다.

스티이븐슨은 그 후에도 67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칠 때까지 철도 연구를 중단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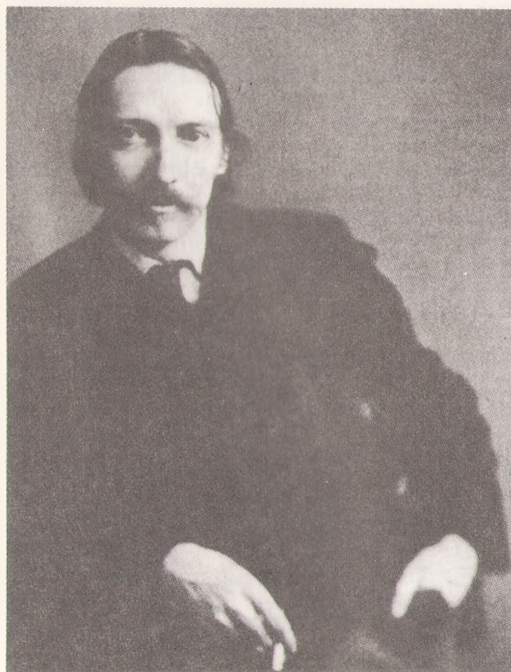


스티이븐슨 (1850~1894)

《보물섬》의 작가

로버어트 루이스 벨포어 스티이븐슨은 영국(스코틀랜드)의 소설가, 수필가, 시인이다. 그는 19세기 후반의 사실주의 조류 속에서 전통적인 전기 소설(傳奇小說: 공상적이고 기이한 일을 주제로 하여 흥미 본위로 쓴 소설)을 부활시켜, 《보물섬》《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등의 환상적이고 상징적인 걸작을 발표하여 이름을 남겼다.

스티이븐슨



스티이븐슨은 1850년 11월 13일,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유명한 등대 설계가이자 항만 기술자였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했으며, 나중엔 폐결핵으로까지 번졌다.

그의 환상적인 이야기들은 병약했던 어린 시절부터 꿈꾸어 온 것인지도 모른다.

16세 때 에든버러 대학에 입학하여 공학을 배우기 시작했으나, 그는 이미 작가 외에는 아무것도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학교에도 잘 나가지 않았고, 긴 머리에 벨벳 상의를 걸치고 방랑 생활을 하였다.

21세 때,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되겠다고 결심을 굳혔으나, 아버지와 며칠 동안의 타협 끝에 결국 법률 공부를 하기로 하였고, 1875년에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그는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았다.

스티이븐슨은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차례 유럽 여행을 했는데, 학업을 마친 후로는 더욱 빈번히 스코틀랜드 여러 지방과 런던, 파리 등지를 여행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과 사귀게 되었다.

1878년에 출판한 그의 첫번째 책 《내륙 기행》은 당시 프랑스의 운하와 강을 카누우를 타고 여행했던 경험을 기록한 기행문이다.

1877년, 스티이븐슨은 프랑스에서 알게 된 퍼니라는 미국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퍼니는 남편이 있는 여자일 뿐만 아니라 이미 두 아이의 어머니였고, 스티이븐슨보다 나이도 10세 위였다.

1878년, 퍼니는 미국으로 돌아갔고, 1년 뒤에는 스티이븐슨도 미국으로 건너갔다. 마침내 퍼니는 남편과 이혼하고 1880년 5월에 스티이븐슨과 재혼하였다. 두 사람은 결혼 후, 폐허가 된 어느 광산의 캠프에서 살았는데, 1883년에 발표한 《실발라드의 무단 거주자》라는 작품에 그들의 그 때 생활이 잘 묘사되어 있다.

결혼 1년 후, 그는 건강을 회복하여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으나, 기후가 맞지 않아 곤란을 겪다가 4년 후에 스위



스, 남 프랑스 등지에서 요양을 했다.

이 때부터 수년간 그는 왕성한 창작 활동을 했다.

1881년의 《소년 소녀들을 위하여》, 1882년의 《사람과 책에 대하여》 등의 수필집을 통하여 스티이븐슨은 수필가로서도 완숙한 경지에 들어섰음을 보여 주었다. 그는 일상의 사건이나 생각을 꾸밈 없고 쉬운 문장으로 평온하게 그렸다.

이 밖에도 초기 소설로는 《신 아라비안 나이트》(1882)가 있는데, 공상적 모험과 참신한 문체, 그리고 색다른 분위기를 표출해 냈다.

그의 대표작 《보물섬》(1883)은 원래 아동 잡지에 2년

동안 연재되었던 소설이며, 그의 명성을 세계적으로 퍼지게 한 작품이다. 또, 어린이를 위한 시집에 《어린이 노래 동산》(1885)이 있다.

1887년 5월, 스티이븐슨은 아버지가 사망하자 또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정양을 하기 위하여 뉴우요르크 주의 애디런택 산중 새러닉 호숫가에서 1888년까지 지냈다.

1889년에는 가족들을 데리고 남태평양의 여러 섬을 여행했다. 그러다가 사모아 섬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 곳 기후가 그에게 맞았던지 그는 비교적 안정된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원주민들과 친해져 나중에는 섬의 행정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1896년의 《남태평양에서》는 사모아 섬 사람들의 생활을 관찰한 작품이다. 또, 비슷한 것으로 《섬에서의 밤의 즐거움》이 있다. 여기서는 사모아 원주민과 유럽 사람들의 생활 양식, 방법 등이 다른 것을 묘사하여 지금도 흥미있는 읽을거리로 전해진다.

후기의 작품으로는 《발란트레 가(家)의 후계자》가 있는데, 전





기 소설의 요소가 한층 더 세련된 경지를 보이고 있는 작품이다.

스티븐슨은 1894년 12월 3일, 뇌일혈로 44세의 생애를 마쳤다. 쓰다가 채 완성하지 못한 작품이 있었는데, 이 작품은 기법적으로 한층 발전한 것이며, 배경에 스코틀랜드의 전설이 깊이 깔려 있어, 완성했다라면 아마 스티븐슨 최고의 걸작이 되었을 것이다.

스티븐슨의 작품은 대체로 깊은 맛이 없다고 경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빅토리아 여왕 후기의 퇴폐적인 경향 속에서 참신한 문체로 빛나는 이야기를 창조했다는 공적은 잊을 수 없다.

스티븐슨이 주로 환상과 공상을 사용하여 작품을 꾸민 것은 그의 어렸을 때의 유모 탓이라고도 한다. 그는 몸이 허약해서 나가 놀지도 못하고 늘 유모 곁에서 신기한 전설 따위를 들었다. 이런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그의 상상력을 넓혀 주었고, 그는 마침내 세계 어린이가 좋아하는 위대한 작가가 된 것이다.



시바이썬 (1875~1965)

아프리카 흑인의 아버지

20세기 최대의 성인으로 불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아프리카에서 활약한 알베르트 시바이썬은 도이칠란트의 알사스 지방(지금은 프랑스 령)에 있는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알베르트는 일찍부터 음악에 천분을 나타내어, 9세 때에는 벌써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자의 대리 역할을 할 정도였다. 국민 학교에 들어간 알베르트는 음악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성적이 좋지 않았으나, 노력 끝에 당시의 시트라스부르크 대학에 입학했다.



람바레네의 병원에서
흑인을 진료하고 있는
시바이썬

대학에서는 신학과 철학을 전공하였는데, 칸트와 헤겔 등의 저서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그리스도 교를 연구하여 자신의 사상을 쌓아 갔다.

21세 때, 시바이찌는 이렇게 굳게 맹세했다. ‘30세가 될 때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위해서 정진하자. 그 후는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치자.’

어느 날, 그는 어느 책을 통해 아프리카 흑인들의 비참한 생활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프리카에 건너가, 선교사로서보다도 의사로서 병으로 고통을 받는 그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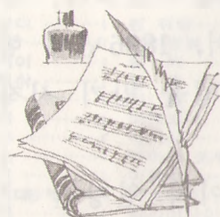
그래서, 30세의 나이에 다시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의사가 된 그는 1913년 3월,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아내를 데리고 아프리카로 건너가 적도에 가까운 람바레네에 도착했다. 언덕 아래에 있는 전도소 본부에 자리를 잡은 시바이찌는 곧 활동을 시작하였다.

타는 듯한 태양이 내리쬐는 가운데 무서운 전염병과 싸우면서 흑인들을 진료하여 이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 냈다. 흑인들에게는 말라리아, 줄음병, 이질 등의 병이 많았으며, 때로는 수술을 해야만 할 경우의 병도 있었다.

시바이찌는 의사로서 병을 고치는 일 외에 미신을 깨우치기도 하고 흑인들의 싸움을 화해시키기도 했다. 또한, 그들과 벗이 되어 하루의 일이 끝나면 피아노로 그 날의 피로를 풀었다.

마침내 이 <아프리카의 성자>에게 1952년도 노벨 평화상이 수여되었다. 그는 그 후에도 아프리카 흑인의 의료와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다가 1965년 9월 5일, 람바레네에 있는 시바이찌 병원에서 90세의 생애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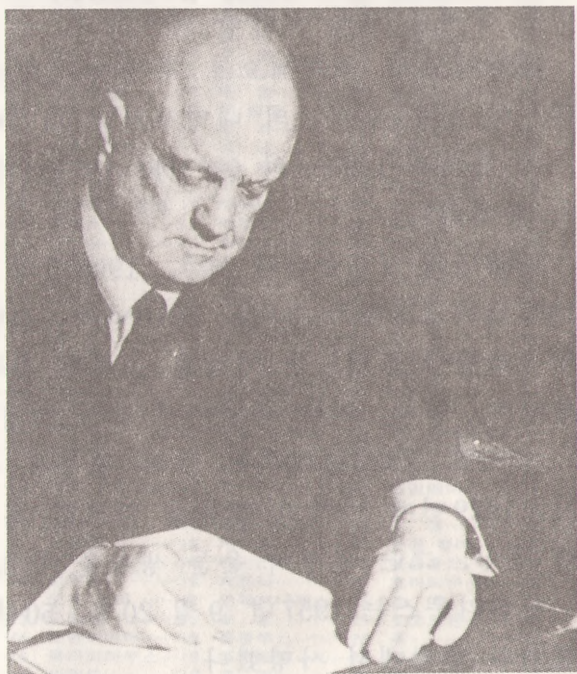
시벨리우스 (1865~1957)

핀란드의 대표적 작곡가

얀 울리우스 시벨리우스는 핀란드의 대표적 작곡가이다. 그는 도이칠란트 낭만파의 영향을 받은 교향시를 비롯하여 국민주의적 민족 정신을 담은 작품을 많이 작곡하여, 핀란드 국민 음악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또 20세기의 새로운 음악 운동에 동요되지 않고, 그가 살고 있는 북 유럽의 황량한 자연의 정취를 정통적인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시벨리우스는 1865년 12월 8일, 군의관인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던 하멘린나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음악을 좋아하는 집안이었어서 시벨리우스는 9세 때부터 피아노를 배워 다음 해부터는 직접 작곡을 했고, 15세 때부터는 바이올린도 배웠다.

핀란드 국민 음악의 아버지 시벨리우스



그는 헬싱키 대학에 입학하여 법학을 공부했으나, 음악에 대한 매력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1886년에 헬싱키 음악원에 입학하여 본격적인 음악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시벨리우스는 헬싱키 음악원의 설립자이자 원장인 마르틴 베겔리우스의 지도로 차츰 재능을 발휘하였다. 음악원을 마치자 시벨리우스는 1889년에 베를린으로 유학하여 알베르트 베크에게서 배웠으며, 1890년에는 비인으로 가서 로베르트 폭스와 카알 골트마르크로부터 수업을 받았다.

1891년에 핀란드로 돌아온 시벨리우스는 이듬해인 1892년, 독창과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칸타타 《쿨레르보》를 발표함으로써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 곡은 핀란드의 민족 서사시 《칼레발라》를 주제로 한 작품이며, 그 후에도 그는 이시를 주제로 많은 작품을 작곡했다.

1899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핀란드아》를 작곡했는데, 이 곡은 핀란드의 대명사처럼 되었다.

이 밖에도 1893년의 《전설》, 1895년의 《4 개의 전설》 등이 유명하다.

1906년의 《포올라의 딸》, 1909년의 《친근한 목소리》, 1907년의 《교향곡 3 번》, 1910년의 《교향곡 4 번》, 1914년의 《교향곡 5 번》 등 여행을 통하여 작곡된 작품들은 도이칠란트, 영국, 미국 등지에서 크게 성공했다.

그러나, 1920년대부터 그의 활동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1929년에 마지막 작품을 발표한 후 죽을 때까지의 28년 동안, 그는 완전히 은둔 생활을 하였다.

시벨리우스는 1957년 9월 20일, 50년 이상 살아온 예르베페의 별장에서 사망했다.

학습 인명 사전 찾아보기 (숫자는 권수를 나타냄)

가리발디1	린 위탕8	빅토리아 여왕 14	와 트19	크롬웰26
간 디1	릴리엔탈8	사르프트르14	왕 안식19	클레오파트라26
갈릴레이1	릴 케8	사마 천14	왕 양명19	키에르케고르26
게이확삭1	링 컨8	석가모니14	왕 유지19	키이츠26
게 일1	마 네8	세네카14	왕 회지20	키케로26
게 강1	마르코니8	세르반테스14	웍스먼20	킴26
고 야1	마야살8	세 잔14	우 탕트20	타고르26
고 호1	마야크 트웨인9	세익스피어14	울 프20	테니스27
공 자1	마젤란9	소크라테스15	워싱턴20	토스카니니27
공쿠르 형제1	마호메트9	솔로몬15	워어즈워드20	토인비27
괴 테1	막사이사이9	소 팽15	윌링턴20	톨스토이27
구텐베르크2	말9	순 자15	웰 즈20	투르게네프27
그레쉬2	말 로9	슈 만15	위 고20	트루만27
그림 형제2	마코모프9	슈베르트15	윌리엄 3세20	파가니니27
나이팅게일2	맥아더9	스위프트15	윌슨20	파브르27
나폴레옹2	맥더스9	스토루15	유 방21	파블로프27
난 섀2	먼 로9	스트라빈스키15	유 비21	파스칼27
넬 섀2	엔 델10	스티이븐슨15	유우리21	파스테르나크28
네 루2	엔델스존10	(조오지)15	유 종원21	파스트르28
넬슨2	모 네10	스티이븐슨15	유클리드21	파운트28
노 벨2	모딜리아니10	(R. L. B.)15	이 백21	패러데이28
노 자2	모리야10	시바이쎄15	이 세민21	퍼어킨28
노르차치3	모 방10	시벨리우스15	이 슌21	퍼업 벅28
뉴우튼3	모 세10	시트라우스16	임 섀21	페스타르제28
나이제3	모오스10	시 톤16	자멘호프21	포스터28
다비드3	모 올10	실 러16	장 건22	포드28
다아윈3	모짜르트10	산 원16	장 자22	포우너28
다 윗3	모파상10	아르키메데스16	잔다크22	포 우29
단 테3	몽고메리10	아리스토텔레스16	장 제스22	폴 로(마르크)29
도스토예프스키3	몽테뉴10	아문센16	제 너22	푸시킨29
도 연영3	미 쉘11	아스카16	제퍼슨22	폴 탄29
돌턴3	미추란11	아아크라이트16	조이스22	프치니29
두 보4	미칠란젤로11	아우구스티누스16	존 슌22	쥘리제29
뒤 낭4	밀 레11	아이젠하워17	줄 라22	프랭클린29
뒤 마4	밀 턴11	아인슈타인17	주 공22	프로이트29
듀루이4	바그너11	아펜젤러17	주 돈이22	프뢰벨29
드 골4	바 울11	안데르센17	주 올23	플라톤30
드보르작4	바이런11	안젤리코17	주 원장23	플레밍30
돌라크르와4	바 하11	안 진경17	주 자23	플로베르30
드뷔시5	발레리12	안토니우스17	주 네23	플루타르코30
다이젤5	발자크12	알렉산더 대왕17	증 자23	피카소30
디즈니5	백 거이12	알 렌17	지 드23	피타고라스30
디킨즈5	버어뱅크12	알프레드 대왕17	지웃트23	히 램30
라이트 형제5	베 델12	암페르17	제펠린23	하야디30
라파엘로5	베드로12	애치슨17	차이코프스키23	하야비30
러더퍼드5	베르디12	매틀리17	채 운23	하야네30
러 섀5	베를렌12	앤더슨17	처어칠23	하이드거30
레셴스6	베를리오즈12	앵베르18	체호프24	하이트31
레오나르도다6	베살리우스12	아스페르스18	치올코프스키24	한니발31
빈 지6	베시머12	양 건18	칭기즈칸24	한 유31
렘브란트6	베에토벤13	양 자18	카루스24	함무라비31
로 영6	벤13	양 제18	카 워24	허셜31
로오렌스6	보들레르13	언더우드18	카아네기24	허슬리31
록펠러6	보 일13	에드워드 3세18	카아트라이트24	헤 겐31
롤 란6	복카치오13	에디슨18	카알 대제24	헤라클레이토스31
롤 엘7	볼 타13	에머슨18	카잘스24	헤로도투스31
루시니7	볼테르13	에 펠18	카프카25	헤르츠31
윈드겐7	부티첼리13	예수 그리스도18	칸 트25	헤밍웨이31
루빈스타인7	문 섀13	예미츠18	케네디25	헤 세32
루 소7	브라만스13	오비디우스18	케말 파샤25	헨 델32
루우스발트7	브라운13	오울컷18	케사르25	엘렌 켈러32
루 터7	(로버트)13	오 움18	케빈25	엘튼 존32
루드워프7	브라운(K.F.)13	오우언19	케플러25	오타티우스32
리 델8	브라운(베르너13	오우 헨리19	코페르니쿠스25	호 모32
리빙스턴8	존)13	오일러19	코 호25	호머32
리스트8	브라크14	오펜하이머19	콜롬부스26	후트32
리 흥잠8	브루투스14	옥타비아누스19	쿠베르탱26	허트먼32
린 네8	브라마르크14	와일드19	쿠 크26	홈32
린드버거8	비 제14	와 토19	퀴리 부인26	힉포라테스32

세 계 편 / 소년소녀

위 인 전 기

전 32 권



© KUM SUNG PUBLISHING CO., LTD. 1985 · 1987

개정신판발행 1985년 4월 30일
개정중판발행 1987년 11월 10일

발행인 김 나 준
발행처 (주) 금 성 출 판 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42의 63
등록 1965. 10. 19. 제10-6호
전화(713)9651~8 우편번호121

제 판 평화당인쇄 주식회사
삼화인쇄 주식회사
인 해 평화당인쇄 주식회사
삼화인쇄 주식회사
광명인쇄 공사
제 책 태성제책 주식회사
제 지 계성제지 주식회사

정가 3,000 원

(본사는 출판윤리 강령을 준수함)



삼국 통일의 명장
[1] 김 유 신



신라의 고승
[2] 원효대사



서역을 토벌한
[3] 고 선 지



해상 무역의 왕
[4] 장 보 고



한국의 발명왕
[9] 장 영 실



조선 중기의 학자
[10] 이 황



여성의 귀감
[11] 신사임당



해적을 무찌른 성웅
[12] 이 순 신



조선의 명필
[17] 김 정 희



대동여지도를 만든
[18] 김 정 호



조선 말기의 거목
[19] 흥선 대원군



한국 최초의 신부
[20] 김 대 권



항일 독립 운동가
[25] 안 창 호



항일 순국 의사
[26] 안 중 근



항일 민족 시인
[27] 한 용 운



민족의 사학자
[28] 신 채 호



고매한 문장가
[5] 최 지 원



고려의 시조
[6] 왕 건



목화씨를 들여 온
[7] 문 익 집



위대한 임금
[8] 세종대왕



《동의보감》을 쓴
[13] 허 준



북학파의 영수
[14] 박 지 원



천재 화가
[15] 김 홍 도



실학의 거두
[16] 정 약 용



조선 말기의 풍운아
[21] 김 옥 균



동학 혁명의 지도자
[22] 전 봉 준



국어학의 선구자
[23] 주 시 경



항일 독립의 혁명가
[24] 김 구



민족 음악가
[29] 홍 난 파



영원한 어린이의 벗
[30] 방 정 환



합일 순국 소녀
[31] 유 관 순



저항 문학의 시인
[32] 윤 동 주

소년소녀 위인전기 15 휘트먼

권말 특집 부록 : 학습 인명 사전



금성출판사